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영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정성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국민은행

경영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4월 2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21 호

한 생각이 쉬면 온 세상이 열린다.

사람 사는 이 세상에서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죄업(罪業)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에 부처님은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지난 세상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시작 없는 탐심, 진심, 치심으로 몸과 입과 뜻으로 지었으므로 내가 이제 지성으로 참회합니다"라는 게송을 읊었다.

탐·진·치 삼독으로 일어나는 죄업, 한 순간인들 이것을 버리고 살 수 없는 것이 중생의 삶이다. 그러나 그런 삶을 떠나 다른 세상은 있지도 않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생각을 끊지 못하고 따라다니는 허깨비 같은 삶됨이 못난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송 석 구

일이다.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다고 생각되겠지만 그 당장은 견디기 어렵고 참기 어렵고 분통이 터져 진심을 내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이것은 내가 전생(前生)에 지은 죄업의 소멸이다"생각하고 참회하면 그것이 공덕이 된다. 어떤 이기적인 공리를 노려서

한생각 쉬면 죄업소멸

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진심을 없애야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벌써 6년전 일이다. 내가 어떤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최고 득표의 영광을 가졌다. 그러나 추인과정에서 차점자가 선임되었다.

청천벽력같은 일이었다. 참회하고 울분이 터져 견딜 수 없었다. 그럴수록 아랫배에 힘을 주고 염불을 하고 집으로 갔다. 별의별 생각을 다하다가 생각을 한번 돌이켜 보니 이것은 전생죄업을 소멸시켜주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으로 제 죄업은 참회되었고 참회되었음으로 성취되었습니다"하고 마음을 쉬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2년 뒤에 나는 마침내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 만약 그때 내가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난하였다면 오늘의 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도 그러한 생각에 변함없으며 한 생각이 일어날때 죄업소멸로 참회하면 그 생각이 곧 공대무변 성취인 것을 믿고있다.

〈동국대학교 총장〉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법공양판 발행 (타블로이드 4면)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apia.com

'사찰 부동산 관리법' 만든다

조계종 2억여평 토지 종단 관리…정재훼손 최소화

조계종이 '사찰부동산 관리법'을 만든다. 이로써 입법미비로 인해 훼손, 매각, 망실됐던 토지 및 일체의 조계종 소유 사찰부동산 관리가 일원화된다.

지난 3월 25일 개최된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된 '사찰부동산관리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총무원장의 승인없이는 사찰 단독으로 사찰소유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종단 소속 사찰의 소유토지 가운데 보존토지(사찰이 건립된 토지 및 수행 전법 포교등 종교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지정된 경우 임대, 토지사용승낙, 개발, 양도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사찰부동산 관리법은 부동산의 보존 관리와 처분, 망실재산복원 및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여 종단재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예산회계법' 제7조에 '종단이나 사찰재산은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매각, 기부, 담보제공, 대여,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으나 법적효력이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다. 주지스님이나 총무원 임의로 대여 또는 매각해 삼보정재가 훼손 또는 유실된 사례도 있었다. 경북 포항 B사, 경기도 포천 H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총무원 관계자는 "사찰부동산관리법이 제정되면 개발로 인한 공공편입 및 수용, 과다한 세금 징수를 막을 수 있다"며 "약 2억여평의 종단 토지관리에 대변혁이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사찰부동산관리법이 제정되면 조계종산하 모든 사찰(암)이 소유하고 있는 사찰부동산(건축물 토지 입목등)은 '대한불교조계종 OO사'로 등기해야 된다.

사찰부동산관리법은 각 사찰의 주지는 부동산관련 서류를 작성해 교구본사와 총무원에 보고토록 체계화하고 있다. 또 해당사찰주지가 사찰소유 부동산(토지 건물 상가등)을 임대할 경우 4년이하로 계약해야 하며 임대계약 또는 경신계약시 임대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한편 총무원은 지난 3월 25일 개최된 제125회 임시종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고 이달내로 사찰부동산관리령을 마련, 입법에 고할 방침이다. 〈김중근 기자〉







조계종 초파일 봉축 캐릭터 발표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은 지난 3월 27일 불기 2541년 봉축 캐릭터를 발표했다. 금년 봉축 캐릭터는 지난해 제작한 아기부처님을 보완하고 불자 및 일반인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기 위해 동자승 캐릭터를 개발했다. 동자승 캐릭터 이름은 천진동자이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개구장이 같은 모습속에서 불교의 수행상을 형상화 했다.

조계종은 부처님오신날 행사 이미지 통일을 위해 캐릭터는 물론 현수막디자인 등의 내용이 수록된 책자를 전국 봉축위원회에 무상으로 배포할 방침이다.(02-732-9342)

월하종정 사퇴 확고
월주스님 예방 거절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월하 종정스님의 사표제출과 관련 지난 3월 26일 봉도사를 예방했으나 종정스님을 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월주스님은 봉도사측에 사전연락을 취하고 방문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총무원측은 "금명간 총무원장이 종정스님을 다시 예방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월하스님은 반려된 종정사표를 지난 3월 24일 중앙종회 사무처에 전달했다.

만등만화 육법공양

조계종 봉축위, 12일 장충體

조계종 봉축위원회는 오는 12일 장충체육관에서 불기 254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만등만화 육법공양대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법회는 예불·신중작법, 육법공양(향, 차, 등, 꽃, 과일, 쌀)을 비롯 가정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서울시민 1백명을 대상으로 합동결혼식을 개최한다.

9일 생명공동체 방생법회

팔당호서…수입어종 사용금지등 지침 발표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은 오는 9일 팔당호에서 한민족공동체를 위한 방생대법회를 개최한다. '한민족 한생명,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방생법회는 1만불자 통일발원 팔탑쌓기, 팔당호 수중청결대청소 등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조계종은 이번 방생법회를 통일·환경 운동을 함께 묶는 생명공동체운동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계종은 △수입어종 사용금지 △수질에 맞는 어종 선택 △조류방생 권장 등을 골자로 하는 방생지침을 발표했다.

청주佛放 25일 개국

불교청주방송이 25일 오전 전통을에 개국된다.

주파수 FM96.7㎒ 청주·대전등 충청지역을 가청권으로 하는 불교청주방송은 현재 개국 막바지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교청주방송운영위원회(위원장 혜광·법주사 주지)는 효율적인 방송국 운영을 위해 태고종·천태종 등의 참여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동포돕기 천만원 기탁 박상은씨 19면
표충비 신비 아십니까 9면
불교문화 테마여행-내소사 20면

현대불교 금주부터 20면 증면

기획다채 지면 대혁신
종단·지방소식면 확대

현대불교신문이 금주(4월 2일자 121호)부터 20면으로 증면됩니다.

94년 10월 15일 독자여러분의 박수와 기대속에 출발한 '현대불교'는 이제 정상의 전법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계의 신행 모습을 눈여겨보고 '독자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온 '현대불교'는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표방한 창간정신에 맞게 지면을 다시 꾸몄습니다.

지면 부족으로 미흡했던 직장 직능법회, 신행안내, 지방·종단소식 등의 정보를 확충하면서 지면을 크게 혁신하는 새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다시 창간하는 자세로 독자여러분의 도반과 선지식 그리고 가정법당이 될 '현대불교'에 아낌없는 성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방세계' 열면 법계가 보입니다

시 방 세 계

기획취재·화제의 인물 등 독자여러분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테마기획으로 시원한 컬러 지면입니다. 법구경과, 큰스님 수행한담, 자리를 옮겨온 대행스님의 지상상담과 우주를 넘나드는 소설 수미산으로 이어지는 '시방세계'를 열면 법계가 보일 것입니다.

불 자 세 상 보 기

인권, 환경, 도덕, 윤리 등 각종 사회 현상에 대한 사건을 정리하면서 경전의 말씀·전문가 도움말을 통해 불자로서 지녀야 할 사회인식을 넓히는 새 지면입니다. 지계와 파계로 경종을 울리고 생활정보로 새상품도 소개합니다.

새 연 재

▲한형조의 무문관 탐방

한형조박사(정신문화연구원·본지 논설위원)가 현대어로 쓴 '무문관' 탐방으로 어렵다는 공안공부를 해 보시죠. 〈선문염송〉속의 관련 예화와 해당스님의 사상과 종풍도 다뤄집니다.

더불어 '법수로 배우는 불교'와 '과학과 불교'가 자리를 함께하여 선·교(禪敎)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나와 경전

두 면으로 확대 강화된 출판페이지의 새 기획 '나와 경전'은 스님과 재가명사들의 경전 인연을 통해 더욱 감동적으로 경전의 세계에 다가서게 합니다.

▲건강과 식품

매일 먹는 음식 가운데 특히 건강에 좋은 식품은 무엇일까. 서울대 명예교수 이태녕박사(화학)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섭취하는 식품이야기를 재미있고 유익하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가정, 여성, 환경, 과년정보가 어우러집니다.

'97 문화 유산의 해 기념!

금동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 (축소모형) 보급

'97 문화 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조형미와 온화한 미소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금동미륵 보살반가사유상을 소장용으로 축소 보급합니다.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약 7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국보 제78호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과 함께 우리 文化財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머리에는 삼면이 둥근 산모양을 이루는 관을 쓰고 있어서 '삼산관반가사유상'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반가사유상은 흔히 미륵보살 혹은 태자사유상이라 하는데 이는 부처님 출가전 '生老病死'의 의미를 깊이 사유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후세에 출현할 미륵보살이 중생구제의 서원을 고민하여 깊은 사유에 빠져있는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전면의 단아한 모습과 함께 아래로 길게 늘어진 천의의 주름은 옛 선현들의 뛰어난 조각기술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우리 文化財입니다.

서양 근대조각의 대표적인 작품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에 비견되는 동양조각의 대표적인 작품은 바로 이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인 것입니다.



제 품 사 양

품명 :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국보 83호 축소형)
재질 : 청동 99.9%
가격 :

크기 \ 형태	골동품형 A, 골동품형A, 코팅
9치 (26.5cm)	230,000원
1자3치 (40.5cm)	350,000원

※ 개금을 원하시는 경우 개금비가 추가됩니다.

30여년간 불교조각에 전념해온 指定文化財 彫刻技能匠 제680호 佛敎彫刻院 이진형 院長이 심혈을 기울여 축소 제작한 작품으로 고전미와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감상하실수 있습니다.



이 진 형
LEE JIN HYUNG

- '81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총무원장상)
- '86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특별상)
- '89~'95 대한민국전통문화재 조각회원전 4회
- '93~'94 (사)문화재 기능인 협회 회원전 2회
-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추천작가
- 지정문화재 조각기능 제680호

현재:전통문화재 기능인협회 이사

제 작 : 불교조각원
보급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전 화 : (02)732-1522, 737-8881
팩 스 : (02)737-0697

사 설

BBS사태 왜 못 푸나

불교방송의 주인은 과연 누구이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심하게 표현해서 불교방송은 무주공산인가. 횡령된 회사 자금이 차장전결로 됐다해도 어처구니없는 일이고 최고경영책임자의 결재를 거친후 발생됐다해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최근 2개월여를 넘기고 있는 불교방송 공금횡령사건을 지켜보면서 노출된 경영관리공백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우려를 낳고있다. 수습방안은 커녕 사건의 진상규명조차 되지않고 나날이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방송 공금횡령사건은 폭로됐던 초동조사에서 이미 더욱 수습키 어려운 국면으로 내달렸다. 현재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선도씨를 차치하고라도, 경영진은 명확한 사건규명보다는 오히려 은폐와 축소에 더 급급했던 인상이 짙다. 게다가 공금횡령을 수사한 검찰도 한몫 거들고 있다. 손놓고 있는 것처럼 비쳐질 정도로 수사가 답보상태인 것은 사태를 더욱 안개속으로 몰아붙였다. 이미 조사시기를 놓친 공금횡령 사건은 현재 수습의 실마리를 찾지못한채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들만 무성하다. 방송국 자체내만 해도 각 주체마다 수습위가 잇달아 결성되더니 조계종 총무원과 종회도 나서고 있다. 불교단체들도 성명서를 내고 수습을 촉구하고 있다.

이제 더이상 불교방송사태의 수습을 미룰 수 없다. 수습의 절차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진상을 규명하면 자연히 해결의 방안이 나오게 된다. 이미 공금횡령으로 드러난 형사사건이니만큼 규명된 진실에 의거해 법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면 되는 일이다.

상식적인 이 절차가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그동안 자체적으로 해결해나가길 바라며 지켜보던 불자들도 이제는 세상일과 같이 법대로 해야한다고 보고있다. 그것은 그동안 범죄가 가능토록 방관하고 방치했던 무책임한 경영진과 이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사회가 수습에 나선 것이 결국 한계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결국 현실적으로 절실한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고 이를 위해 최고경영진부터 전직 경영책임자까지라도 나서서 진실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어떤 사안은 드러내고 어떤 사안은 덮는다면 그동안의 파행경영과 다를 바가 없다.

불교방송 공금횡령사건 발생과 수습의 과정에서 우려할 몇가지 사안들이 드러났다. 우선 불교방송이 방송으로서 공영성도 있지만, 설립 자체가 불자들의 성금으로 이루어진 불자들의 방송이라는 점을 임직원들과 재단은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여느 재단법인이나 방송국과는 설립추진부터 다른 불교방송이 파행과 혼란으로 이어져 간다면 대 사회적인 불교계의 위상 실추는 물론 불자들로부터도 외면당한다. 이것은 향후 불교방송 뿐만 아니라 다른 공익불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보듯 환하다.

다음은 불교방송 내부적으로 전체 임직원들 간의 불신과 자조 및 사기저하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오는 5월1일 개국7주년을 눈앞에 두고 그동안 사장공석 고소 고발사건 등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형성된 위험한 정서다. 결코 길어져서도 안되며, 공금횡령사건의 수습과 동시에 임직원 스스로가 극복해내야 할 절실한 과제다.

불교방송 공금횡령사건은 정확한 진상규명만이 해결의 열쇠이다. 사건과 관련 도의적 실무적 책임자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공명하고 신속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佛法을 널리 펴 사바에 연꽃을 피우려는 불교방송에서 향기롭지 못한 소식이라니 불자들의 실망이 크다. 죄는 참회하면 가벼워지고 덮으면 무거워진다. 늦었지만 부처님 법을 전하는 방송다운 해법을 속히 찾길 바란다.

열린마당

조계종 승려 기본교육

조계종 행자교육원을 이수한 사미(니)승 중 72%가 종단기본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현상의 주된 이유로 기본교육에 대한 인식부족과 제도미비가 지적되고 있다. 기본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조계종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들어본다. 〈편집자 주〉

"규제안 4월중 마련…법령개정 추진"

향적 〈조계종 교육부장〉



교육은 백년대계다. 전체 승려의 보편적 수준이 유지돼야만 불교가 발전할 수 있고 이는 제도화된 체계적 교육으로만 가능하다. 특히 부처님 제자라면 기본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스님들의 인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스님들을 기본교육기관에 흡수할 수 있는 보완책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교육원은 현재 실무위원회를 구성, 이에 대한 전반적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이중 현재 행자교육만 마쳐도 예비승려증(사미증)을 발급하던 종전의 방침을 바꿔 기본교육을 마쳐야만 승려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또 사승(師僧)도 도제양성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규제안도 마련중에 있다.

1년에 두 번 설하는 행자교육도 한 번으로 줄여 비구계 수계와 보조를 맞출 방침이다. 늦어도 4월말까지는 이같은 대책안을 마련, 법령개정을 상정할 계획이다.

사실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현행 '선(先)득도 후(後)교육' 체계 자체를 '선교육 후득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상당한 시간을 요할 뿐더러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승려예비후보생을 선발, 승가대 졸업과 동시에 사미계를 부여하고 2년제 학림 졸업후 비구계를 수여하는 방식도 고려해봄직하다.

"종단 미래걸린 문제…단호조치 절실"

명성 〈운문사 승가대학 강주〉



종단이 정한 기본교육마저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불교에 귀의한 초발심마저 의심케 하는 무책임한 선택이라 아니할 수 없다.

스님들이 기본교육을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선배들과 중국 선불교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만해도 불교사상의 일반적 인식만 철저하면 다른 교육은 필요치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불교와 스님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 외에도 사회변화를 뒤따르는 학습이 수반돼야 한다.

선(禪)수행은 불교에 입문한 승려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교학공부도 반드시 병행해야 할 필수적 요소다.

기본교육은 올바른 승려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선만을 고집하고 교를 소홀히 한다면 승가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렵다. 승가도 이 사회에서는 하나의 공동체다. 이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체계적 교육은 당연하다 하겠다.

기본교육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등을 이유로 입교를 기피한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초발심의 열정이라면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스님들의 인식전환을 당부한다.

비구계를 수지하지 않은 예비승려를 승려로 인정할 수는 없지 않은가. 조계종의 내일이 걸려 있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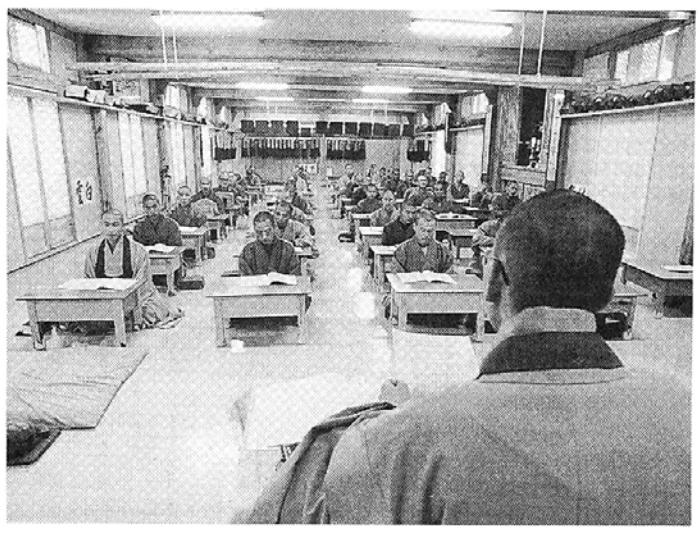
기본교육 현황과 대책

조계종 교육원은 승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모든 예비승려들이 종단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방침아래 최근 기본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주목할만한 것은 대책마련에 앞서 최근 교육원이 제시한 통계자료. 지난 95, 96년 2년간 사미(니)계 수지자는 모두 914명이며, 이중 기본교육기관(동국대, 중앙승가대, 강원, 기초선원 등)에 입교한 수는 2백60여명에 지나지 않아 기본교육 미이수자가 72%에 달한다는 것이 자료의 주요 내용이다.

물론 이 통계자료는 추정치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상당수의 기본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차제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교계의 일반적 중론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행자교육까지 마친 예비승려들이 기본교육을 회피하는 근원적 이유로 접근하는 것이다. 우선 꼽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은사스님 및 예비승들의 기본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행자교육을 마친 후 바로 본·말사 사찰, 포교당의 소임을 맡거나 은사스님이 필요에 의해 데리고 있으려 하는 경향이 높다. 또 스스로가 기본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이유도 있다. 출가동기가 다양한만큼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원은 기본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대책으로 기본교육 이수 후 승려증 발급, 도제양성과 관련해 사승들의 인사고과 반영 등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승가대·강원 등 4년과정 수료해야
예비승려·은사 교육 중요성 인식 필요

이같은 경향에 제도적 허점도 일조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계종은 기본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비구계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 왔다. 또 현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긴 하나 96년 7월 제정·공포된 새 승가대학령은 종단의 인가를 받은 기본교육기관을 이수해야만 비구계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문제는 비구계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승려생활을 하는데 거의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승적상 예비승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사찰에서는 신도들로부터 똑같이 스님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비구계를 1년에 한 번 설하는 반면, 사미계의 경우 1년에 두 번 설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도 이같은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6개월 먼저 사미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비구계를 똑같이 받게 됨으로써 위계질서 문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고, 이를 달가워 하지 않는 스님들이 기본교육기관 입교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예비승려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것은 승려의 자질문제에 앞서 조계종의 기강이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비승려가 어찌 승려행세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조계종이 귀담아 들어야 할 여론이다.

한명우 기자

기본교육 왜 안받나

"비구계첩 없어도…"
"은사 시봉하느라"
"불교공부하고 왔는데…"

부산 A사찰의 한 스님은 행자교육을 받은지 2년이 지났지만 기본교육기관에 입교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 늦은 나이에 출가했고, 불교에 대해 웬만큼 알고 있는데 또다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모 강원에 있는 스님은 "주위에서 은사스님의 시봉을 드느라 공부를 더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또 "1~2년 정도 은사스님 시봉을 든 후에나 기본교육기관에 입교하는 경우도 많다"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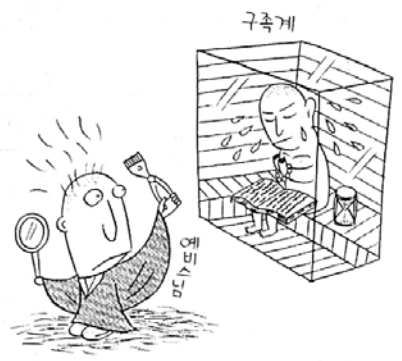
경기 M사찰의 스님은 "선(禪)에 매력을 느껴 출가한만큼 교(敎)를 따로 공부할 생각은 없다"는 단호한 주장을 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사찰의 지명조차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스님은 "솔직히 말해 비구계를 안받아도 스님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며 "승려생활 본분에 충실하면 그만이지 굳이 4년씩이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으냐"고 되물었다.

천안 O사찰의 한 스님은 "심지어는 출가를 생활의 수단이나 방편으로 삼고 있는 스님도 간혹 있다"며 "이런 스님들을 기본교육기관에 끌어들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0691

현대만평

박구원



머리만 깎으면 스님인가?

송광사 삼월불사 및 가사불사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정축년(丁丑年) 승보종찰 송광사 조계총림 대도량에서는 예년과 같이 보조국사 종재일을 맞아 3일간의 대법회를 갖습니다.
금년에도 보조국사의 입적 당일인 5월3일(음, 3월27일) 종재를 봉행하고 인천의 무루 복전인 가사불사 회향법회를 함께 봉행합니다.
불·법·승 삼보에 인연 있는 불자님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수희 동참하시어 수승한 법연을 맺고 지혜를 얻어 모두 성불하여지이다.

법 회 안 내

1. 일시 : 불기2541(1997)년 5월1일(음, 3월25일)~5월3일(음, 3월27일)3일간
① 음, 3월25일(5월1일) 오후 7시 보살계 입재
오후 8시 보살계 심지법문
② 음, 3월26일(5월2일) 오전 7시 보살계 계율설법(법문)
오전 10시 2차 가사불사 회향
오후 2시 보살계 계율설법(법문)
오후 7시 전국불일회 정기총회
③ 음, 3월27일(5월3일) 오전 7시 보살계 수계의식
오전 9시 법성도 요잡의식
오전10시 787회 보조국사 종재봉행
오전12시 정축년 3월불사 회향

2. 계사(三師) : 전계아사리 - 梵日普成
교수아사리 - 杲山慧元
갈마아사리 - 度然法興

3. 동 참 방 법 : 가사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분이나 삼월불사 동참을 희망하시는 분은 송광사 종무소와 명기된 연락처에 상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연락처
①본사 :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본사 송광사
종무소/전화0661)755-0107,0108, 0109
②지역 : · 서울분원 법련사/02)733-5322
· 광주분원 원각사/062)223-3168
· 대구분원 관음사/053)423-4413
· 순천분원 대승사/0661)744-4902
· 부산분원 관음사/051)205-0069
보덕사/051)518-7790
· 여수분원 보현사/0662)62-5145
· 송광사 각말사암
· 각지역 불일회

5. 동참금 : ㉮삼월불사 보살계 수계 동참금 30,000원
㉯영가천도 동참금 10,000원
㉰가사불사 : 한가족 한벌동참금 300,000원

▣ 온라인번호 ①농 협 615-51-008814(예금주 송광사)
②우 체 국 501676-0014699(예금주 송광사)
③국민은행 551-01-0470-485(예금주 송광사)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본사 승보종찰 송광사 주지 현고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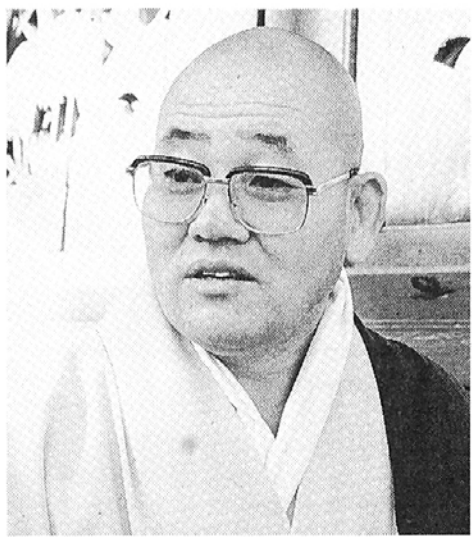
주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종무소/0661)755-0107~9

"세상은 더불어 사는 곳이죠"

골수기증운동 펴는 생명나눔회 이사장 법장 스님

수요 인터뷰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법장스님(수덕사 주지)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장 박진탁목사와 중앙적십자혈액원 김충진부원장 등과 지난 3월 21일 마포 가든호텔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사랑의 골수기증운동본부'를 설립키로 했다. 불교 기독교 적십자사가 하나되어 펼치는 백혈병환자 돕기 골수기증운동은 자비와 사랑의 행진으로 승화될 전망이다. 이 운동이 가시화되기까지 앞장서온 법장스님에게 골수기증운동의 의의와 현황 전개방안등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불교-기독교-적십자사 연대 자비 나누기
백혈병 환자 4만명…10만 기증자 확보해야

-스님께서 종교를 초월한 골수기증운동을 벌이신 동기가 궁금합니다.

▲세상은 혼자보다는 둘이 또 둘보다는 셋이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랑의 장기본부장인 박진탁목사는 그동안 종교간의 벽을 허물고 모든 일들을 함께 숙의해온 도반이지요. 이번 일도 그런 차원입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환자들은 종교와 국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생명존중의 의미에서도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골수기증운동을 펴야겠다는 뜻을 낸것은 미국의 한국계 사관생도였던 성덕 바우만군의 소식을 접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보사부 조사결과 골수기증이 필요한 재생불량성 빈혈과 백혈병환자는 3~4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매년 2~3천명씩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요. 이를 위해 3년 동안 10만여명의 골수기증자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최근 인간복제등 생명에 대한 다른차원의 인식이 점차 확대되는 듯 합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부처님은 생명이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생물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처사지요. 조각품처럼 찍어내는 인간복제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사회정서상으로 옳지않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지요.

-생명나눔실천회가 94년 창립하여 지난 3월 21로 창립 3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애쓰셨는데 보람과 어려움도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신공양이기도한 생명나눔 실천은 진아(眞我)를 찾는 길이며 궁극적으로는 가는 불교의 근원정신입니다. 그동안 생명나눔실천회는 불자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각종 기증자도 1천9백9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기증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의 벽을 넘지못했다는 것과 신장기증자들의 검사비 조달이 가장 난감했던 점입니다. 보람이라면 무엇보다 기쁨이 크다는 것이지요. 신장이식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감사의 인사를 왔을때는 이몸을 던지더라도 이 운동을 해야겠다는 원력이 생깁니다.

김원우 기자



◇중앙승가대학은 지난 3월 21일 김포학사 착공식을 가졌다.

"불사성공 이제부터"

승가대 김포학사 '첫삽' 280억원 확보 '숙제'

중앙승가대 '제2 건학(建學)'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지난 3월 21일 김포학사 착공식을 가진 중앙승가대는 학사이전 다음해인 99년까지 종무행정학과 등 6개학과를 신설, 총8개 학과 9백80명의 학생유치 및 대학원과 각종 연구소 설립 등 발전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김포학사 건립에 따른 예산부족과 전통강원과는 다른 종합적인 승가 교육도량으로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안게 된 것도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학사이전에 따른 재원확보. 95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이전 학사 신축 기부금 및 후원회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남아있는 예산은 불과 2천7백여만원뿐이다.

종단에서는 사찰분담금으로 95년도에 20억원, 96년도에 5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애초 약속과는 달리 지금까지 발전기금 형식으로 6억1천만원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95·96년 두 차례의 후원법회에서 모두 20억원의 후원금을 약정받았으나 들어온 후원금도 거의 없어 공사비 2백80억원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4년제 정규대로서의 면모일신도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숙제다.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불교학 연구의 중심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발전방향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불교학 외에 한의학이나 문화재학 등 인접학문 신설과 개설예정인 종무행정학을 공부할 경우 기본교육은 어떻게 이수토록 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명우 기자

목어

"자식도 수입하려나"

검은색 고급 승용차 앞을 노신사가 지나치며 말했다.

"나는 이 차 안타고 택시 타고 가겠네."

택시를 타려고 큰길로 나서던 신사는 마음이 변했는지 다시 승용차 앞으로 온다.

"내가 택시를 타도 자네가 이 차를 타고 내 뒤를 따라 올테니 휘발유 한방울도 안나오는 나라에서 낭비아닌가. 할 수 없이 이 차를 타고 가야겠네."

차안에서 수행하려온 젊은이가 묻는다.

"왜 이차를 안타시려고 하셨나요"

"자네 주인은 아마 자식도 외제로 수입 할지 모르겠군. 내 자식이 좀 부족하고 못났어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나. 국산품 놔두고 도대체 이런 외제 승용차를 왜 타야한단 말인가." 드라마의 한 장면이다.

한심하고 멍청한 사람들의 사치병·외제병이 이 나라 경제를 병들게 하고 국민정신건강을 좀먹고 있다. 수입품에 밀려 국산품이 사라지고 있다. 신토불이가 옛말될까 두렵다.

백화점의 화장품매장은 이미 외제코너에게 점령당했다. 우리나라가 위스키 수입 왕국이 되고, 세계영화시장의 '봉'이라니 이 무슨 낯뜨거운 일인가. 그래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프랑스 패션업계의 물주가 될것인가. 30만원 넘는 팬티를 입고 1억원짜리 모피코트를 걸친다고 죽으면 한줌 흙인 이 육신이 달라지는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한다면 과소비 외제사치는 그야말로 아침이슬에 지나지 않는다.

3천만원짜리 수입견공이 심심찮게 거래되고, 애견용 치약·이유식·껌이 사람용보다 비싼데도 잘 팔린다. 호화결혼식뒤에 1천만원짜리 이바지 음식이 오가고 있다. 월수입 2백만원 가정에서 유치원생 아들에게 50만원짜리 외제옷을 사입힌 어머니가 있다. 어디 이런 사람이 한둘이겠는가.

일부계층의 망국적 과소비가 우리사회에 전염병처럼 만연하고 있다.

"외제와 사치품을 먹고 입고 바르며 흥청망청 살아가는 골빈 국민여러분!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신차립시다. 그리고 굶주리는 북한동포를 생각합시다."

"직영사찰 해제냐 존속이냐"

총무원-은해사, 선본사 운영 놓고 공방

선본사(일명 갓바위) 직영사찰 해제와 관련 지정배경이 '사고사찰'이냐 '우량사찰'이냐를 놓고 조계종 총무원과 해당 교구본사 은해사의 공방이 고조되고 있다.

총무원측은 지난 94년 제2·3차 개혁회의에서 선본사가 사고사찰로 지정됐으나 10차 개혁회의에서는 우량사찰로 재지정돼 직영사찰해제는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은해사측은 서의현 前총무원장 당시 사유화로 인해 한시적인 직영사찰로 지정됐으나 2년간 직영을 통한 정상운영 등 현재는 사고사찰 상태가 아니므로 직영사찰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계종단 내부의 첨예한 문제로 급부상된 선본사 문제는 지난 3월 12일 조계종 종회의원 30명이 '선본사 직영사찰 해제'에 따른 안건채택 요청서를 중앙종회에 제출, 지난 3월 25일 개회된 제125회 중앙종회 안건으로 채택되면서 더욱 불거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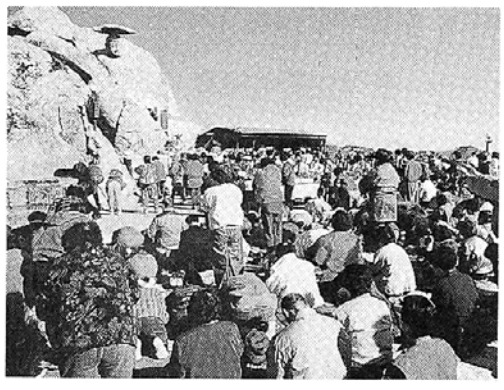
이와관련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3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직영사찰 해제를 요청한 것은 94년 개혁회의 당시 직영사찰 지정 취지에 대한 오인과 종법에 대한 이해 부족의 결과다"고 일축했다. 또한 "선본사는 재정이 우량한 사찰로 종단목적사업에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직영사찰로 지정됐다"며 "종회안건채택은 개혁회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천명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대표 청화 지선) 선우도량(공동대표 도법 현봉) 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 지선스님)등 단체들도 지난 3월 19일 각각 성명서를 통해 "선본사 문제는 사찰재정개혁과 종단물적구조 혁신의 핵심으로 개혁종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은해사측은 "사고사찰이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즉각 개혁회의에 보고하여 직영을 해제한다며 한시적으로 지정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간 약 20여억원이 분담금으로 소요돼 불사 및 유지비를 제외하곤 지역불교를 위한 예산 편성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역불교 활성화 차원에서 직영체제를 특별분담사찰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실제 개혁회의 당시 직영사찰로 지정됐던 동화사와 은해사는 지난해 해제됐다는 사례도 제기했다.

선본사는 정평난 약사기도영험도량으로 전국에서 불자들이 연중 모여들고 있다. 특히 음력 초하루부터 초3일까지는 기도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96년 수입은 약 36억원으로 재정규모가 몇손가락안에 꼽히는 상위권사찰이다.

이처럼 조계종단 내부의 첨예한 문제로 대두된 선본사 직영사찰 해제의 건은 향후 종단구조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여 원만한 타결이 절실하다.

김중근 기자



◇선본사(갓바위)의 직영사찰 해제 문제가 조계종의 첨예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선본사 부처님께 기도드리는 신도들 모습.

총무원 "목적사업 수입충당 우량 사찰"
은해사 "특별분담금 사찰 재지정 마땅"

부처님 탄생 성지 룸비니 동산

8만4천 연등공양불사 및 천일기도 동참 권선문

일시 : 불기 2543년 음력 4월 8일
서기 1997년 5월 22일 오시

장소 : 네팔왕국 바이라화와 루판데이
룸비니동산 부처님 탄생하신 곳

▣ 부처님 탄생성지 청정 불사

네팔 룸비니동산 부처님 탄생성지는 연간 전 세계에서 수백만명의 참배객이 다녀갑니다. 하지만 지극한 신심으로 성지를 찾아 환희심에 젖는 불자님들을 위한 화장실과 식수대가 성지 시설에는 없습니다. 성지를 청정하게 유지하고 참배객의 편의를 위해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불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뜻있는 불자(佛子)님의 동참을 간절히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1996년 5월)부터 청소부 3명을 두어 성지 청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책임지고 계속할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걱정마십시오.

귀위 삼보하옵고, 불자(佛子)님의 가정과 직장에 모든 부처님과 호법신중의 가호가 함께하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앙축합니다.

산승은 지난 1996년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날에 네팔 룸비니동산 부처님 탄생하신 곳에서 2만(20,000)개의 등불을 밝혀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를 원만히 거행한 바 있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룸비니 동산 가꾸기 후원회를 만들어 쓰레기통 10군데, 손수레 3대, 1년간 사용할 청소도구 일체, 청소부 3명을 고용하고 1년분 임금과 제반 비용을 선지급하여 현재까지 성지 청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룸비니 동산 부처님 태어나신 곳을 찾는 모든 분들이 사용할 공중화장실(현재 없음)및 관리소를 건립키로 네팔정부 관계장관 및 룸비니 개발위원회로부터 부지와 건축허가를 완벽하게 다 받아놓았습니다. 건축 예정 장소는 룸비니동산 주차장 바로 옆에 위치한 성스러운 정원 호수 곁입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많은 불사를 진행해 왔지만, 불자님들께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진행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불사 진행이 늦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성지 청정불사(청소, 화장실, 식수대 설치 불사)만큼은 모든 뜻있는 불자님들의 원력을 한데 모아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불사를 원만 성취하기 위해 산승은 부처님께서 49년간 설법하신 8만4천 법문을 빌어 **한 법문 한등 공양 8만4천인 동참 빈자 1등 정성으로 공양 천일기도**를 올리기로 서원하였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성지 룸비니 동산 가꾸기에 적극 동참하시어 한량없는 미래생에 다하지 않을 선근공덕을 지으십시오 전 세계 인류가 다 같이 복락을 누리는 기원도량이 될 룸비니 성지 **8만4천 연등공양 및 천일기도**에 화주시주님이 되시어 동참하시고 이 불사의 원만성취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며 이 권선문을 펴옵니다.

소원성취하시고 성불하십시오!

지난해 룸비니동산 초파일 법회 원만 성취를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40년(1996년) 초파일
룸비니동산 봉축 법회

장소 : 네팔 룸비니동산
연등공양 : 약 20,000개
증명 및 참석:
대성 석가사 주지 법신스님, 네팔 카투만두 코네코사장 정현일 거사, 룸비니 개발위원회 녹다산 전위원장, 네팔 문화부장관 발 바하두루, 고고학 총재 룰시담 바이드야, 트리브반대학 고고학교수 대표 마단, 태권도협회 총재 및 아스터대학 감독 디프라지 구룽, 룸비니 개발위원회 고문 비말라 난타스님, 세계 산악인의 집 빌라 에베레스트 정영식 사장, 지배인 앙 돌지,
그 외 통역과 제반 문서를 번역하고 한국과 네팔을 수차례 왕복하며 긴 여정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신 평택 진위사 거주 귀연스님 외 후원회 위원들과 교수님, 태권도 사범, 경비를 서주신 군과 경찰, 그리고 지방 유지분들의 협조와 증명아래 원만 성취함.

전화 : (0333)62-4848(4월8일 4월8일) 62-6677(육바라밀 칠불칠불)
FAX : (0333)63-6677
직통 : 011-264-6677(011-264-9191(구원구원)사무장)

네팔 주소 및 연락처 SEONG LI. KIN DONGHO. KOREAN BUDDHIST MAHABODHI SOCIETY DAESUNG SHAKYASA TEMPLE. LUMBINI SACRED GARDEN RUPANDIHI LUMBINI NEPAL
TEL(FAX)977-71-29474(주지 법신스님 받아서 성일스님을 부탁하면 바뀌줄니다.)

송금계좌번호(농협 205031-52-066718)(축협125-72-06544-017)
(국민은행 207-21-0151-231)(우체국102517-0027521-12)예금주 김동호

네팔 송금시 CITY BANK NA NEWYORK N.Y. A/C No36083047
HIMALAYA BANK FOR 14948 AO
HIMALAYA BANK KATHMANDU DONG HO KIM

●룸비니 동산 가꾸기 불사를 같이 하실 스님과 신도님을 모십니다. 원력만 계시다면 경비와 숙소는 제공하겠습니다. 직접 하신다면 산승이 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음력 4월 8일 룸비니동산 부처님 태어나신 곳에서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및 기도와 만등불사를 봉행합니다.

우편번호 : 451-860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652 소원성취사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산4번지 진위사 주지
룸비니동산 국제봉축위원회 위원장
룸비니동산 가꾸기 후원회 회장 성일 김동호 합장

도법·지운스님 '해인'誌서 계율논쟁


◇지운스님


◇도법스님

도법스님(선우도량 공동대표·실상사 주지)이 월간 〈해인〉 97년 1월호에 기고한 '새해에는 이런 문제들이 정리되길'이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지운스님(송광사 강원 강주)이 〈해인〉지 4월호에 반박문을 기고했다. 두 스님의 글은 승단에서 드러내기를 기피해온 반면 한국불교의 모순과 혼돈으로 비쳐져온 계율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 도법스님의 주장과 지운스님의 반박문을 발췌해 게재한다. 〈편집자 주〉

도법스님 "보살·비구계 현실상 지키기 곤란"
지운스님 "계율 무시는 승가 부정·수행포기"

조실스님에게 올리는 문안편지 형식의 도법스님 글은 한국불교가 안고있는 다섯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는 오늘날 한국불교의 사상적 정체성, 둘째는 수행정진과 전법교화, 셋째는 바람직한 수행자의 삶과 모습, 넷째는 수행자가 계율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다섯째는 은처승과 도박승에 대한 기강문제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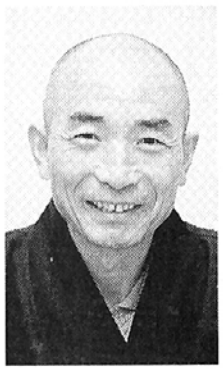
도법스님은 "수행자가 계율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우리 종단에서는 현실적으로 지킬 수도 없고 지켜지지 않는 보살계 비구계를 주고 받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행자들은 계를 받는 즉시 위선자 또는 고계한 죄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당혹스럽습니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운스님은 "계율이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책을 마련하여 지켜지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다고 말한 것은 계율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계율에 대한 부정은 곧 승가를 부정하는 것이고 수행의 포기이며 불법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지운스님은 "도법스님의 오류에 대해 △재가와 출가의 구분은 계율에 의한다 △수행을 위해 계율을 지켜야한다 △정법은 계율에의해 지켜진다는 점"을 들었다.

위영란 기자

"성지 가꾸며 팔만사천 연등불사"

네팔 룸비니 동산 청정불사 성 일 스님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진행하다 보니 본의아니게 불사 진행이 늦었습니다. 이번 성지 청정불사(청소, 나무심기, 화장실·식수대 설치 불사) 만큼은 뜻있는 불자님들의 원력을 한데 모아 빠른 시일안에 완료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동산에 청정불사를 일으키고 있는 성일스님(평택 소원성취사 주지)은 이 불사를 원만히 성취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49년동안 설법하신 8만4천의 법문을 빌어 '한 법문 한 등 공양'을 발원하고 천일기도에 들어가기로 했다.

룸비니동산에는 연간 수백만명의 참배객이 환희심에 젖어 성지를 다녀가지만 화장실과 식수대조차 없고 쓰레기가 널려 있어 불교성지로서의 면목을 갖추지 못했다. 지난해 부처님오신날 룸비니동산에 2만개의 등불(약 2천만원 소요)을 밝히는 봉축법회를 거행하면서 이를 안타깝게 여긴 성일스님은 지난해 5월 '룸비동산 가꾸기 후원회'를 조직하고 현지 청소부 3명을 고용(청소비용 3억원 예치), 성지청소를 계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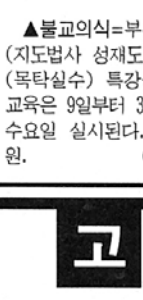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도 룸비니동산에서 2만개의 연등공양을 올리는 봉축법회를 가질 예정인 스님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룸비니동산을 우리 불자들이 되살려야 한다"며 "불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0333-62-4848)

한편 성일스님은 평택시 무봉산 일대 3만9천여평의 대지에 실버타운과 납골당, 법당, 무료고시원, 자연공원 등을 갖춘 불교종합타운을 조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

김재경 기자

교차로

고산장학금 전달식



고산(재)고산장학회 이사장 스님(쌍계사 조실)은 지난 3월 30일 부산 혜원정사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현능스님(미국 유학중)을 비롯 대학 및 중·고교생 등 90명 중학생 8명에게 총 4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중·고 대학생에 장학금



도후 신흥사 주지는 지난 3월 29일 속초 원각사에서 중학생 14명, 고등학생 19명, 대학생 2명에게 총 1천1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클레이톤大 철학박사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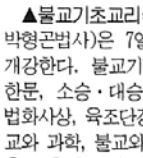
법타 은해사 주지는 지난 3월 19일 미국 미조리주 클레이톤(clayton)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편 스님은 은해사 본말사 스님 70여명과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미얀마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IAVE 대회 한국대표로



성덕 불교자원봉사자연합회 회장스님은 9일부터 13일까지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열리는 세계자원봉사연합회(IAVE) '97 아시아·태평양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한다.

광주佛放 2돌 축하공연



지범 제주 법화사 스님은 15일 오후 6시 광주남도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광주불교방송 개국 2주년 축하공연에 참가, '부모은중경' '금강경' 등 찬불가를 부른다.

동방문화대학원 기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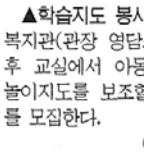


김응현 동방학원 이사장(서법가)은 13일 오전11시 경기도 포천읍 동교리 570번지에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기공식을 갖는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는 전통문화관련 교육연구를 담당하는 대학원으로 오는 98년 3월 개교한다.

신도단체협 지부결성 추진

김용직 전국신도단체협의회 회장은 지난 3월 24일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올해 시도지부 결성을 비롯 욕심줄이기 실천운동과 문화유산보호운동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보현회 4대 회장에



김용철 동국대학교 사업부장은 지난 3월 20일 개최된 동국대 불자교직원 신행단체인 보현회 정기총회에서 제4대 회장에 선출됐다.

'삼세인과…' 편역 출간



김진택 광주·전남 불자교사모임 대표(전남여상고)는 최근 초발심자 불교안내서 〈삼세인과 그리고 윤회〉를 편역, 출간했다.

인사

조계종중앙신도회

△사무총장 조종래 △사무부총장 백영식 △총무부장 정웅정 △교화부장 궁인창



이순자씨 열반절 조계사 새벽예불

전두환 前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열반재일을 맞아 조계사 새벽예불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씨는 지난 3월 23일 서울 조계사 새벽예불에 차남 전재용씨 내외를 대동하고 참석했다.

이씨는 매월 초하루·보름에 장남 재국씨(도서출판 시공사 사장)를 비롯한 재용·재만씨 내외를 번갈아 대동하며 조계사 새벽예불에 참석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본부 모금 현황

△밥 한공기 나누기운동 1,233,000원△서울역캠페인 867,470원 △이호무 1,000,000원 △고경민 1,000,000원 △황인태 160,000원 △이나라 700,000원 △김주희 500,000원 △이순애 200,000원 △관보선 100,000원 △송영도 50,000원 △최광섭 30,000원 △강주희 30,000원 △이호근 20,000원 △송정래 20,000원 △윤택상 10,000원 △정운영 10,000원 △유금 10,000원 △유인식 10,000원 △서한주 10,000원 △김형준 10,000원 김경희 10,000원 △유재은 10,000원 △박중현 10,000원 △고이영 5,000원 △공원기 3,000원 △강광철 2,000원 △조대성 2,000원 △농협이자 및 기타 112,531원

〈26일 현재 총 141,104,002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79-960

예금주 :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자민련 불자회 박 철 언 3대회장



"자민련불자회가 여러 큰스님과 불자들의 원력을 하나로 모아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길을 새로이 밝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불교방송 공개홀에서 열린 자민련불자회 창립2주년 기념법회에서 제3대 회장에 취임한 박철언회장(55·자민련 부총재)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회장은 또 "지난 3월 17일 자민련불자회소속 의원 19명 등 정각회 의원 57명이 발의한 전통사찰보존법의 개정법률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사찰환경 보존과 문화유산 보호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자연공원법, 농지법 등 남은 불교관계법의 개정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용채 노원구청장, 정상구 의원에 이어 제3대 회장에 취임한 박회장은 노모의 깊은 불심에 힘입어 이번에 회장직을 수락했으며, 현재 서울 양재동 구룡사에서 불심을 다지고 있다. 〈재〉

"불교관계 공원·농지법 개정추진"

게시판

♣ 강좌

▲역사문화=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은 5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중앙박물관 사회교육관 강당에서 '토요역사 문화 공개강좌'를 연다. 시간은 오후 2시. 올해는 현장학습에 비중을 두어 불국사, 해인사 등을 8차례 답사할 예정이다.

(02)398-5000

▲불교의식=부산불교교육원(지도법사 성재도)은 불교의식(목탁실수) 특강을 개설한다. 교육은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실시된다. 수강료 3만원.

(051)466-4080

▲환경초급=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오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매주 화요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제4기 환경초급강좌를 개설한다. 이번강좌는 '환경문제와 여성의 역할' '폐기물 문제' '농업과 환경' 등이 개설되며 이진아실장(경실련 환경개발센터) 김은영의원(도봉구) 서용진 사무국장(경실련 환경개발센터) 등이 강의한다.

(02)723-0887

▲권기종교수 초청법회=권기종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초청 4월 다보법회가 2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법당에서 개최된다.

(02)703-0108

▲금강경 강좌=정토포교원(원장 법륜스님)은 2일부터 6월 18일까지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좌를 실시한다.

(02)379-1650

▲불교기초교리=녹야원(원장 박형곤법사)은 7일 불교학당을 개강한다. 불교기초교리, 기초한문, 소승·대승불교, 화엄·법화사상, 육조단경, 금강경, 불교와 과학, 불교와 서양철학 등을 교육하며 강의는 매주 토요일 10시다. 수강료 12만원.

(042)625-1080

♣ 모집

▲급식봉사자=개금사회종합복지관(관장 범산스님)은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 가사서비스, 목욕서비스, 반찬서비스 등의 활동에 참여할 봉사자를 모집한다. 후원형태는 현물, 결연후원, 후원금 등이 있다.

(051)893-5034

▲학습지도 봉사자=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스님)은 방과후 교실에서 아동학습지도 및 놀이지도를 보조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32)325-2161

♣ 행사

▲양방무료진료=공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심산스님)은 9일 지역민을 대상으로 양방무료진료를 실시한다. 의료혜택의 기회제공, 의료비 절감,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목적으로 정형외과, 내과, 신경외과, 일반외과를 진료한다.

(051)363-2063

▲하루찻집=해동용궁사(주지 정암스님) 연화합창단(단장 김치자)은 3일 전통찻집 다전에서 장학기금마련을 위한 하루찻집을 연다.

(051)722-7744

▲하루찻집=대구·경산 불교지도자협의회(회장 김형중)는 6일 전통찻집 다울터에서 불교학생회 활성화 및 운영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찻집을 연다.

(053)427-2964

♣ 화촉

박형봉씨(불교신문사 기자)와 김진경씨(불교TV 홍보팀)가 12일 오후1시30분 강남 구룡사에서 화촉을 밝힌다.

(02)733-1604

공 고

기초(행자)교육 시행지침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에서는 기초(행자)교육의 질적 발전과 교육제도 정착을 위하여 기초(행자)교육 시행지침을 13기부터 엄격히 적용코자 하오니 세방의 스님들께서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고 조속히 조치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행자등록신고 : 1) 입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사를 경유하여 교육원에 반드시 등록을 필해야함 (직할은 교육원에 직접 등록하시기 바람)
   2) 행자가 거주사를 옮길 경우 등록신고를 다시 하여야 함
   3) 행자를 위탁받은 경우 반드시 위탁 관계를 등록신고서 '참고란'에 명시해야 함
2. 수행내신서 : 행자 거주사찰 주지스님께서 반드시 매월 1회씩 교육원에 제출해야 함
3. 퇴 방 신 고 : 행자퇴방시 15일 이내 본사 경유하여 교육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4. 호 적 정 리 : 1) 기혼자는 호적상 이혼일자가 기초(행자)교육원 입방일 기준 6개월이상 경과해야 함
   2)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포기 및 자녀 호주 독립이 호적상에 명시되어야 함
5. 사미(니)율의 초발심자경문, 천수경, 기본불교의례(교육원 행자교육 교재)등을 숙지하여야 함
6. 은사가 미등록 사찰 소유 및 분할신고 미필 경우와 종단 미등록 사찰에 입산한 행자는 기초(행자) 교육원에 입방이 불가함
7. 문신, 자해, 간질, 정신이상, 신원이상자등 승려로서 부적합한 자는 기초(행자) 교육원에 입방이 불과함
8. 제 13기 기초(행자)교육원 입방은 불기 2541년 3월 27일 이전 입산행자로 4월 4일까지 교육원에 행자등록신고를 필한자에 한함

불기 2541년 3월 20일

대 한 불 교 조 계 종 교 육 원

약수암 괘불점안 법회

- 초대의 말씀 -

삼보에 귀의하옵고..

둑위로 차오르는 봄볕처럼 모든 일들이 부처님의 자은으로 원만하게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본사찰에서는 오는 4월 13일, 괘불점안 법회를 갖습니다.

한국불교 불화의 맥을 이어온 중요무형 문화재 제 48호인 이 만봉 큰스님이 지성으로 조성한 괘불을 모시는 이번 괘불점안 법회는 어산 총장 범패와 여러 큰 스님들을 증명 법주로 모시고 봉행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걸음하시어 소중한 불연 맺는 법요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천도재도 봉행됩니다.

증명 : 이만봉 큰스님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법주 : 우영명 큰스님 (대한불교 법상종 종정)
법주 : 김무찰 큰스님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김혜경 큰스님 (태고종 前 봉원사 주지,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이수자)
회주 : 중 광 큰스님
법요 : 박인공 스님 (태고종 前 총무원 부원장)
최원허 스님 (동방불교대학 교수)
임홍욱 스님 (동방불교대학 범패과 졸)
선 광 스님 (동방불교대학 범패과 졸)

일시 : 불기 2541년(1997년) 4월 13일(음 3.7) 10시
장소 : 금강산 약수암(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 6리 234-1)
전화 : 0392)682-1933/1707

대 한 불 교 일 붕 선 교 종
금강산 약수암 주지 보해(이호성) 합장

탐 불이산우법회 방

"30년 불심 매주 山上법회"

창립된지 1년…열기는 30년
오물줍기등 환경실천 필수

갈 때마다 새로운 야외법당, 갈 때마다 즐거운 열린법회. 매주 이른바 '열린법회'를 통해 산에서 배우는 청정심으로 국토청정을 실현하고 있는 불이산우법회(회장 조인행·66)는 1년이라는 짧은 연륜과 비교적 작은 규모의 신행단체임에도 불구, 회원 저마다 깊은 불심을 자랑하는 독특한 모임이다.

일당백의 신심을 지닌 회원들은 평균 30여년 이상의 신행경력을 지닌 중년층이 대부분이라 드러나는 신행보다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런 산행을 통해 자연과 한마음이 되는 청정법회를 소중하게 가꾸고 있다.

그래서인지 생활과 수행을 겸하며 용맹정진하는 회원들이 적지 않다. 최고 연장자인 장명만 거사(76)는 벌명이 수보리 장로다. 새벽 3시면 일어나 예불과 참선을 거르지 않는 신실함으로 회원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다. 또 권성준 거사(67) 부부는 인천 용화사에서 100일간 동·하안거를 치루는 괴력을 보이는등 회원 저마다 치열한 정진을 하고 있다.

"생사와 열반, 자연과 우리, 너와 나 등등 세간의 차별적인 모든 형상이 참지혜의 안목으로 볼 때 둘이 아니다"는 〈유마경〉의 불이법문(不二法門)에서 모임의 이름을 정한 것도 이 법회의 성격을 가늠케 하는 부분이다.

지난해 3월 3일 관악산 연주암 아래 양지바른 산모퉁이에서 창립법회를 가진 이 모임은 지난달 2일 보현봉 일산사 아래에서 시산제를 겸한 창립 2주년법회를 가졌다. 1년전의 다짐처럼 산행과 신행을 조화롭게 잘충하면서 내실있는 법회를 꾸려왔다는 자체평가도 내려졌다.

그동안 법회장소는 서울 근교의 명산에서 좋은 장소를 골라 정했다. 30여명의 정회원외에 매주마다 새로 참여하는 회원들의 연령과 산행경험을 가늠해 적당한 산세와 위치를 정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법회를 거르는 일도 없으며 같은 장소를 여러번 가는 경우도 없다. 산을 오르고 내릴 때는 오물을 줍기 위해 항상 비닐 봉투와 집게를 휴대한다. 산상법회시에는 채세희 상임법사(불이정진전법원장)의 설법과 교리공부가 이어진다. 지나가는 등산객도 발걸음을 멈춘다. 불자들은 함께 법회에 동참한다.

조인행회장은 "1년동안 내실있는 신행을 쌓아온 만큼 올해부터는 불우이웃 돕기 등 대외적인 활동을 강화하고 서울 근교의 버려진 불교유물과 폐사지를 발굴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불이산우법회는 매주 일요일 서울 근교의 명산에서 열린법회를 갖는다. 지난 3월2일 창립2주년 법회 장면.

법주사 생태기행

"풀 한포기도 우리에게 생명교훈"

'맑고 향기…' 주최, 본사 후원

"엄마! 저 나무에는 왜 쇠파이프가 설치돼 있어요?"

"병이들어 아픈 나무를 치료하기 위해서란다."

사찰주변의 생태계 조사와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기 위해 참가한 장복순씨가 딸 초록(9세)양과 정이품송을 보고 주고받은 대화이다.

맑고향기룹게모임(회주 법정스님)이 주최하고 본사가 후원한 제2회 법주사주변 '사찰환경 생태기행'에는 50여명이 참가했다. 간간이 눈발이 날린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가족동반 참가자가 많았다. 지난 3월23일 오전 11시경 속리산 기슭 법주사에 도착한 생태기행팀은 먼저 부처님께 참배했다. 그리고, 정송스님(법주사 포교국장)으로부터 신라 진흥왕13년 창건한 법주사 역사를 들었다.

이어 문태영교수(고신대 생물학과)의 법주사주위 사찰환경 및 자연환경실태에 관한 강연은 근처의 식수림들을 교재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해맑은 웃음속에 실시된 속리산 현장체험에서는 해발 약 600m를 경계로 윗쪽에 분포돼있는 서어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 등의 낙엽활엽수림과 아래쪽 능선부의 건조지에 분포돼 있는 소나무의 생태를 조사했다.

특히 소나무는 빼죽빼죽 튀어나온 자연림보다 가지런히 심어져 있는 식재림이 많아 잘 정돈돼 있었다. 문교수는 "법주사 주변의 자연보존은 타사찰에 비해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하나 최근 관광객의 증가로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아직 이른 봄이라 동물 및 조류의 생태기행은 후일을 기약했지만 식물생태 조사만으로도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는 눈빛이 역력했다. 어머니와 함께온 박성원군(대치중 1년)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자연에 나와 직접 관찰하며 설명을 들으니 재미있다"며 즐거워 했다.

속리산 법주사=김주일 기자



◇법주사 주변에서 열린 맑고향기롭게모임의 제2회 '사찰환경 생태기행'의 강의 장면.

사법연수원 28기 다르마법우회



"마음공부로 법 잣대 정립해요"

사법연수원 제28기 다르마법우회(회장 황석광) 창립법회가 지난 3월21일 조계사에서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스님, 지도법사 법륜스님(정토법당), 김희옥(지도교수)·박홍우 사법연수원교수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예비법조인들의 모임인 다르마법우회는 지난해 4월 사법연수원 제27기생이 주축이 되어 창립된 신행단체. 이번에 창립된 제28기 다르마법우회는 현재 서초동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중인 제38회 사법시험 합격자 5백여명중 80여명의 불자들이 모여 만든 두번째 법우회다. 매년마다 연수생이 새로 배출되다 보니 기수별로 새로운 임원진과 회원이 구성되어 매년마다 창립법회를 갖게 되는 셈이다.

초대회장 이승형씨에 이어 제2대 회장이 된 황석광씨는 이날 법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10여년전에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던 불교모임을 지난해 공식화하고 법회의 내실을 다진 만큼 올해부터는 경전 공부를 심화하고 수행과 봉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각오를 다졌다.

이에앞서 월주스님은 법문에서 "법조인도 사회혼란에 책임이 있다"면서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心淸淨 國土淸淨)는 〈화엄경〉 구절을 인용, 예비법조인들에게 마음다스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우회원들은 매달 첫째 셋째 월요일에 정기법회를, 매주 화요일에 경전공부를 가지면서 부처님의 법과 법학상의 법을 조화시키는 공부를 지속해 갈 예정이다.

"선정문화로 민족통일의식 고양"

3회 하나로포럼 지상중계

"귀순불자에 관심을"



◇최용기 교수

"선정문화의 지혜와 자비의 힘을 모아 민족통일을 이룩하자."

하나로포럽선정회(상임공동대표 고준환)와 평불협(회장 법타)은 공동으로 지난 3월 25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족통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선정(禪定)문화와 민족통일'을 주제로 제3회 포럼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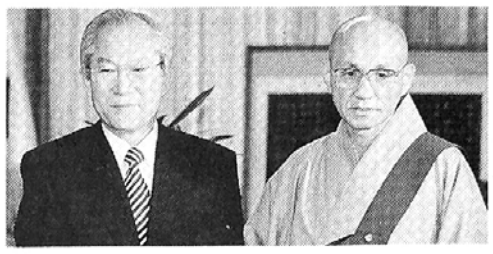
민족통일을 위한 선정문화의 역사적 사상적 실천방안을 모색한 이번 포럼은 '민족동질성 회복'을 화두로 창원대 최용기교수(사회과학연구소장)의 주제발표와 정·관·학계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최용기교수는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하나의 민족의식에 바탕한 국민적 합의의 도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민족통일의식은 외래문화의 추종이 아닌 한민족의 문화인 선정문화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또 "통일을 대비한 정치·경제의 안정과 환경보존,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주체적인 수행과 사회적 실천을 내용으로 하는 선정문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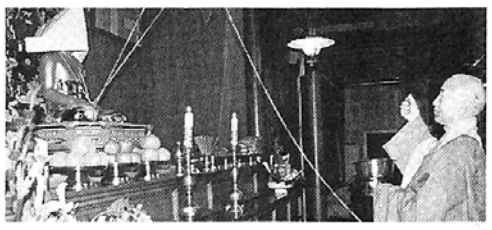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박순우 남순지장회 총무는 "불교를 전통문화로 인식하며 친근하게 생각하고 있던 북한 귀순자들이 대부분 남한에서 기독교로 전향하고 있다"면서 "불교계가 통일이후의 북한포교를 대비해서라도 귀순불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평불협 회장 법타스님(은해사 주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에는 리영희 한양대 대우교수, 김학준 인천대 총장, 김석우 통일원 차관, 정천구 영산국제신업대 총장, 연기영 동국대 교수, 박순우씨 등 통일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월주스님-이회창 신한국당 대표 환담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는 지난 3월 27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 환담했다. 월주스님은 "조화와 화합으로 큰 정치를 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통합과 미래비젼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국이 혼란스러울 때 불교는 국가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한보사태 등으로 어지러운 현시국을 타개하는데 불교계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자리에는 혜창(총무부장), 성광(기획실장), 원우스님(재무부장)을 비롯 함종한, 하순봉, 김중위의원 등이 배석했다.



조계종 불교회관 불상 점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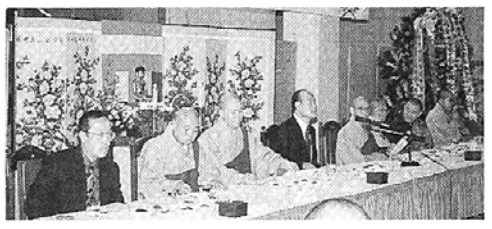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정)는 지난 3월 24일 총무원청사 1층 불교회관에서 석가모니부처님 점안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설정스님은 "종회의원 스님들의 뜻을 모아 봉안하게 됐다"며 "불교회관이 한국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근원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점안식에는 중앙종회부의장 법등, 총무부장 혜창, 문화부장 성관, 재무부장 원우스님등을 비롯 자성, 원명, 지홍, 정념 등 종회의원스님들이 참석했다.



목정배교수 화갑기념 논총 봉정식

목정배 교수 화갑기념논총 봉정식이 지난 3월 24일 앰배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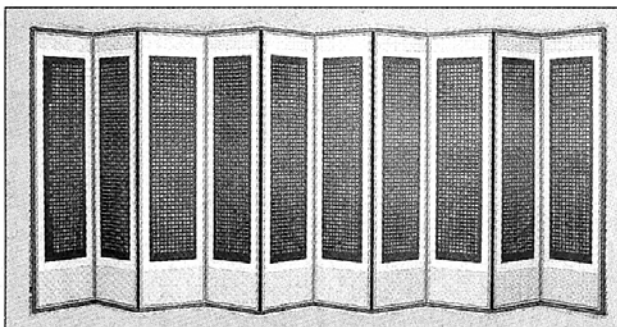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스님, 송석구 동국대총장, 이재창 금강불교대학장, 김정배 고려대교수 등 5백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이날 논문봉정식에 이어 동국국악관현악단의 연주와 김덕수 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공연이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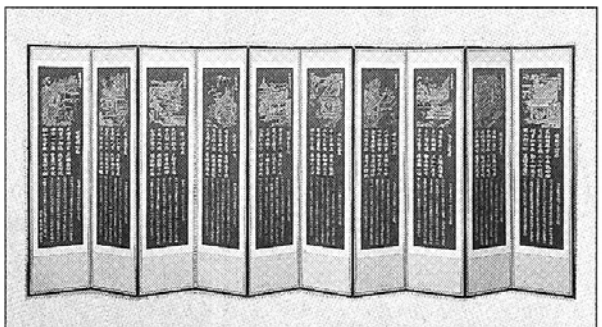
서울경승단 '나라위한…' 법회

서울지방경찰청 경승단(대표 무공)은 지난 3월 27일 구내식당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기원 및 청장취임 기념법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에는 경승단총재 월주(조계종 총무원장),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 서울지방경찰청 대표 무공·경승실장 동광, 북부경찰서 경승 동훈, 노원경찰서 경승 혜자스님, 이필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도선사합창단, 불자직원 등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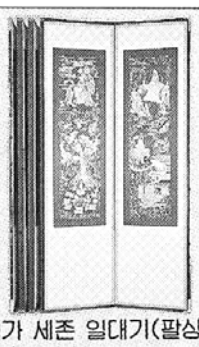
부처님 오신날 봉축기념 특가 보급



◈금강경 10폭병풍 (고급공단 金書)
• 후면 : 석가세존일대기(팔상도)
• 재질 : 스기목/양면비단/특후지
봉축특가 ₩49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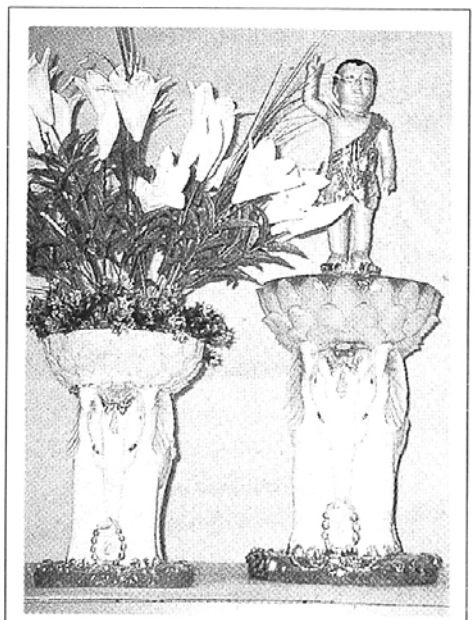


◈부모은중경 10폭병풍 (고급공단 금 서·화)
• 후면 : 반야심경(추사 영인본)
• 재질 : 스기목/양면비단/특후지
봉축특가 ₩48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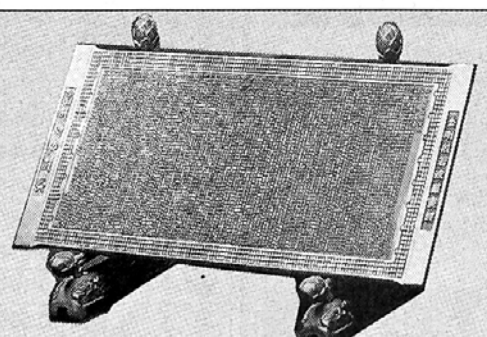


8폭병풍

◈석가 세존 일대기(팔상성도)
• 후면 : 금강경(고급공단 금 서·화)
• 재질 : 스기목/양면비단/특후지
봉축특가 ₩390,000원



• 코끼리 꽃꽂이반 350×230(m/m) 특가 ₩120,000
• 단생불(코끼리 반침포함) 1자 3치 390㎜ 특가 ₩330,000



◈천불 금강경
• 경판규격 : 505×255×8(㎜)
• 재 질 : 주석(99.9%)24K순금 표면처리
※경관태두리에 천불을 모셨습니다.
봉축특가 ₩480,000원

국제유네스코 세계유물지정 팔만대장경
국보 제32호 金銅般若心經



• 규격 : 268×209(㎜) • 재질 : 순신주/순금세금 특가 : ₩60,000원

• 금강호신불시계



금강호신불시계특징
• 1PG순금도금
• 고급금강밴드
• 3기압 방수
• 문자판 양각조각
특가(남·여각) : ₩50,000원

기획제작전문불사의 집
三田佛事
서울(02)732-6095~6

법회안내

한림사(062)375-7600~2


◇천운스님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법회
매주 금
오후7시30분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4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관음사포교당(0391)43-2985


◇부동스님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화법회
매주 화·목
저녁7시
대학생법회 매주 수 저녁7시
고등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9시
거사림법회 매월셋째주 토 오후5시
여교사불자회법회 매월1일 오후5시

분황사(0561)42-9922


◇중수스님

인등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약사화법회
매월8일(음)
오전10시
지현화법회 매주 금 오전10시
학생회 법회 매주 토 오후3시

관오사(053)784-3669


◇지도스님

다라니기도
매월1일
오후8시
신중기도 매
월1~3일(음)
오전9시30분
자비도량참법기도 매월15일(음) 오
후7시30분
생활예법지도 및 참회법회 매월2일
(음) 오후7시30분

내원정사(051)424-0691

약사재일법회 매월24일 오전10시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청년화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신중기도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천불사(0523)82-1463

화엄기도 매월말일~다음달 2일(음)
오후11시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 법회 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 사진과 함께 본사로 연락 바랍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수첩


◇경전을 머리에 이고 〈법성게〉를 외며 탑을 도는 정대불사 모습.

수계산림등 '3월불사' 풍성

7일부터 시작되는 음력 3월을 기해 전국 주요사찰을 중심으로 다양한 특별 대형법회가 잇달아 열린다.

'3월불사'라고 불리우는 이들 법회는 4월 초파일을 눈앞에 두고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는 예비 행사에 동참할 수 있는 성지순례를 실시한다. 선착순 300명에 한해 참가할 수 있으며 동참금은 6만원. 참가자는 15일 오전 6시30분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집결하여 출발. (02)705-5302~7

◇전국 '3월불사'

사 찰	법 회 명	일 정
통도사	금강계단보살계산림	11~13일
쌍계사	정대불사, 육조증제·봉찬회	12~13일
수덕사	보살계수계법회	13일
해인사	팔만대장경 정대불사	15~16일
범어사	보살계수계산림	18~21일

정대불사 동참자 모집
불교방송, 선착순 300명

불교방송은 서울 불자들이 이번 해인사 팔만대장경 정대불사 간으로서의 의미도 담고 있다.

13일 경주유적 답사
초등학교 3년이상 대상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은 오는 13일 어린이들에게 우리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위해 경주지역 신라문화유적지를 직접 답사하여 현장을 체험케하는 어린이 유적답사를 마련했다.

서출지(書出池)를 출발해 삼릉계(三陵溪)로 내려오는 경주남산 일주코스로 짜여진 이번 답사는 3학년이상의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접수는 1일부터 7일까지 50명 선착순. 회비는 무료. (0561)746-1950, (0561)771-1950

'능엄경' 강의 개설
광명선원 14일~10월까지

부처님의 기본경전중 불교수행의 정수라 할 수 있는 〈능엄경〉 강의를 개설하는 배움터가 있다.

봉선사 포교당인 방배동 광명선원(원장 초격)이 그곳이다. 14일부터 10월20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6개월과정으로 송찬우교수(중앙승가대)의 강의로 마련한다. (02) 584-1108

선덕사 '환경마당'
생명사상등 4회 강좌

환경문제는 인간생명을 위협할 만큼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단순히 대기, 수질, 쓰레기 등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문제이며, 생활양식의 문제이다.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인간의 자비행을 설해왔다.

광주 선덕사는 '환경배움마당'을 마련 환경문제를 불교적으로 풀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을 갖는다. '생명사상과 환경문제' '환경위기의 실상과 우리의 미래' '숲과 새들과 인간'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자세' 등을 공부하는 이번 강좌는 환경문제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의는 오는 16, 17, 23, 24일 네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062)263-4660

이웃돕기 하루찻집
비암사 10일 조치원역서

"식사 후 가볍게 마시는 차 한 잔, 이왕이면 어린 가장들을 위해 마시는게 어떤가요?"

충남 연기군 비암사(주지 진우)는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들을 돕기위한 하루찻집을 연다.

'자비와 사랑의 모임'은 오는 10일 조치원역 앞 아비뇽 레스토랑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열린다. (0415)63-0230

책속 문화·역사향기 만나세요

책방 여시아문 4월1일~30일 기획전

어린이코너 등 7백여종 전시… 사은쿠폰도

개나리 진달래가 만개한 이 봄. 문화와 역사의 향기를 담은 명서들을 만날 수 있는 '책방 여시아문 도서기획 판매전'이 열린다. 그동안 책방 여시아문을 아끼고 사랑해 준 고객 서비스차원에서 기획된 이번 행사는 4월1일~30일까지 개최된다.

우리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읽는 역사' 코너를 마련해 관련도서들을 전시하고,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위한 '문화유산의 해 특선' 코너도 마련했다. 또 '역사대하 소설' 코너, '어린이책' 코너도 마련해 자상한 도서안내자의 역할을 하게된다.

이번 행사에는 총 7백여종의 책이 전시판매될 계획이며 이 기간중 도서를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책방 여시아문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은쿠폰도 발행한다. (02)737-0695

이렇게 들었다

한보에서 삼미로 이어진 초유의 연쇄 부도사태, 김영삼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 비리의혹사건. 최근 우리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이같은 일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한보·삼미의 부도사태가 분에 넘치는 투자로 인한 빚이 원인이었다면 현철씨 사건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월권행위였다는 점에서 분수를 지키지 못한 지나친 탐욕이 어떤 파국을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준다. '분수를 지키고 족함을 아는(安分知足) 삶'이 어떠해야 할지 부처님·조사들의 말씀을 듣는다. 〈편집자 주〉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른다면, 오직 더많은 것을 구해서 죄악만 키우는 결과가 된다. 보살은 그렇지 않아서 늘 만족하고자 염(念)하고 가난에도 안주(安住)하여 도를 지켜, 오직 지혜 닦는 일에만 정진해야 할 것을 안다. 〈팔대인각경〉

의복과 음식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선정에 들어 반성하여서, 족한 줄을 알아 최소한의 것을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구경〉

이 온갖 중생이 만족할 줄 몰라서 항상 남의 재물을 구해 그릇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내가 마땅히 저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한 신구의업(身口意業)의 바른 생활의 도리 속에서 살게 하리라. 〈화엄경〉

만족은 최상의 부귀

건강은 최대의 이익, 만족은 최대의 부(富)다. 〈보요경〉

소욕(少欲)은 최상의 쾌락, 만족은 최상의 부귀다. 〈천청문경〉

온갖 행위중 공덕이 있는 행위는 오직 세속적 욕망을 버리는 일이 뿌리가 되어 생겨난다. 〈파리문증일아함경〉

과욕(寡慾)해 적은 것으로 만족해서 많은 것을 탐구치 않고 많은 것을 축적(蓄積)하지 않는다면 축적함이 없으므로 온갖 재앙과 근심에서 멀어진다. 〈보운경〉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물을 많이 쌓아 놓고도 만족할 줄 몰라서, 무명의 전도심(顚倒心)으로 늘 남의 것을 침범할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현세에서는 적이 많고 죽어서는 악도(惡道)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만족할 줄을 알아야 한다. 〈니건자경〉

괴로운 일이다. 중생이 탐욕에서 허덕이는 저 꼴은! 금은보화가 아무리 많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그들이다. 이런속에 즐거움은 적은 반면 괴로움이 많을 것은 당연하매, 지혜있는 자라면 능히 깨닫는 바 있어야 할 것이다. 〈정생왕인연경〉

저 탐욕스러운 사람은 자꾸 열뇌(熱惱; 큰 괴로움)만 더하게 해 가서, 마치 나비가 등불을 보고 날아들어 그 몸 타는 줄을 모르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중생의 욕망에 집착함이 이러하니라. 〈제법집요경〉

남의 재물에 탐심을 일으키지 않는 자는 후생(後生)에 사람이 되어 부와 즐거움을 얻는다. 〈태자쇄호경〉

나의 수행일기


전재근

나는 수원-서울간의 1호선 전철을 자주 이용한다. 자리를 잡게되면 긴장이 풀리면서 나른해진다. 한시간 정도의 무료함은 눈을 지그시 감고 염주를 굴리기에 알맞으며 전철이 내는 독특한 소리의 세계에 묻힌다. 달리고 멎고 타고 내리기가 반복되는 리듬 속에서 승객들은 잘 적응하여 말없이 행동한다.

이러한 리듬을 깨면서 등장하는 특별한 소리가 있다. 싫어도 듣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소리는 '믿으면 천당에,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등 많은 사람의 마음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든다.

나와 같은 불교신자에게는 그 소리를 외면하려고 인욕 행을 생각하거나 "이 불안한 소리의 정체는 본래 공하다"라는 수행자적 마음을 갖게도 한다. 그런데 이 소리 중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계시다"고 한다. 그 뿐인가 "이 세상 어디에도 아니 계신 곳 없다"고 한다. 창조설을 신봉하는 교리에는 맞지 않는 소리이다. 나의 주인이 내 마음일진데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면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이며, 내가 나를 스스로 만들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뒤이어 우상숭배를 들먹이며 타종교를 흡집 낸다. 제 물건 팔려고 남의 제품 깎아 내리는 전형적인 상행위이다. 무엇이 우상인지 알고 있는지?



"형상타파 相아닌 相을 보라"

'육신의 열차'에 언제쯤 '탐진치 행상' 안탈까

내가 우상의 참 뜻을 알게 된 것은 겉보기에 우상처럼 보이는 불교를 알게 된 후이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나는 대학에 입학하여 불교신자인 한 친구를 알게되고 〈반야심경〉을 읽게되는 귀중한 인연을 맞게되었다. 그리고 10여년 전 화성 신흥사의 오성일스님을 만나면서 신행생활이 나의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만일 형상이나 소리를 좇아 나를 구한다면 부처를 볼 수 없으리라" "형상을 타파하여 상(相)을 상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을때 비로소 부처를 볼 것이다"라는 금강경의 말씀은 불교야말로 어떤 상에도 매이지 않는 종교란 것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는 말을 스님들이 거침없이 하고 있는 것을 접할때, 마음 밖의 경계가 비록 신앙의 대상인 부처님일망정 마음 공부엔 방해가 된다는 가르침은 보다 극명한 우상의 실체와 진정한 해탈이 무엇인지 알게 하였다.

내 마음이 운전하는 이 육신의 열차, 탐·진·치 3부류의 행상이 번갈아 타고 내리며 온갖 경계를 만난다. 학문, 명예, 재산, 건강 등 각종 상품에 혹하여 참된 마음 놓치기 다반사이다. 이름 석자를 달고 달리는 이 몸, 언제 운행을 멈출지 모른다. 내가 이 몸에서 내릴 때 과연 미련없이 이 몸을 버리고 성불을 향한 길로 찾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내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신행의 문제이다.

〈서울대 교수·식품공학〉

불기 2541('97)년도
재단법인 탄허불교문화재단 부설 삼일선원·삼일불교교육원

불교교양특강 수강생모집

1. 강좌안내 매주(수)19:00~21:00 (금)19:00-21:00 (토)15:30~17:30

구분 / 강의	회수	일시	1학기 주제	지도법사
참 선 (매주(수) (19:00~21:00) ·이론 1시간 ·실습 1시간(2시간 강의))	1	4/ 9	선의정의, 선의 의의	박종호스님 선학박사 (동국대)
	2	4/17	선의 기원, 선의 영역	
	3	4/23	선(종)의 종지	
	4	4/30	선의 목적(1)	
	5	5/ 7	선의 목적(2), 선의 종류	
	6	5/21	선의특색	
	7	5/28	불타의 선, 원시의 선	
	8	6/ 4	부파불교의 선, 대승 선	
	9	6/11	달마 이전과 보리달마의 선사상	
	10	6/18	혜능의 행적과 사상	
	11	6/25	신화의 육조선양운동과 그 영향	
	12	7/ 2	마조도인의 조사선과 중국선종의 형성	
	13	7/ 9	선종 오가의 사상(위앙·임제종)	
	14	7/16	선종 오가의 사상(조동·운문·법안종)	
※매주 선 이론과 실습을 경행 ※복장을 편안하게 입을것				
문화특강	문화 : 매월 제2주(토) 15:30~17:30			
	1	4/12	불교와 현대과학	김용정박사 전동국대부총장 현동국대명예교수)
	2	5/10	불교와 유교	
	3	6/14	불교와 도교	
	4	7/12	불교와 서양철학	
	의식 : 매월 제2·4주(금) 19:00~21:00			
	1	4/11	불교의식 총론 및 불자 예절	이계진박사 전 대구 군법사 현 행심여고 교법사
	2	4/25	조석 예불 및 발원·축원	
	3	5/ 9	정기 법회의 참여와 집행	
	4	5/23	헌공 의례의 이해와 봉사	
	5	6/13	천도 의례의 이해와 봉사	
	6	6/27	발우 공양의 의미와 실제	
	7	7/11	경전 독송의 방법과 실제	

2. 수강신청 1997. 3.28 (금) ~4월29일(수)

3. 수 강 료 ■ 문화특강 : 정규반(1학기4개월) : 80,000원 (문화·의식)통신반(1학기 4개월) : 100,000원 ■ 참 선 :정규반(1학기 4개월) : 80,000원 (이론과 실습)
※학생 20% 할인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에 문의 요망 : 02)237-4438~9

財團法人 呑虛佛敎文化財團
附設 三一禪院·三一佛敎敎育院
전철3호선 약수역 6번출구 직진 50m기업은행 5층 02)237-4438/9

제6회 행원문화상 공고

승가교육 및 불교문화 발전을 위하여 불교 학술 및 장학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본 재단에서 제6회 행원문화상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시상부문

문학상구분	대 상	인원	포상내용
역 경 상	불전을 국역하거나 역경사업에 이바지한분	1명	상금 300만원
문 학 상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시, 소설, 국문학(희곡, 방송극, 시나리오 등)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신 분	1명	상금 300만원
예 술 상	불교사상을 토대로 예술(음악, 미술, 연극, 무용)분야에서 업적을 이루신 분(서화부분 제외)	전통1명	상금 300만원
		현대1명	상금 300만원

2. 신 청
신청은 본인 또는 추천인의 추천에 의해 접수함
추천인은 조계종 총무원 부장급이상, 교구 본사 주지,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또는 동등하다 인정되는 교계관계 단체장

3. 제출서류
1)행원상 신청서(본 재단의 소정양식)1통
2)해당분야 심사에 도움되는 실적물(최근 2년이내)2통
3) 명함판 사진 3매

4. 신청기한 및 발표
1) 신청기한 : 1997. 6 30(우편접수시 당일 도착 한함.)
2) 발 표 : 8월중 개별통지

5. 심사방법
본 재단에서 위촉한 7인의 심사위원이 심사

6. 시상일시 및 장소
1) 시상일시 : 1997.9 .24(수)
2) 장 소 : 중앙승가대학 정진관

7. 기 타
1)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신청서에는 전화번호(연락처) 명기할것.
3)기타사항은 재단사무국으로 문의바람

1997년 3월 일

財團法人 行願文化財團
理事長 朱永云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 5가 156번지
TEL:926-4377 FAX 921:9721

우리말 팔리어사전

감수 : 원의범
편저 : 전재성
전 1350페이지 문법집포함 완간
판매처 : 경서원, 여시아문
(기타 취급점 연락바람)

한국불교대학 출판부
충북 진천군 초평면 신통리 484
전화 : (0434)32-0108~9 FAX(0434)534-3950

재가불자전문 수행도량

◈ 이용안내 : 각 신행단체등의 수련법회, 개인수행, 신도수련 법회 일반수행인등,
◈ 편의시설 : 도서관, 세미나실, 강의실, 명상실겸 대중숙소
◈ 특 징 : 산세수려하고 소박한 고로쇠나무의 자생지이며 최소경비의 生居鎭川의 古地

두타산 심신수련마을
충북 진천군 초평면 신통리 484
전화 : (0434)32-0108~9 FAX(0434)534-3950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단위조직 구독 신청

단위조직명	연락처
부 산 지 사	051-634-5114
광 주 지 사	062-375-9986
대 구 지 사	053-768-8008
목 포 지 국	0631-281-2534
속 초 지 사	0392-636-3923
북 인 천 지 국	032-541-8770
제 주 지 사	064-55-9800
강 릉 지 사	0391-651-9317
인 천 지 사	032-461-3461
춘 천 지 사	0361-241-0633
고 양 지 국	0344-912-2323
영 주 지 국	0572-34-3429
대 전 지 사	042-625-1080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 주 지 국	0416-55-0020
고 성 지 국	0556-72-0078
안 산 지 사	0345-408-0961
진 주 지 사	0591-747-0106

불자 세상보기

"사람살리는 일 첫째 공덕"

아사위기 북한동포 돕자

극심한 식량난 흙먹기까지
종교계 등 구호 손길 활발

지난해 12월초 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북한 식량은 97년 2월이면 바닥나 이후 8백만~1천만명의 북한주민이 아사상태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잠수함사건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을 때라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 그러면 지금쯤 북한은 어떤 상태일까.

3월초 북한을 방문했던 한 재일교포는 "한 지방도시에는 3천여명의 걸식어린이들이 수용돼 있다는 말을 당간부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또 배고픔을 참지 못한 어린이들은 거리에서 풀뿌리를 캐어 먹거나 심지어는 흙을 먹는 아이들도 보았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종교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의 대북지원 움직임은 활발하다. 불교 천주교 등 6개 종단과 시민단체 학계를 망라하고 있는 우리민족돕기운동은 강원도 평창군의 남아도는 감자 2천톤을 전량수매해 북한에 보내기로 했으며, 옥수수 1만톤(17억원 상당)을 4월초 북한에 보낼 계획을 추진중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억6천만원을 북한에 전달했다. 조계종은 '한민족공동체 성금모금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북 직접 지원을 위해 통일원에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12월 발족한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는 지난 1월 1억5천만원을 적십자사에 전달한데 이어 5월말까지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13개 개신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북한동포후원연합회(식량은행)는 최근 5억원의 자금을 확보, 이달 초 대북지원을 성사시킨다는 목표로 전달경로 등 실무적 문제를 논의중이다. 지난해 8월 4억3천만원을 적십자사에 전달한 바 있는 천주교는 국제구호기관인 카리타스를 통해 대북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최근 1천2백2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3월 28일 창립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도 식량과 출산의료품을 지원키로 하는 등 북한동포돕기가 전국민적 운동으로 퍼져가고 있다.

군량미 전용설 등의 논리가 민간단체의 지원을 더디게 하지만 이들 단체의 대북지원 이유는 간단하다. 남북간의 오랜 갈등관계를 화해와 평화로 이끌 수 있는 고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성운 기자

돌교의 눈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법륜스님은 북한동포돕기를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나서자고 호소한다. "요즘은 전부 바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있겠습니까? 대충 나서지 마시고, 아예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나서면 좋겠습니다. 감옥갈 일도 아니잖습니까? 이런 각오로 우리가 불같이 일어나면 금방 됩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이르셨다. "여러께 올리는 공덕과 똑같은 네가지 공덕이 있는데, 하나는 굶주려 죽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즉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고, 둘째는 병들어 죽는 사람을 약을 줘서 살리는 길이고, 세번째는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을 돕는 거고, 네번째가 진리의 가르침에 따라 청정히 수행하는 자를 뒷받침하는 것이다."〈열반경〉



◇북한의 한 아주머니가 굶으면서도 먹지 않고 더 많은 수확을 위해 옥수수 씨앗을 파종하고 있다. 이 사진은 96년 5월 평안북도 한 지역에서 WFP(세계 식량계획) 관계자가 촬영한 것이다. 〈사진제공=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지계 금주 파계

여야 정쟁중지 민생주력

●…여야는 지난 3월 25일 한보사건이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심리적 공황상태를 야기, 경제 사회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민심안정을 위해 정쟁중지를 선언했다. 여야는 특히 한보사건과 김현철씨 국정개입 의혹은 검찰수사와 한보조사특위에 맡기고 경제살리기 등 민생문제에 주력키로 해 시국수습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사립대간 시설 공동활용

●…경인지역 11개 사립대학들은 지난해 2학기부터 학교간 학점교류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 학기부터는 각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실험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도서관 및 도서도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참여 대학은 강남대 경기대 경원대 경희대 명지대 아주대 용인대 인천대 인하대 항공대 한신대 등이다.

효박물관 건립 후원 '밀물'

●…삼성전자는 지난 3월 17일 '효박물관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황영조 효마라톤 전국일주 행사 추진위원에 후원금 3억원을 전달했다.

한국마라톤의 영웅 황영조는 지난 23일부터 6일까지 효박물관이 세워질 경기도 포천에 이르기까지 15일 동안 매일 40km씩 마라토레이스를 펼친다.

대우그룹은 25일 육군사관학교에 학술연구 지원과 생도들의 해외연수비 등의 용도로 10억원을 출연했다.

외제누른 국산 티셔츠

●…중소기업청 산하 국립기술품질원이 티셔츠 가죽운동화 낚싯대 등 3개 스포츠용품을 대상으로 국산제품과 수입제품, 상표도입제품의 품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산 제품이 품질도 좋고 값도 싼 것으로 조사됐다. 티셔츠는 국제상사의 '프로메이트' 티셔츠가 종합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표도입제품인 (주)서광의 '라코스테', 수입제품인 '블랙앤화이트' 순이다. 운동화는 화승의 '르까프'가 종합평가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했으며, 수입제품인 '나이키'와 상표도입제품인 '아디다스' 등은 품질과 각격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서민자금 은행직원 잔치

●…은행들이 무주택 서민 등 일반고객에게 대출해야 할 주택자금의 76%를 자사 임직원들에게 저리 융자로 대출, 사실상 은행내부에서 나눠먹기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최근 은행감독원에 시정을 요구했다. △동남은행 1백%(1백16억원) △하나은행 1백%(4백71억원) △대동은행 99%(1백22억원) △동화은행 99%(1백43억원) △조흥은행 98%(1천8억원) △서울은행 98%(9백98억원) 등이었다.

유해 불고기판 대량유통

●…고기를 구울 때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고기에 스며드는 불량불고기판과 냄비를 생산, 시중에 대량유통해온 무허가 식품조리기구 업체 및 판매상 1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조업자들은 지난해 4월부터 황동성분이 함유된 차량 라디에이터 등 공업용 폐철을 고물상에서 구입, 불량 불판 등 조리기구 11만여개(10억7천만원 상당)를 생산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불량 불판의 용출시험을 의뢰한 결과 납성분이 허용기준치인 1ppm을 초과해 2.04~3.85ppm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버스 파업에 시민 '발동동'

●…서울과 인천 대전시 시내버스가 26일 오전 8시부터 노사간의 임금협상 결렬로 전면 또는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서울의 경우 89개 업체 8천7백25대의 버스 가운데 6개 업체 2백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버스가 오후 4시30분까지 운행을 중단했다. 한편 서울시내버스 요금은 빠르면 5월부터 도시형버스만 현행 4백원에서 4백30원으로 7.5% 인상될 전망이다.

교통참사 부른 안전불감증

●…무궁화호 열차와 시내버스가 충돌, 16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은 교통사고가 지난 24일 전북남원 수촌마을앞 철도건널목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버스가 일단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건널목을 건너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버스 운전자를 입건 조사중이다. 그러나 차단기와 안내원도 없이 경보등과 정지신호음만으로 교통통제를 하는 허술한 안전시설도 사고 원인이다.

시론

수렁에 빠진 경제

누구나 입만 열면 경제가 큰일났다는 말뿐이다. 정부 일각의 낙관론자들까지도 더이상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 연구기관마다 비관적인 전망 일색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5%대로 낮아지고 실업률은 2.5%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경상수지 적자도 200억 달러 이상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들이다.

확산되는 부도공포증

현장은 지표보다 더욱 어둡고 비관적이다. 중소기업은 하루 하루가 생사의 갈림길이며 부도 공포증이 대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4월 금융대란설'이 외환위기설과 함께 한낮의 유령처럼 모든 기업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 금융기관 대출 창구가 얼어붙자 실세금리는 치솟고 대외수지적자의 확대로 원화값이 급속히 떨어져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보다 못해 대통령이 직접 경제살리기의 최선봉에 나섰지만 때늦은 감이 없지않다. 경쟁력 회복이니 기술개발이니 하는 것은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고 있을 뿐 많은 기업들이 경영 의욕을 상실한 채 절망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위기감은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 모두의 피부에 깊숙이 와 닿을 정도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



김 수 배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한때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나가던 우리 경제가 왜 이처럼 갑자기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됐을까? 피상적인 원인이야 두말할 것 없이 한보와 삼미의 부도 후유증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권의 대선 게임도 경제 불안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세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도 유독 한국만 불황이라는 것은 문제의 원인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피상적인 요인들이 사라진다해도 우리 경제가 과거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만큼 현 경제 위기의 성격은 복합적이고 그 해결 또한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사람의 일생을 보면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넘어갈 때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된다. 크게 보아 육체적으로는 활력이 저하되고 정신적으로는 사려 깊고 원숙해지기 마련이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인생 관리에 실패하게 된다.

마찬가리로 경제도 일정한 생체리듬을 갖고 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처한 시점이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넘어가는 국민소득 1만 달러의 고비이다. 이 고비는 흔히 마(魔)의 고개라고 불린다. 미국이 1만 달러를 기록한 1954년이나 일본이 1만 달러의 고비를 넘은 1972년이 모두 그러했다. 이 단계의 특징은 사람의 장년기에서 보듯 성장 둔화와 원숙이다.

우리의 경제 위기는 바로 이 두 가지 변화에 대한 적응의 실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경제 위기는 단기간 내에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만성화될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경제 위기 타개 노력도 당연히 과거와는 다른 식이 되어야 한다. 지난 시대의 고지 점령식 고도성장 전략보다는 '원숙한 경제', '분수에 맞는 경제'를 추구해야 한다.

즉 물가와 국제수지의 안정, 정신과 물질의 조화, 부의 축적과 도덕성,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균형을 잡는 정책들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부의 깊이(Profound of Richness)를 가진 나라'여야 한다.

우리가 현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 진정한 의미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경제 주체들이 욕구를 자제할 수 있어야 하겠다.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볼 때 더이상 공급을 늘려 욕구를 채워 줄 수 없는 상황이 된 이상 절제를 미덕으로 아는 국민의식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절제의 미덕 되살리자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무소유 사상과 절대단조(絶對單調, Absolute Simplicity)정신의 확산은 우리의 터무니없는 욕구를 낮추고 무절제한 소비 행태를 바로잡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쌀 한 톨을 버리면 그 쌀이 썩을 때까지 제석천(帝釋天)이 거기에 내려와 엉엉 운다는 전통적인 불가의 절약 사상은 사찰에만 묻어 둘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고질적인 낭비병을 치유하는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이 경제 불황을 벗어나는 데는 우리 불교의 절대단조와 통하는 청교도적 극소주의(極少主義, Minimalism)의 부활이 큰 힘이 되었음을 눈여겨 보아야 할 일이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봄이 오는 소리

大地를 적시는 빗방울 소리
가슴에 와 머문다.
조그만 물잎 끝에도
따뜻한 生命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찬바람 불어오던
겨울은 지나고
살얼음 끝 녹아 내리는
청아한 여울 물소리

버들 가아지도 겨울잠 깨고
잎망울 터트리는 속삭임
상큼한 봄 내음
생기를 머금고
봄벌 따스한 온기가
大地를 포근하게 감싸며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노래하며 바람은 춤을 춘다
내 그리움
또한 그속에 머물고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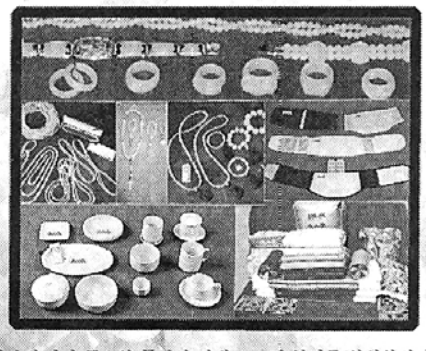
원장 이자임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뇌내 모르핀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짜릿짜릿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내몸-부처님도량, 이 가람을 청정하게 가꿉시다 (SOD, 청혈작용 때문에)
★ 혈액순환을 도와 모든 성인병의 근원을 제거한다. (치내노폐물 제거 때문에)
★ 현대인의 불안, 초조, 신경질, 홧병 또는 노화방지에… (뇌내 모르핀 활성화 때문에)
★ 장타력, 집중력, 골프머리가 잡혀 갑니다. (조금의 차이도 1타를 이깁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서울신문)

포도자기 玉이불 金賞 수상
미국 제10회 국제발명품전시박람회



옥산가 옥이 의학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추후편에 진옥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玉山家 옥만을 꼭찝어서 사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우린판매)

생명공학과 부적
생명공학의 지혜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박지명 엮음/신국판/값 18,000원



"성공을 위한
소리에너지(주문)와
형상에너지(부적)의
신비한 효험!"

인간의 몸에는 수많은 에너지의 선과 흐름이 있으며
그것은 정신의 진화의식 상태로 연결된다.

이 책은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 왔던 삶의 나쁜 에너지를 방지하고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는 소리와 형상 에너지에 접근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획기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내가 만드는
행운의 부적
운담 엮음/신국판/값 12,000원



전국 대형서점 절찬리 판매중!!

깨침의소리
전화:(02)444-3575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①

연재를 시작하며

A.D 6세기 갈대잎을 타고 북위의 수도 낙양에 나타난 서역승의 전설로부터 중국 선의 역사는 시작된다. 소림사의 면벽과 눈 쌓인 뜨락의 붉은 선혈을 거쳐 6조에 이르러 선은 새로운 불교운동으로서의 기반과 동력을 얻었다. 그 이후 선의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떴다가 사라졌다. 우징승(吳經熊)이 선의 황금시대라 불렀던 창조와 혁신의 수세기를 거치며 불교는 동아시아의 사유와 전통의 일부로 체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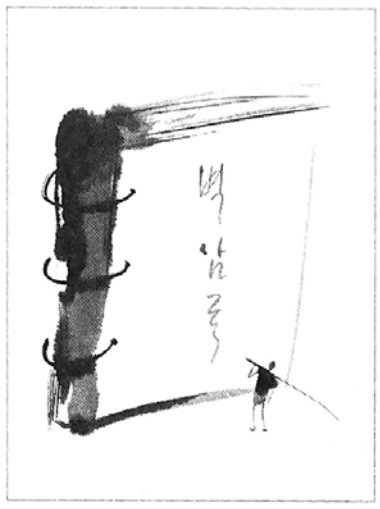
달이 차면 기운다 했던가. 만당에서 오대, 그리고 북송에 들면서 선의 불꽃은 사그라들기 시작한다. 전란과 피폐의 와중에서 지식인들은 사회적 공간과 실무적 요청에 따라 도교와 불교의 개인주의를 넘어 유교를 재발견하는 르네상스를 기획해 나갔던 것이다. 불교의 중심이었던 선은 그 위기 앞에서 수성(守成)의 자세를 취했다. 그동안 난만히 개화했던 자체의 전통을 정리하고 보존하며 경전화해 나갔던 것이다.

북송 초에 〈경덕전등〉록(1004)을 필두로, 이어 〈광등록〉(1036)과 〈속등록〉(1101)이 지어졌다. 〈경덕전등록〉에는 1천7백명의 선장(禪匠)들의 활발발(活鱍鱍·물고기가 기운좋게 뛰노는 모양처럼 선기가 충만한 승려의 모습을 표현한 말)한 거래가 계보를 따라 눈부시게 펼쳐져 있다. 사적과 역사로서는 훌륭한 이 집록은 그러나 실지 참구의 도구로서는 너무 방만하지 않

팽팽한 해 마른 하늘을 깨는 한줄기 우레소리
대지의 온갖 생령들이 화들짝 눈을 뜨네
삼라만상이 일제히 고개를 조아리고
수미산이 벌떡 일어나 어깨춤을 추는구나

자유란 바로 이런 것임을 과시하고 있는 절창이다. 일대사를 마친 혜개는 1228년 동가(東嘉)의 용상(龍翔)에서 대중들을 위해 선가의 에피소드 48칙을 선정, 평(評)을 달고 송(頌)을 붙여, 이듬해 황제인 이종(理宗)의 4번째 즉위일을 기념하여 바쳤다. 이종은 그의 도력을 흠모하여 법연도 베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신통을 구하기도 했다.

그의 작품인 〈무문관〉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구업(口業)을 맡았다. 〈무문관〉은 〈벽암록〉에 비해 촌철살인과 팽팽한 긴장, 활발발한 상상력에 있어 아무래도 좀 처진다. 그렇지만 그같은 산문적 경향이 오히려 일반인이나 재가불자



"온갖 생령들 화들짝 눈 뜨네"

강독에 초점…상상력 총동원 깨침의 세계 접근

들이 선에 접근하는 데는 더욱 친절할 수도 있다. 무문관을 강설(講說)하고 제창(提唱)한 책이 시중에 두엇 나와있다. 그저 불경이 좋아서 뒤적이는 위인에게 언감생심, 강의나 제창은 몫이 아니다. 글자를 풀이하고 문맥을 짚으며 상상력을 함께 나누고 주변을 돌아보는 〈강독(講讀)〉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선을 모르고 문자에 몰입하는 것은 불교 이래의 금기이고, 또 혜개 자신 "언구(言句)에 체(滯)하여 해회(解會)를 찾지말라"고 경고했는데 눈먼 문자법사의 망발이 혹 발설(拔舌)이나 석미(惜眉)의 혐을 짓게 되지 않을까 두렵다. 그 위구심을 금강경이 도닥거려 준다. "이 소식을 안고 전파하는 공덕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수승하다." 깜냥을 다하겠지만 문자조차 잘못 짚고 헛디딘 곳이 적지 않을 것이다. 많은 격려와 질정 바란다.

필자소개



· 서울대 철학과 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
· 現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철학종교연구실 조교수
· 現 현대불교신문 논설위원
· 저서로는 〈한글 세대를 위한 불교〉 〈주희에서 정약용으로〉등 다수.

靑天白日一聲雷, 大地群生眼豁開
萬象森羅齊稽首, 須彌踔跳舞三臺

삼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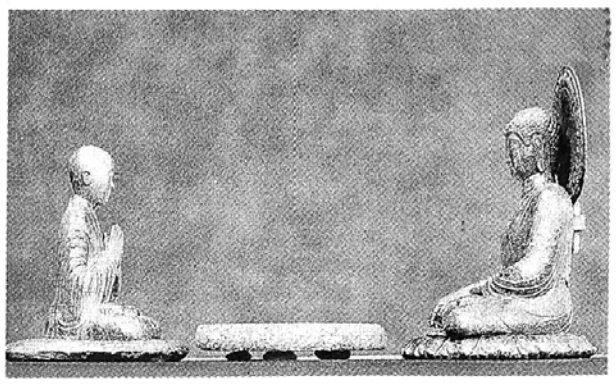
法數로 배우는 불교

〈11〉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들라면 삼법인(三法印)을 빼놓을 수 없다. 법인이란 인도어 다르마 웃다나(Dharma-uddhana)를 번역한 것으로 '가르침의 표지' '진리의 요약'이라고 해석되는데 '세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로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세가지중 첫번째가 지어진 모든 존재가 변한다는 제행무상인(諸行無常印)이다. 이세상의 모든 것은 현상계의 연속된 변환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먼지로부터 산하대지와 일월성신에 이르기까지의 물질계는 성·주·괴·공의 반복된 법칙에 따르고 태어난 생명체는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정신작용은 생·주·이·멸의 진행을 벗어날 수 없다. 혹자는 무상이란 사람이 죽고 꽃이 시든 현상으로만 여긴다. 무상은 바로 유가 무로 변화되는 과정만을 두고 한 말이 아닌 무가 유로 변화되는 과정도 포함한다. 아기가 부모의 인연으로 태어난 것도 무상이고 졌던 꽃의 씨앗이 다시 싹트는 것도 무상이다.



◇진철문 作 '차 한잔의 선율'

제행무상 지어진 모든존재 변한다
제법무아 고정불변 자아실체 없다
열반적정 번뇌사라진 깨달음 경지

두번째는 모든 존재에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고 가르친 제법무아인(諸法無我印)이다. 무아는 인도어 안아트만(Anatman)으로 안(An)이란 '없다'(無) '아니다'(非)라는 뜻이고 아트만(Atman)은 자아·영혼을 의미한다. 현재의 자신을 부정할 수 없는 우리는 '제법무아인'의 가르침을 얼른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진리를 깨치지 못한 환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처님은 '내가 있다는 생각'을 무지라고 보셨다. 모든 존재는 온갖 잡다한 뭇 인연을 빌어서 나타난 것이다. 인간과 삼라만상의 일체 사물도 상호관계와 조건에 의해서만 나타나고 존재한 것이다. 존재는 인연 법칙일 뿐 실체가 없다.

불교의 핵심적인 진리며 부처님이 생로병사를 건너 해탈을 이룰 수 있었던 '무아'의 깨달음에는 반야·열반·해탈·정토·청정·공이라는 뜻을 다 담고 있으며 우리에게 '고정불변의 자아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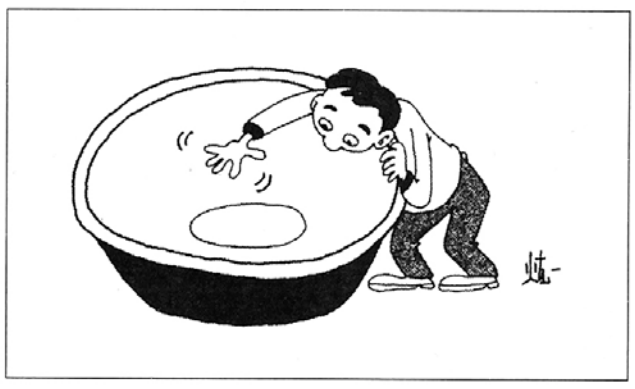
삼법인의 세번째는 열반적정인(涅槃寂靜印)으로 깨달음의 경지는 그윽하고 고요하다는 것이다. 열반은 인도어 니르바나(Nirvana) 닙빠나(Nibbana)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어서 끄다' '타던 불이 꺼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열반적정인은 불교의 이상적 경지로 일체가 무상이고 무아이며 고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수행을 통하여 일체의 고통이 사라진 자유롭고 안온한 세계에 도달된 것을 말한다. '니르바나'의 의미 속에 있는 '불'은 바로 탐욕·성냄·어리석음의 불을 말한다. 즉 중생의 내면에 타오르던 온갖 번뇌의 불들이 완전히 꺼진 깨달음의 경지인 것이다.

"대열반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수행자에게 당나라 고승 마조는 계곡의 물을 가르키며 "빠르다 빨라"하고 말했다. 흐르는 물속에서도 삼법인의 이치를 그대로 가르치신 옛 조사의 혜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 제 열 〈유마선원장〉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⑩

불교와 수학
④
'空'과 '0'
김 용 운



空사상 수학에 투시 '0' 개념 등장

'없지만 있다'는 철학적 사유 제시

기독교의 〈성서〉 이슬람교의 〈코란〉, 유교의 〈논어〉… 등은 그 교리의 창시자의 언행을 중심으로 엮어져 있다. 이들 책을 읽으면 그 종교 사상, 교리 등에 관한 핵심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불교에는 크게는 소승, 대승의 구별과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팔만사천(八萬四千)의 법문(法門)이 있으며 오늘날에도 불교 철학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들을 분리하여 낱낱이 주목하면 때로는 서로 모순이 되는 어구도 있으나 이 많은 경전과 법문은 큰 바다에 흐르는 강물과 같이 불교의 큰 바다에서 융합되고 있다.

이 바다 어디서나 다즉일, 일즉다(多卽一, 一卽多), 연기(緣起), 공(空) 등의 사상이 바다위에 반사되는 햇빛처럼 번득이고 있다. 모두는 고립되어 있지 않으며 서로 깊이 얽혀 있다. 모든 현상은 연기에 의해 일어나기에 본성은 공(空)이며 연기의 결과는 다즉일, 일즉다(多卽一, 一卽多)로 표현되고 있다.

불교와 수학은 목적부터 다르므로 불교 철학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논리적 구조로 보면 다음과 같다.

다즉일, 일즉다(多卽一, 一卽多)와 공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다(多)를 2, 즉(卽)을 "="로서 표현해 2=1이란 곧 다즉일(多卽一)의 방정식이 생긴다. 이식의 양변에서 똑같이 1을 빼면 2-1=1-1, 즉 1=0이다.

1을 존재하는 것의 단위로 하고 다즉일, 일즉다(多卽一, 一卽多)를 인정하면 존재는 곧 공(空)이다.

수학에서도 1+1=2가 아닌 1+1=1의 논리를 받아들일 때가 있다. 두 개의 물씨를 합할 때, 두 개의 강물이 합쳐질 때, 전기의 흐름이 합쳐질 때는 1+1=1이다. 수학에서는 이처럼 물, 전기, 불같은 연속양, 즉 분리할 수 없는 대상은 나눌 수 없다고 한다. 우리 속담의 '칼로 물 베기'의 세계이다.

공(空)은 대승불교의 근본사상이다. 모든 존재와 현상이 연기(緣起)의 결과이므로 실체가 없는 공이 실상이다. 또 역으로 빈 그릇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고, 백지에는 어떤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공(空)한 까닭에 모든 존재와 현상이 성립할 수 있다. 이것을 용수(龍樹)는 중관론(中觀論)에서 '일체법(一切法)은 무자성공(無自性空)', 즉 자성(自性)없이 모든 존재와 현상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공의 사상이 수학에 투시되어 영(零)의 개념이 되었다. 인도에서 맨 처음 영이 발견된 까닭은 이 공의 사상 때문이었음이 수학사의 창설이다.

현대인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1+0=1, 2+0=2……라는 식으로 0을 배운다. 분명히 0은 수세계의 한 멤버이다. 그러나 처음 인간이 수를 발견한 것은 물건의 집합 요소의 개수를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사과 한 개, 두 개의 돌멩이, 세 마리의 양떼가 있다…. 이것을 1, 2, 3…으로 표시했다.

겉보기에는 두 개의 돌멩이와 두 마리의 양떼 사이에는 "돌", "양"만 보일 뿐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하나씩 대응이 성립한다. 이 사실을 인식한 인간은 "2"라는 수를 추상해 냈다. 이와같이 꼭 속해서 인간은 1, 2, 3…을 알아냈다. B·러셀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인류문명은 새로운 단계로 비약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0을 주상(鑄商)하는 데는 더 많은 지적 단계를 밟아야 한다. 2는 두 개의 물건의 집합에 대한 숫자이다. 마찬가지로 0은 아무것도 없는 물건의 집합에 대한 수다. 이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존재한다" 또는 "없는 것이 있다"라는 언뜻 모순에 가까운 논리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셈(수)의 문제가 아니라 공을 실제로 인식하는 철학과 관련된다. 그것은 곧 불교적 '일체법(一切法)은 무자성공(無自性空)'과 통하는 신념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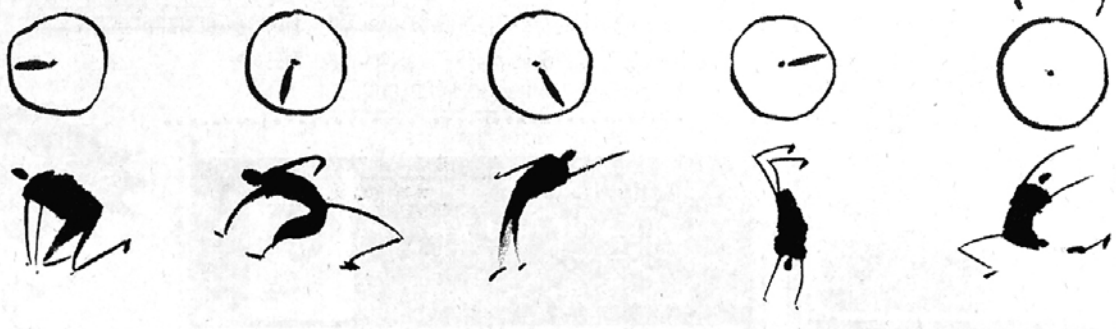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
살 빼야지,
살 빼야지.
"

'살 빼야지.' 하는 조바심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가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500여년간 승가의 생활 속에 스며 있는 양생의 지혜. 군더더기 없는 삶, 군살 없는 몸매 유지의 비결 — 불교 다이어트.

저울의 눈금을 기준으로 하는 다이어트는 실패, 아니면 부작용이 따르기 쉽다. 모든 것을 몸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스님들은 부처님의 계율을 따라 생활할 뿐, 특별한 방법으로 몸을 돌보지 않는다. 승가의 생활 그 자체가 건강의 비결인 까닭이다. 물론 대부분의 스님들은 몇십년 동안 1~2kg 정도의 차이로 몸무게를 유지하며 생활한다.
몸은 항상 변화한다. 그것이 늙음이고, 병듦이고, 죽음이다.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마음 바탕 위에서 불가의 생활을 몸소 실천해 보라.
몸과 마음이 동시에 다이어트될 것이다.



건강한 삶을 위한 책들 ①

불교 다이어트
그까짓 살 좀 있으면 어때



국판 224쪽/ 학림 지음
여시아문 /값 5,000원

제1장 승가의 생활
제2장 음식물로 다이어트를
제3장 쾌변으로 다이어트를
제4장 쾌면으로 다이어트를
제5장 호흡으로 다이어트를
제6장 식욕을 끊어 다이어트를
제7장 몸을 관찰하여 다이어트를
제8장 요가로 다이어트를
제9장 마음을 관찰하여 다이어트를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95(영업부), 737-0691(편집부),737-0697(팩스)

시방세계

신노봉이 부끌레 오염되지 않는 피부!
아름 푸른 대기 속에서도 언제라고 싶은 신선한 모두
이제 세상 · 사회 하심에 인공은 청정제품 스키는
천연 무공해 항균천연피부미용비누를 스케로
(주)씨 · 티 · 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산기술센터 內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7-8881

한보시국도 땀흘려 예시





표충비의 비밀 아십니까

"요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다는 지도자들 중에 사명스님만한 어른 있습니까? 어데."

한보사건의 책임을 물어 단행된 '3·5개각' 하루 뒤인 3월 6일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홍제사(弘濟寺 주지 범마)경내 표충비(表忠碑 · 경남 유형문화재 제15호)가 상오 11시 30분부터 하오 8시 30분까지 9시간동안 32ℓ의 땀을 흘린 것을 두고 밀양사람들은 현시국을 보면 당연히 올 것이 왔다고 입을 모은다.

'하고 많은 전국의 비석들 가운데 왜 유독 사명스님의 표충비만 땀을 흘리는 것일까…' '대체 표충비의 비밀은 무엇인가?' 끊임없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다가온다.

표충비는 임진왜란때 의병장이 되어 나라를 구했던 구국성사 사명대사(1544~1610)를 추모하기 위하여 1738년 대사의 5대 법손인 남붕선사가 경북 경산에서 월석하여 세웠다. 기단과 비두까지 총 3.9m이며 비신은 높이 2.76m 폭 97cm 두께 70cm의 흑탑석이다. 비석은 단층팔작지붕 비각속에 나무창살 울타리로 모셔져 있다.

지역사람들이 한흘비(汗血碑 · 땀흘리 비석)라 부르는 '표충비'는 나라에 중대한 시련이 닥칠때마다 땀을 흘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8·15해방, 85년 9·18 남북고향방문 등 갑사에도 땀을 흘려 예외없는 길흉비이다.

십수년간 표충비의 땀흘리는 모습을 지켜봤다는 홍제사 주지 범마스님은 땀 흘리는 모습이 흡사 사람이 땀 흘리는 모습같다고 증언했다. 작은 물방울이 비석표면에 드문드문 맺히다가 점차 커지면서 홈이 패인 균열부분으로 흐르지 않고 글자와 글자사이로 주르륵 흐른다는 것. 또 멀출 대는 아래쪽부터 물기가 금새 말라버린다고 한다. 땀의 수량도 한번에 4~5말은 기본이며 기단아래까지 흥건히 적셔버릴 만큼 많은 양이라고. 수량 측정은 비석바닥에 무명수건을 둘러서 흘린 땀을 받은 다음 그릇에 짜서 담아 잰다고 한다.

비각의 창살문을 열고 들어가 비석을 관찰해보니 균열의 흔적이 곳곳에 있다. 비석의 재질상 2백55년 수명치고는 마모가 너무 빠르다고 스님은 설명한다. 놀라운 것은 균열이 진행되는 방향이 여느 비석과는 달리 거꾸로 진행되고 있다.

36년전부터 홍제사 공양주로 살면서 표충비의 변화를 지켜본 이차돌(88세)보살은 "6·25전쟁 때부터 균열이 시작됐는데 그때는 손가락이 들어갈만큼 균열의 폭이 컸다"며 "완전히 아물면 통일이 된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온다"고 귀띔한다. 구전대로라면 이제는 균열이 거의 아물어 통일이 멀지 않은 것 같다.

땀이 흘렀던 곳을 찍어 맛을 보았다. 마치 사람 땀맛처럼 짭짤하다. 실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초 실시한 표충비 땀의 성분조사결과 인체의 것과 비슷한 염소와 중금속성분이 나왔다.

나라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온 표충비가 흘린 땀방울은 하나같이 굵직한 우리의 근·현대사와 함께 해 왔다. 〈표 참조〉

표충비의 땀이야기가 회자되면서 과학적인 원인규명도 수차례 시도됐다. 기온변화에 초점을 두는 학자들은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비석에 저기압이 다가와 응집현상이 일어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지질학자들은 비석자체가 철분을 많이 함유한 염기성화강암으로 습기를 머금는 성질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은 남아있다. 밀양관측소가 설립된 1973년 이후 표충비가 땀을 흘린 날의 기상은 대체로 습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79년 10월21일에는 습도가 48%로 상당히 건조한 날씨였는데도 표충비는 무려 5말의 땀을 흘렸다. 또 돌자체가 습기를 머금는 성질이 있다 하더라도 몇말씩 머금을 수 있느냐는 것도 풀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슬도 맺히지 않는 수많은 흑탑석 비석중 표충비만 유별나게 기후와 상관없이 역사적인 일들을 맞을 때마다 땀을 흘리는 까닭은 현재 미궁에 빠져 있다.

법마스님은 "우리 몸은 지수화풍(地水火風) 4대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은 시공을 초월한 자리로 마음작용에 의합니다. 표충비의 땀은 사명스님의 원력이던 간절한 애국충정이 후손들에게 비석을 통해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지요." 스님의 마지막 말이 귓전을 스치며 지나갔다. 그렇다. 신비스러운 것은 신비스러운 것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오늘의 사람들이 설부르게 땀흘리는 표충비를 과학의 잣대로 측정하려는 것을 두고 사명스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근·현대 민족 길흉사마다 홈 패인 곳 아닌 글자 사이로 너댓말씩 짭짤한 땀을 흘린다 과학잣대로도 풀지 못하는 신비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때마다 땀을 흘려 민족의 길흉을 알리고 있는 표충비는 현대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신비를 지니고 있다(사진 위).
◇단층 팔작지붕 비각속에 모셔진 표충비의 모습(사진 아래 왼쪽).
◇밀양시 무안면 홍제사 표충비각은 사명스님을 기리는 지역주민과 하루 3백여명의 참배객들이 찾는 명소이다(사진 오른쪽).

◇근·현대 길흉사와 표충비 땀

연도	사 건	수량	습도
1894	동학농민전쟁(7일전)	1말1되	
1910	한일합방(17일전)	4말6되	
1919	3·1운동(19일전)	5말7되	
1945	8·15광복(14일전)	5말7되	
1950	6·25전쟁(25일전)	3말8되	
1960	4·19 의거일	3말6되	
1961	5·16 군사혁명(5일전)	5말	
1979	10·26 박정희대통령시해사건(5일전)	2말	48%
1983	8·25 KAL기 폭파사건	1말2되	71%
1984	북한의 남한 수재민 양곡전달	1말	84%
1985	3·25중국어뢰정사건사과문전달	기록없음	89%
1985	9·18 남북고향방문	1말	87%
1991	4·17 고르바초프 한국방문	2말4되	92%
1992	LA폭동(5일후)	3~4되	57%
1996	1·14 일본과 독도영토권 문제시	8되	97%
1996	6·28 북한수해 아사탈출 극심	6되 .	90%
1996	11·5 강릉잠수함 무장공비 침입	1말8되	99%
1997	1·1 새해첫날	2되	81%
1997	김영삼대통령 대국민사과문발표	2말6되	95%
1997	3·5 개각 하루뒤	1말6되	92%

*79년 밀양관측소 개원후 습도 측정.

글: 김원우 사진: 고영배 기자



◇홍제사 영당에 모셔진 사명대사 영정. 조선후기 제작.

표충비에 새긴 뜻
사명대사의 호국안민 업적·생애 기려

표충비는 사명스님 5대법손인 남붕(南鵬)선사가 1738년 스승의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조성했다. 앞면에는 공적 행장이 기록됐고 옆면에는 사명스님의 스승인 서산대사와 임진왜란당시 승병장 기허대사의 공적, 뒷면은 표충사 사적비록이 새겨져 있다. 또 이 비석은 표충사가 사액사당으로 승격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는 최초의 서원 사찰이었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다. 비문은 영조때 영의정을 지낸 이의현의 사명대사 찬탄글을 가려 뽑아 홍문관 부제학인 김진상이 썼으며 중추부사 유척기가 전(篆)을 내었다. 또 서체는 한결같이 정경시대의 동국진체(東國眞體)풍으로 청경수려(淸勁秀麗)한 것이 특징이다.

'유명 조선국 밀양표충사 송운대사 영당비명 병서(有明朝鮮國密陽表忠祠松雲大師影堂碑銘幷序)'로 시작되는 표충비문은 사명스님의 호국안민을 위한 업적과 생애를 기리고 있다.

비문에 따르면 1544년(중종 39년) 10월 17일 밀양땅 무안면 고나리에서 풍천 임씨 후손으로 출생한 사명대사는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당시 금강산 유점사에 주석하며 9개 고을 백성을 구한다. 또 승병을 모아 의승도대장으로 활약하며 평양을 탈환하여 풍전등화에 처해있는 나라를 구할 뿐 아니라 군량을 구축하고 부산산성을 쌓아 국방의 기틀을 다진다.

또 선조 37년 강화사로 일본에 건너가 당시 일본의 실력자 풍신수길을 불력(佛力)으로 굴복시키고 포로로 잡혀간 조선사람 3천5백명을 데리고 돌아온다. 선조는 이와 같은 사명대사의 위업을 기리고자 정 2품 자헌대부중추부사 행조관서 의금부사 영의정의 직책까지 내렸으나 이를 사양한다. 이후 사명대사는 승려의 본분으로 돌아가 가야산에서 수행정진으로 일관하다 67세에 좌정한 채 입적한다.

이 비문을 통해보면 사명스님의 구국원력은 △국민 총동원 왜군 격퇴 △백성을 안위하고 농업을 장려 △민력 무장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 소탕 △국세회복을 위한 방어책을 세울 것 △풍란한 가풍을 뿌리뽑고 국가기강 쇄신 △귀천을 가리지 않는 인물본위 등용 등이다.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教史料!
'96년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1호에 이어 합본 '96년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옥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셨던 분들,
■ 합본집('96년판) : 제 60호(1996. 1. 3)
제108호(1996.12.25)
■ 가격 : 50,000원(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한정된 수량 관계로 선착순 판매 합니다.
(주)현대불교신문사 (代)737-8881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다문품(多聞品) ②

能爲師現道 능위사현도
解疑令學明 해의령학명
亦興淸淨本 역흥청정본
能奉持法藏 능봉지법장

지혜로운 이도 들으면 굽히고
도를 좋아하는 이도 또한 그러기를 즐기며
왕도 마음다해 섬기고
비록 제석 범천이라도 또한 그러하도다

많이 들으면 스승되어 도가 드러나게하고
의심을 풀어주고 공부가 밝아진다
청정한 근본자리를 떳치게하니
능히 법장을 받들어 지녀야한다

仙人常敬聞 선인상경문
況貴巨富人 황귀거부인
是以慧爲貴 시이혜위귀
可禮無過是 가례무과시

能弘爲解義 능섭위해의
解則義不孚 해즉의불천
受法猶法者 수법의법자
從是疾得安 종시질득안

선인도 항시 공경하여 듣거늘
하물며 귀인이나 부자이랴
이에 지혜로써 귀함을 삼나니
예배할 것에 이보다 나은것 없도다

많이들으면 마음 다잡아 이치를 알고
이치를 알면 뜻을 천착하지 않아서
법을 받들고 법에 의지하는 이
이로부터 빠르게 안락에 들게된다.

事曰爲明故 사일위명고
事父爲恩故 사부위은고
事君爲力故 사군위력고
聞故事道人 문고사도인

若多少有聞 약다소유문
自大以僑人 자대이교인
是如盲執燭 시여맹집촉
燋彼不自明 소피부자명

태양을 섬김은 밝기 때문이요
어버이 섬김은 은혜 때문이며
임금 섬김은 힘 때문이요
많이 들은 까닭에 도인을 섬긴다

"많이 들으면 의심줄고 공부 밝아지니
법에 의지하는 이 빠르게 안락얻는다"

혹 다소간에 들은게 있다하여
스스로 대인인척 교만하게 굴면
이는 마치 장님이 촛불을 잡은듯
남은 비추되 제 스스로는 밝지 못함
것과 같다.

人爲命事醫 인위명사의
欲務衣豪强 욕승의호강
法在知慧處 법재지혜처
福行世世明 복행세세명

夫求爵位財 부구작위재
尊貴昇天福 존귀승천복
辯慧世間悍 변혜세간한
斯世爲第一 사문위제일

사람들은 목숨위해 의사를 섬기고
승자가 되고싶어 권세에 의지한다
법은 지혜있는 곳에 있으니
닦아서 복을 지으면 세세생생이 밝다

무릇 벼슬과 지위와 재물을 구해
높고 귀하기가 하늘 북만 하더라도
변재와 지혜가 세간 중에 강하기는
이 많이 들음이 제일일 것이다

察友在爲謀 찰우재위모
別伴在急時 별반재급시
嚴妻在房樂 관처재방락
欲知智在說 욕지지재설

벗을 찾음은 일을 꾀하기 위해서요
길벗과 갈라섬은 위급한 때요
아내를 맞음은 방사의 즐거움에 있다
지혜로운 이 알고자 하면 설법을 들어라

帝王聘禮聞 제왕빙예문
天上天亦然 천상천역연
聞爲第一藏 문위제일장
最富施力强 최부시력강

聞爲今世利 문위금세리
妻子昆弟友 처자곤제우
亦致後世福 역치후세복
稽聞成聖智 적문성성지

제왕도 예로써 맞아 듣고
하늘 위의 하늘서도 또한 그러한데
많이 들음이 으뜸가는 법장이라
가장 부하고 힘이 세도다

들음은 현세의 이익이 되나니
처자 형제 벗에도 이롭고
또한 후손에까지 복이 미치며
많이 들어서 성인의 지혜를 이루어라

龍 眼

智者爲聞屈 지자위문굴
好道者亦樂 호도자역락
王者盡心事 왕자진심사
雖釋梵亦然 수석범역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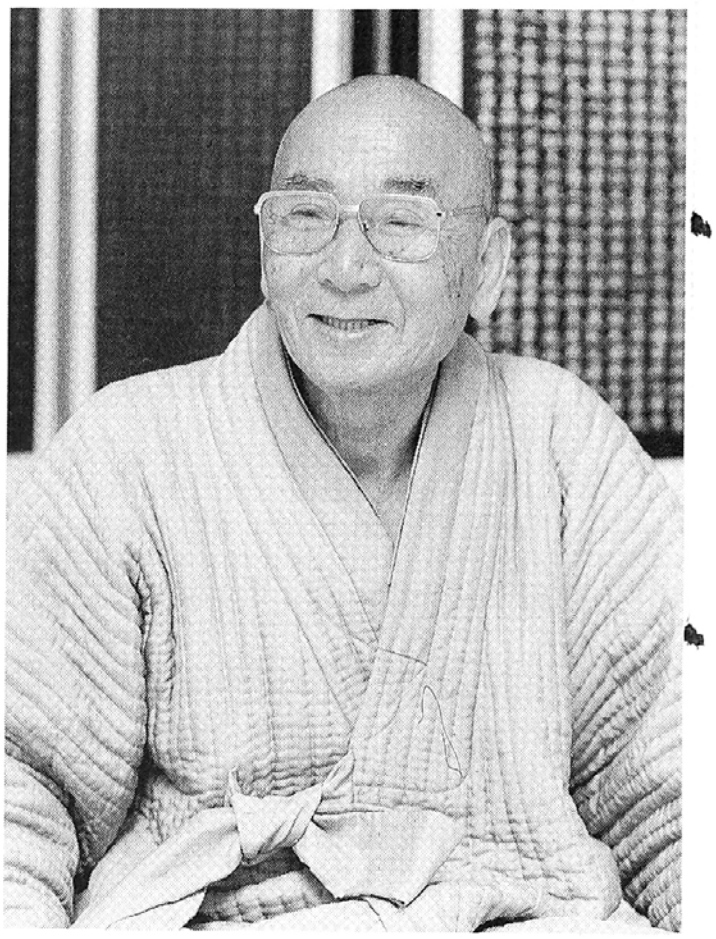
지혜로운 이도 들으면 굽히고
도를 좋아하는 이도 또한 그러기를 즐기며
왕도 마음다해 섬기고
비록 제석 범천이라도 또한 그러하도다

큰스님 수행한담

"매일아침 10분이라도

서 암 스 님 〈前 조계종 종정〉

"발등에 불끄듯 가장 급한 일은
꿈에서 깨어나 苦 벗어나는 일입니다
어렵다지만 팔만사천법에 길이 있어요"



- 1914년 경북 영주 生
- 약 · 화산스님을 은사로 출가
- · 일본대학 종교학과 졸업
- 력 · 심원사 전문강원 강사역임
- · 조계종 총무원장 역임
- ·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역임
- · 現 중흥사 주석

"아침에 공기맑을때 독서하는 것은 죄악이다."

내가 어릴적 읽었던 톨스토이의 작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일제시절이라 책 빌려보기가 쉽지 않았지만 늘 책을 가까이 했지요.

왜 아침 공기맑을때 책읽는 것이 죄악일까요. 오히려 권장할 일인데 말입니다.

종일 활동하다가 잠자리에 들기전에 과거의 인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 그때 독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아침 그 신성한 시간에는 남의 찌꺼기를 들여다 볼것이 아니라 자기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마음에 어찌나 감명을 받았던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자기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은 후에 나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끈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끔 보면 종교를 갖는 신행활동이 다 여가시간에나 하는 것인 줄 알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교육을 받고 철학을 연구하고 모든 종교의 문을 두드리고 하는 것들이 다 무슨 글을 배우기 위해서나 어떠한 기교를 배우기 위해서나 어느 종교를 믿기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보다 복되고 행복하게, 진지하고 평화스럽고 아름답게 살기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찰나를 살더라도 우리가 하루하루 노력해서 먹고사는 것들이 다 무엇때문일까요? 이 사는 목적을 밝히고 발견해야 합니다.

불교는 바로 그 사는 태도를 분명히 알자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백년도 못되는 세월동안 우리는 꿈틀거리며 무한히 헤매고, 한생뿐만 아니라 또 몸 받고 몸 받는 수없는 광겁으로 생사의 과도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사없는 도리를 하나 밝히기 위해서 부처님이 출현하신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쉬운 도리를 일러 주셨지만 모두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생사 없는 길에 몰아 넣기 위해 49년 동안이나 종으로 횡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꿈깨는 일밖에 없습니다.

불교의 핵심은 바로 꿈깨는 문제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천하에 이보다 쉬운 법(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불교가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잠꼬대 같은 소리들을 하지요. 가장 쉬운 이치를 두고 어렵다는 것은 겉으로 헤매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다만 1시간이나 10분이라도 딱 앉아서 자기를 반성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를 응시하고 인식한다면, 그 시간은 참으로 빛나는 시간입니다. 깨치지는 못하더라도 잠깐 동안이나마 면밀히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바라보고 생각해 본다면 하루 24시간 생활하는데 큰 힘이 되고 큰 빛이 됨을 직접 경험 할 수 있습니다.

"먼지의 입자하나 제대로 알아도
우주전체 이치 확연히 알수 있어요
그러니 세상만사 화두 아닌게 없지요"

나는 경북 영주에서 태어났어요. 일찍이 중농이었던 아버지께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신 관계로 안동형무소에 투옥되셨고, 집안은 파산의 운명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방랑을 하다 예천땅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민족의식에 눈을 뜬 분들이 설립한 조그마한 사립학교에서 처음으로 신학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신문을 배달하고 밤에는 물건을 팔아 학비는 물론 집안의 살림도 도와야 했지만 육체의 고통을 정신력으로 버텨가며 와세다 대학의 강의록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갖고 있는 의문점들을 많은 사람에게 질문하곤 했는데 흔쾌한 답을 얻지 못해 늘 답답했습니다.

그당시 나는 예천 서악사에 친구들과 가끔 놀러갔는데 어느날 서악사의 노스님을 만나뵙는 인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만해도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줄도 모르고 산중에 있는 중이 뭘 알까싶은 마음에 내가 아는 것을 뽐내며 대화를 시작했지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 예전에 만났던 이들과는 달리 오히려 내 입이 꽉 막혀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스님은 내게 "그래, 네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것 다 털어내고 네소리 한번 해보아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 소리에 '아!…' 하며 꽉 막혀버린 것입니다.

내가 그때까지 아는 소리란 소설보고, 책보고 배운것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내안의 소리를 한번 해보라고 하니 그만 막혀버린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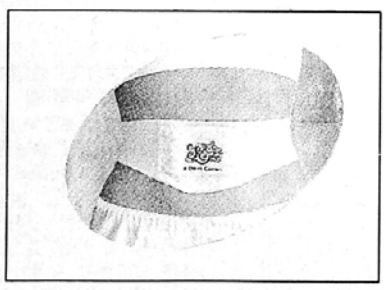
그리고 스님은 "너의 정체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또 꽉 막히는 것이었어요.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나왔겠지만 또 그 어머니는 어디서 왔냐고 소급해 물으면 또 막힐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스님과 며칠간 이야기를 해보니 예사 스님이 아니구나 생각돼 스님께 중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나 중되는 것 아니다 하시기에 며칠을 졸라 서악사 노스님 밑에서 2년 반동안 시봉을 하고 난 후, 김용사에서 화산스님을 은사로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 한 뒤 한 3년동안은 경전공부와 참선수행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다가 종단의 추천을 받아 종비생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대학 종교학과에 입학하고서도 생계를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 · 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로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관음영지 소백산 구인사에서 3일간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룬다는데… 그 소문의 실체를 밝혀주는 책!!

대한불교천태종 신행수기모음 제1권

믿음으로 피운 연꽃

생의 뜻하지 않은 역경을 통해 오히려 진실한 믿음을 만나고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을 몸소 체험한 신행인들의 이야기



"어떤 방법의 치료도 허사가 되고만 남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인사를 찾아 삼일기도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구인사도 절이니까 가서는 편히 휴식을 취하다가 오는 곳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잠 한숨 못자고 기도만 하다가 왔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남편을 보며 '그런 곳도 있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으로 그렇게 심한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무사히 육지 가까이 인도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관세음보살님의 고마움에 감동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이 없었더라면 우리들은 뿔뿔이 흩어져 고기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약도를 품에 지닌 채 봇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 이튿날 구인사를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그 길이 절망의 문턱에서 희망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극적인 전환점이었다는 사실은 뒤에 괴부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중에서〉

제2권 **내가 만난 관세음보살**과 함께 전국 유명서점과 불교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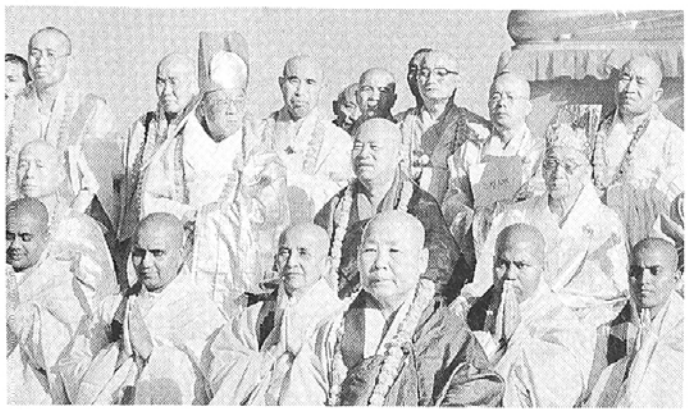
신국판 각 256면 정가 5,000원

도서출판 열린불교
서울 · 종로구 청진동 208 금강BD 302호 ☎(02) 739-0108

큰 스님 수행한담

자기를 찾아 보세요"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것 다 털어내고 너의 소리 한번 해보아라" 서악사 노스님 말씀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 만남으로 불제자의 인연이 되었지요



◇지난 96년 12월 인도 바라나시 녹야원 초전법륜지에서의 서암스님.(둘째줄 맨 오른쪽)

유지하기위해 요즘도 나오는 '요미우리' '아사히' 등의 배달도 하고, 방학때는 다음학기 학비를 마련하기위해 품팔이도 하고, 고물장사도 하고 막노동판 주방장도 하는 등 별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덜컥 폐병에 걸렸지요.

피를 토하며 쓰러진 나를 당시 같이 유학하며 옆방에 살던 故 이종익박사가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폐병에 걸리면 가족들도 가까이 가기를 꺼릴 정도로 중병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의사에게 "내 병 고칠 수 있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고칠 생각이 있느냐"하면서 2년간 입원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하루살이도 힘든데 2년간 입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대학 3년을 수료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귀국후에 결사용맹정진을 하며 그 죽을 병마를 뛰어넘었습니다.

일제 징용이 한창이던 때에는 철원 심원사에서 후학을 지도하는 강사생활을 잠시 했었고, 금강산 유점사, 마하연, 심계사 등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병이 내 몸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날까지 살고 있습니다.

또 대승사에서는 청안스님, 청담스님, 포산스님, 우봉스님, 성철스님들과 함께 정진하기도 했습니다.

광복후 우리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울때를 두루 지나며 해인사 선방, 망월사, 청화산 원적사 등지를 떠돌며 화두를 잡고 있습니다.

화두라는 것은 본시 말씀 화(話)자, 머리 두(頭)자입니다. 아무리 짤막한 말도 말의 뜻이 다 있습니다. 뜻없는 말이 없지요. 그런데 이건 뜻이 붙지 않습니다. 일체 사량분별(思量分別)이 붙지 않는 것이 화두입니다.

가령 화두를 뭐하러 할려고 하냐고 물으면 뭐라 할것입니까? 깨닫기위해서 한다고 하겠지요. 왜 깨달으려 하냐고 물으면 뭐라 답하겠습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할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괴로우니까 고(苦)에서 벗어나기위해 화두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49년간 설한 8만4천법문은 모두 이야기 즉, 말로돼 있습니다. 화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옛스님들은 "어떻게 하면 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하고 제자가 물으면 방망이로 후려치기도하고, 또 벽력같은 고함을 지르기도 했지요.

그것은 이론으로는 안되니까 그런 비상수단을 이용하는 겁니다. 화두는 이론이 아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그 사람의 생명체에다가 침을 놓은 것입니다.

이론을 따져봐도 안되고, 백과사전을 찾아봐도 안되는 꽉 막히는 의문을 푸느라 시간 가는줄 모르고, 시간과 공간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디 앉아 있는지도 망각해 버리고 골똘히 참구해 들어가는것, 그게 화두입니다.

하지만 화두는 여러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화두에는 1700공안이 있는데 역시 말을 통해서 그것을 짐작할 수 있지, 말 안하면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말을 안해야 된다는 것을 또 말로써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 가지고 말에 이른것. 즉, 이론에서 이론으로 끝마치는 것은 불교의 경전 즉 교학이고, 이론에서 이론이 끊어진데까지 끌어다 놓는것이 화두다 이 말입니다.

사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화두 아닌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아는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아는거 있거든 하나 얘기해 보세요. 그래 이건 연필인데 이름이 연필이지 이게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지 또 그 나무는 무엇으로 이뤄졌는지 알아요?

실제 우리는 먼지 하나도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나 사실 먼지 하나의 존재만 제대로 알아도 우주전체를 알아버립니다.

요새 과학에서드 소립자, 원자, 전자니 하면서 연구해 들어가는데 그것만 알아도 우주전체를 아는 것이 아닙니까? 이세상을 이루는 물질은 하나인데-현재 하나라고 과학은 결론지어 놨는데-하나의 먼지 입자만 봐도 제대로 아는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꽉 막힐 수 밖에요.

참선이란 말 자체를 몰라도 인간이 진지하게 살려고만 한다면 다 화두가 되게 마련입니다. 풀 한포기 꽃 한송이를 보아도 저런 풀에 파란물이 묻어 올라오고, 빨간 꽃 봉오리가 올라오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기하지요. 누가 염색공장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우주에는 전부 신기한 것, 모르는 것 뿐입니다. 모르는것 뿐이라는 것은 자기가 결국 멍텅구리다 이 소리인데,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냥 멍텅구리로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린다는게 화두거든요.

예전에 나는 잠시 조계종 총무원장직을 맡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은 내게는 영 맞지가 않았습니다.

자질이 부족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모든 직책을 다버리고 경상북도 하북면 원적사로 내려왔어요.

그때 나는 바랑에다 흰 장갑 여섯켤레를 넣어가지고 왔어요. 총무원장으로 있다보니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일이 많았는데 가만히 보면 테이프커팅인가 뭔가 할때 한번 쓰고는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 이더라구요. 면장갑 한켤레지만 참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긴하게 쓰려고 모아둔 것이지요. 주위 스님들이 흰장갑 여섯켤레의 사용처를 물길래 "나무할때 쓰려고 모아왔지"했더니 다들 신기하다는 듯 쳐다보더군요.

요즘 너무 헤프게 삽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얼마든지 오래 오래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행하는 스님들 조차 아끼고 절약한다는 생각없이 너무 풍족하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원적사에 내려와서 원효스님이 머물렀다는 근처 토굴에서 솔잎을 따먹기도하고 내손으로 직접 공양을 지어 먹으며 오랜동안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오로지 철저하게 수행에만 몰두했던 그때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철저한 생각이 아니고 이 세상이 조금 살만하니까 정신이 없어 그렇지, 내가 오늘을 살지 내일을 살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바람 앞에 촛불같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인생인데 백년산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설사 백년을 산다해도 이렇게 살아가지고 근본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그말이지요.

신행은 여가시간 활용아닌 생활 일부분 "진지하게 살면 저절로 수행자 됩니다"

수행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안한다고 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진실되게 살려면 안하고는 배기지 못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누구한테 수행법을 배운게 아닙니다.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해서 밤중에 집을 나와서 탁 한 판 해보려니까 시원하게 자기를 가르쳐 줄 스승이 한분도 없었어요. 그러니 물을 필요가 없지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진지하게 살면 저절로 수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급한 것이 내 인생을 찾는 것입니다. 머리에 불붙은 것을 끄듯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듯이 내 인생의 참모습을 깊이 참구해 들어가 자신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정리=이은자 기자

돈 잘버는 방법이 있습니까

문 불교신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아하, 이것이었구나' 하고 탁 깨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익명의 독자〉

답 불자든 아니든, 가톨릭신도이든 기독교도이든 그런 것 가리지 않습니다. 불교는 진리를 말합인데 진리에 무슨 상표가 있습니까? 사람따라서 불교도다, 기독교도다 하고 써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구요. 마음 터득하고 마음을 바르고 넓게 쓰면 그대로 도에 맞는 것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요? 모든게 다 생명이듯이 돈에도 생명이 있지요.

돌고 도니까 돈이라고 했다지만 거기도 생명이 있어서 가만히 있질 않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좇아간다고 되는게 아니라 언제나 마음을 바르고 넓게 쓰면서 주인공 자리에 턱 말겨 놓으면 돈이 슬그머니 나를 좇아옵니다. 돈! 돈! 하고 따라가면 도망가지만 믿음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돌리면 슬슬 찾아 옵니다. 사람도 따뜻하게 대해주면 좋아서 자꾸 찾아오듯이 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듯이, 물도 될 수 있고 흙도 될 수 있고 뭐든 다 될 수 있듯이 내가 돈이 될 수도 있지요. 사대가 뭉쳐 하나로 돌아가는데 뭐는 못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잔뜩 욕심이 생겨서 집착을 한다면 돈이 그만 도깨비 짓을 하지요. 쌓아 놓아서 좋은게 아니라 들어오면 나가고 나가면 또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게 마음 편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돈을 쌓아 놓아야 부자가 아닙니다. 그거 무겁게 왜 쌓아 놓습니까? 마음 도리를 알면 전부 내 돈인데 말입니다.

마인드콘트롤도 마음공부인가요

문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마음 공부란 이른바 마인드콘트롤과 같은 것이 아닌지요.

〈허태봉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답 그런것 하고는 다릅니다. 이 마음 공부란 자유인이 되는 길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 그게 자유인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전부를 놓아서 두가지 다 없을 때 비로소 내가 자유롭단 말입니다.

자유인이 되는 공부라고 하니까 어떤 이는 자칫 제멋대로 하는 걸로 알아들습니다만 그건 자유인이 아니지요.

가령 사랑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요즘은 사랑이 너무 지천이 되어버렸는데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니까 둘이 같이 죽자는 경우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랑을 위해서 도둑질을 하질 않나, 그런 사랑이 도대체 무슨 사랑입니까?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를 둘이 아니게 볼 수 있고 서로가 둘이 아니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내 아픔이 네 아픔이요 네 자리가 내자리라서 하나도 버릴 게 없고…. 그러니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거다 저거다, 너다 내다 할 것 없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사랑 할 것도 없이 그대로 내 사랑이 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 진정 그가 나라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 절로 마음이 기울고 그러다보면 병이 그냥 낳아버리고 그러는 것이지 무슨 마인드콘트롤이라구요? 차원이 다른 얘기이지요.

언젠가 중년의 남자분이 찾아오셨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고개가 삐뚤어진 채 돌아가질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정말로 지극하게 삼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절을 받으면서 생각이 들기를 나같이 모자라는 사람한테도 저토록 지극하게 절을 하다니…,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고개는 왜 그렇소?" 했더니 어느 때부터인가 갑자기 그리되었는데 아무리해도 돌아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시냐고 대꾸하고 그만이었지요.

나중에 다시 찾아왔는데 환한 얼굴로 고개가 똑바로 되었단 말입니다.

사연인 즉은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옆에서 누가 자꾸 건드리는 바람에 '아이, 좀 가만히 있으라' 고 돌아보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마인드콘트롤이라고 하겠습니까? 부처님 법은 자유인이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공생 공용하는 법이고 공체로서 공식하는 법입니다. 본래부터 둘이 아니니까 내 마음 편하자고, 내가 괴롭지 않으려고, 너와 내가 따로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그냥 주고 받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날 보고 스님은 왜 돈이 모일 사이도 없이 자꾸 누굴 주느냐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준게 아니라 나 편하자고, 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이란 말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 ·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생활속의 불교 116

찰나찰나 자유를 누리는 현명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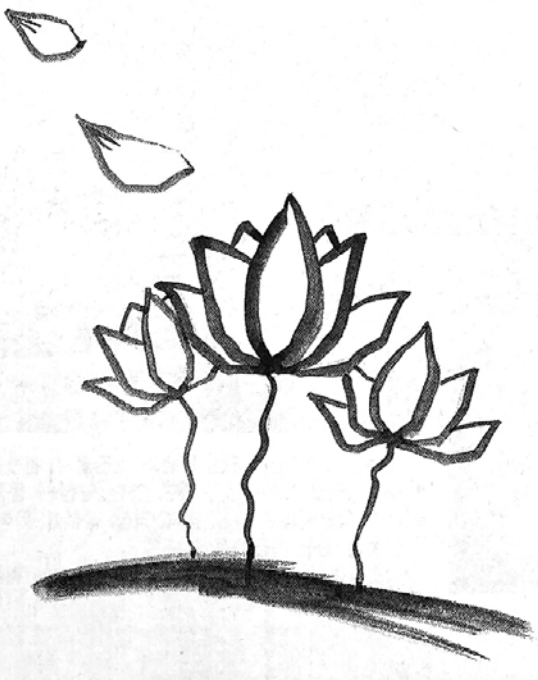
"일체는 본래 공(空)하여 잠시도 쉴 사이 없이 나투며 돌아가고 있을 뿐이다. 만약 나투지 않는다면 이 몸이나 우주가 형성될 수도 없고 또한 바뀔 수도 없다. 쉴 사이 없이 바뀌고 돌아가기에 어느 때를 꼭 집어 '이것이다' '나이다' 라고 할 수 없어서 공이요, 오직 나툰다고 할 뿐이다.

처음과 끝이 따로 없다. 시발점이 종점이고 종점이 시발점이다. 들어가면 나오고 나오면 들어간다. 무의 세계 유의 세계가 따로 있는게 아니다. 그냥 찰나찰나 변하는 이법(理法)만이 여여하다. 찰나로 변한다는 것은 찰나에 죽어간다는 뜻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찰나에 되살아 난다는 뜻도 된다.어리석은 사람은 찰나로 죽어가는 이치에 매달려 살지만 현명한 사람은 찰나에 되사는 이치로써 자유롭게 산다."

우리들은 어떤 사물을 상대할 때에 대체로 고정된 생각에 사로잡힌다. 사람은 언제나 같은 사람이며 그것은 언제나 그것으로서, 이것은 언제나 이것으로서 존재한다고 믿는다. 우리들의 의식세계 속에서 한 대상은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흐른다. 찰나찰나 변하고 나투는 이법(理法)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연속되는 실체로서 뚜렷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것은 대상에 대한 나의 지각일뿐 막상 대상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사물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어느 것이라도 고정되게 존재하는 것은 없다. 변함없는 것은 오로지 모든 사물은 변한다는 사실 그것 뿐이다.

'나' 라고 할 때의 나의 실체는 무엇인가? 육신인가 영혼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의 육신인가 영혼인가, 아니면 그의 성품인가? '나' 도 그렇고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도 그렇고 찰나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거기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오로지 시제(時際)가 없는 지금의 나, 순간의 그가 있을뿐이다. 그것을 우리가 연속적인, 고정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그 대상과 나의 지각 현상이 어우려져 만들어 낸 개념, 메시지 같은 것일 뿐이다.



영화배우가 분 바르고 연지 찍고 나와서 대본대로 역할을 할 때 우리는 악역을 맡는 배우를 어느새 미워하게 된다. 선한 역할을 맡은 배우는 영화 속에서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좋아하게 된다. 그러나 그 배우는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부터 악인도 선인도 아니다.

미워할 대상도 좋아할 대상도 아닌 것이다. 잠시나마 그를 좋아하고 미워했던 것은 대상인 그 배우가 밉거나 좋아서가 아니라 그 대상을 보고 내가 만들어 낸 개념이 그랬을 뿐이다.

우리가 고정된 것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영화 속의 장면같이 영화속의 배우같이 실상이 아닌 허상에 불과하다. 하루 밤 꿈 속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생시가 꿈이고 꿈이 생시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은 바로 찰나찰나의 나툼이 있을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본래로 나툼일 뿐이라면 유의 세계다 무의 세계다 하는 것이 무의미해진다.

고정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유,무가 따로 있겠는가. 본래로 나툼일 뿐이라면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하는 시간의 흐름도 무의미해진다. 고정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물의 어제, 사물의 내일이 따로 있겠는가.

고로 내가 지어낸 개념이라는 것도 실은 고정될 수가 없다. 다만 기억이라는 작용을 통해 고정된 것으로 만들어질 뿐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집을 부린다. 고정된 '나' 가 있고 '대상' 이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믿고 거기에 얽매여 일희일비(一喜一悲)한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그런 실상을 알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깃발 때문도 바람때문도 아니라 마음이 움직인 것인줄 알기 때문에 찰나찰나 자유를 누리며 산다.

협찬 : 故 오 영 신

고은 불교대하소설

인담 불타다



이제 우녀는 어떤 신이(神異)한 사람도 아니다. 그저 범속한 한 여자일 뿐이었다. 아주 높은 예지로 빛나서 마치 그의 눈빛에는 칼금이 수없이 들어있는 것 같은 적이 많았다.

그의 말 한마디는 그야말로 과녁을 비껴나가지 않고 정곡을 찔렀던 것이다.

그가 투시하는 눈빛이나 말 한 마디가 아니거라도 그가 이 섬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섬 둘레를 높은 성벽으로 쌓아올린 듯이 흡족한 안전감이 있었다.

무엇이든, 무슨 궁금한 일이든 그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여기는 것이 이곳 도량의 의부세계와 거의 무질되다시피 한 나날에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하늘이기도 하고 땅이기도 하였던 것일까.

그런 우녀가 지난번 이래 그의 몸과 마음 속에서 일체의 힘을 빼내버린 채 한 여느 여자로 돌아갈 줄이야…,

그것은 시체가 들어있지 않은 빈 관이 흰 무덤과 같고 가을의 뱀이 벗어놓은 허물이 가을바람에 맥없이 팔팍이는 것과 같았거니와 그보다 다른 것은 그가 어떤 치매 비슷한 동작을 보일 때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된장을 간장으로 알고 떠오다가 그것마저 다 엎질러 버리는가 하면 낮의 공양을 위해 씻어둔 생쌀을 난데없이 바닷물에 한 줌씩 뿌려버리며 "아나 너희들 실컷 먹어라. 내 고프겠구나"하고 소리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런 우녀를 인담은 그대로 보고만 있었다. 인담조차도 이제는 우녀에 버금가는 예지가 빌물처럼 쑥 빠져나간 범속한 남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인담일 때 볼품없는 청나라 해적패거리한테 곤욕을 치른 뒤 갑자기 그의 몸안에서 마음의 불이 일어나더니 그의 몸을 불태우는 이변으로 되었다. 어이없는 일이었다.

어디에 불씨가 있어서 불붙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고대신라의 한 천한 신분의 떠돌이 사나이가 여왕을 짝사랑한 나머지 그 사랑이 불로 타올라서 그 자신의 몸을 재 한 줌으로 만든 일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였다.

인담은 반나절동안 그의 몸이 불덩어리로 된 채 자글자글 타다가 뼈다귀를 남긴 재 한 줌이 되었다. 재는 곧 바다바람에 날려 흩어졌다. 메스꺼운 냄새도 흩어졌다.

우녀는 그렇게 사라져버린 인담에 대해서 어떤 일도 하지 못한 채 그곳에 얼씬거리고 있었다.

'……'

그는 슬픔도 모르고 있었다. 파도소리만 언제까지나 듣고 서 있었던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가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면서 인담의 유골을 하나하나 베 보자기에 쌌다. 그것을 들고 무욕도 꼭대기 쪽으로 천천히 올라갔다.

그곳에는 마치 그런 우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솔바람소리가 바다로부터 독립되어 있었다. 그런 솔바람소리 안에서 어떤 말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우녀가 그런 말의 뜻을 제대로 알아들을 리가 없었다.

그 소리란 겁말(劫末)의 바싹 마른 대지에서 불이 나 일체만상을 다 태우는 일을 허공의 신들이 바람소리 사이에 들려준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곳은 이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는 없다. 우녀야말로 한갓 어리석은 중생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이다.

아니 그 소리는 당장 무욕도 자체가 불덩어리로 된다는 경고인지도 모르지만 그 경고도 지금으로서는 다만 솔바람소리의 그 뱃속 쓰라린 냉기만으로 들리는 것이었다.

우녀는 그 솔숲의 한군데 움푹 패인 곳에 인담의 뼈 보따리를 내려놓고 흙을 긁어모아 작은 무덤을 만들어 놓았다. 그의 손톱에 피가 묻어나올 만큼 그 일을 하였다.

그곳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내려왔다.

내려오는 길에 우녀는 발을 헛디뎌서 저만치 나가떨어졌다. 머리 쪽도 땅에 찧어댄 것인가.

문득 어리석은 우녀가 그 이전의 우녀로 돌아갔다. 그는 입 안에서 피를 토해냈다. 세상이 환하게 열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 때문에 그 기운이 다 빠진 눈안에 다시 이전의 눈빛이 담겨 있었다.

"호음! 인담 20년 수행도 이렇게 헛되단 말인가. … 그렇기도 하겠지. 수행이 헛되어야지. 어디 그것이 헛되지 않아서야 수행이라 할 것인가."

우녀는 그의 혼잣말에 대꾸를 이었다.

그것은 일찍이 그기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한 선사의 임종게(臨終偈)였다.

"푸른 산이 더러운 송장 받을 리 있느냐 / 죽어 어찌 땅 파고 묻어줄손가/ 돌이켜 보니 나에게는 삼매 불길 없어/ 본래 없는 한 무더기 땔감이리…"

우녀는 몇마디를 더 주고 받는 혼잣말을 이어갔다. 그러다가 다시 그의 머리는 캐어난 상태가 다함으로써 광범한 어리석음과 예기치 않은 치매의 때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이제 무욕도 도량은 사실상 끝장났다.

우녀 한 사람이 남아있어도 그녀는 다만 어리벙벙한 채 섬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그럴 뿐더러 그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 어딘가 섬 밖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다. 이제까지 그는 무욕도에 뿌리깊이 박힌 바위덩어리처럼 이 섬의 주인공이 아니었던가.

그녀가 바위언덕 넘어로 간 것은 인담이 불타버린 뒤 10여일이 지나서였다. 거기에 배 한척은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 아니 헌 거룻배 한 척도 없어졌다.

그런 정도의 것을 해적들이 떠나며 가지고 갔을 리도 없다.

그는 다시 또 한 채 남겨진 아랫채의 숙소로 돌아왔다. 몸 전체에 피붓는 피로때문에 그대로 누워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실컷 잠들어 있었다. 잠이야말로 우녀에게 남은 행복이었다.

그런데 그가 깊은 잠에서 얕은 잠으로 옮겨질 무렵 그의 등줄기가 닿은 방바닥이 흔들리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떠지지 않았다. 이어서 방바닥이 흔들리면서 그 방바닥 밑으로 무언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았다.

그러나 우녀는 그때부터 꿈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꿈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행위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이제까지 그가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런 사람들의 얼굴은 망나니의 물 묻은 칼에 잘려나간 사형수의 목이 긴 장대 위에 매달린 그 효수(梟首)와 같은 모양이었다.

그 얼굴에는 무욕도를 거쳐간 사람들이 먼저 나타났다. 만화, 곰보 남각, 합두 무전 파한 그리고 수원 수월 불이…,

어디 그뿐인가. 효영 명오 상수 상을 대해 소석 박월 김성 순풍이 우식과 만우 그리고 심술장이같은 앵무새와 무욕도 바다의 갈매기들…,

아니, 무욕도 꼭대기에서 바라보이는 육지의 어렴풋이 보일락 말락하는 마애석불 언저리…,

그동안 이 섬에 건너왔던 시주(施主)들이나 아전 그리고 수군이나 해적들의 얼굴들…,

그러다가 우녀가 이 섬에 오기 전의 예처 시간을 가로막고 있었다.

드디어 흐린 하늘에서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우녀는 그동안의 메마른 몸을 그 비에 흠뻑 적셨다.

그러면서 꿈에 나타난 얼굴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내고 있었다. 비는 그 이름이 달려오는 것처럼 더 세찬 빗발이 되었다. 그 비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기세로 퍼부어서 끝내는 우녀가 기거하는 아랫채 요사마저도 무너뜨리고 말았다.

"아."

우녀의 짤막한 소리가 나왔다. 이제 무욕도에는 단 한채의 도량 당우(堂宇)도 없게 되었다. 뚫티버렸거나 무너졌거나 하여 이제는 인담이 처음으로 이 섬에 올 때처럼 어디에도 사람이 거처할 곳이 없게 된 것이다.

우녀는 비 맞는 일을 마땅히 해야할 의무처럼 계속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으로부터 2백년전쯤 이 무욕도가 큰 기도도량으로 번성하던 시대가 가고 다시 한번 몇몇 수행자들이 건너와 빈 섬을 공부로 채우다가 다 떠난 뒤 오래동안 사람의 흔적 없는 무인도로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인담이 건너옴으로써 오늘에 이르렀다.

어느날 부처님은 파타리푸트나성에서 아난에게 말하였다. 장차 이 섬이 무너진다면 반드시 세가지 일로 그렇게 되리라. 큰 비의 홍수가 범람하거나 큰 불의 화재이거나 이 되었다. 그 비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기세로 퍼부어서 끝내는 우녀가 기거하는 아랫채 요사마저도 무너뜨리고 말았다.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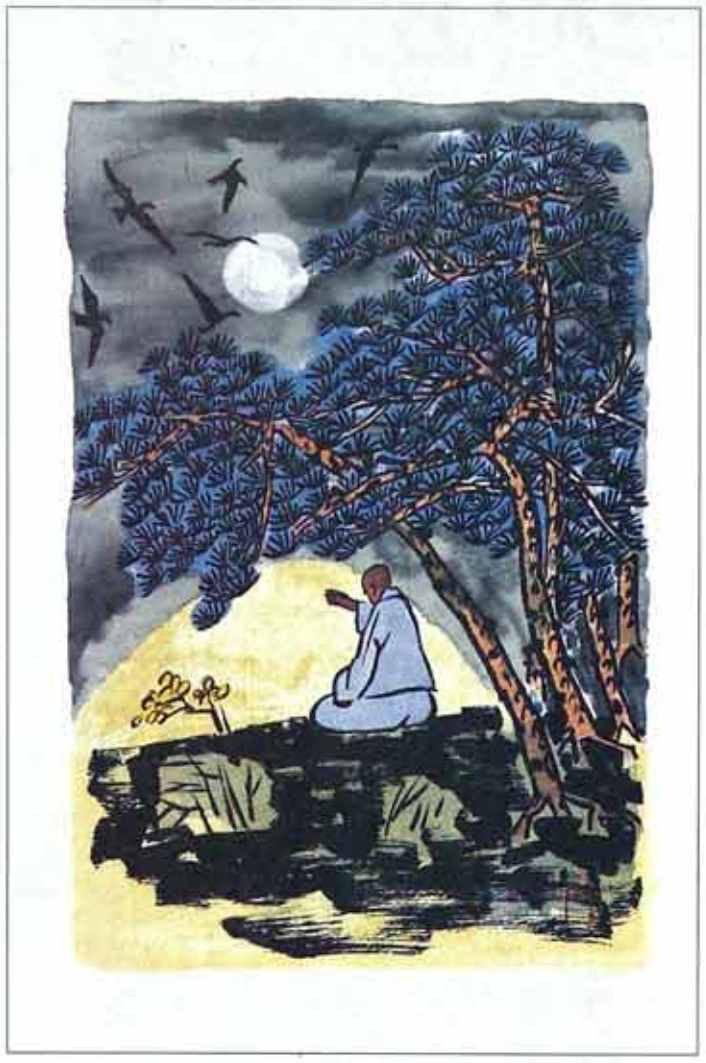
우녀의 짤막한 소리가 나왔다. 이제 무욕도에는 단 한채의 도량 당우(堂宇)도 없게 되었다. 뚫티버렸거나 무너졌거나 하여 이제는 인담이 처음으로 이 섬에 올 때처럼 어디에도 사람이 거처할 곳이 없게 된 것이다.

우녀는 비 맞는 일을 마땅히 해야할 의무처럼 계속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으로부터 2백년전쯤 이 무욕도가 큰 기도도량으로 번성하던 시대가 가고 다시 한번 몇몇 수행자들이 건너와 빈 섬을 공부로 채우다가 다 떠난 뒤 오래동안 사람의 흔적 없는 무인도로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인담이 건너옴으로써 오늘에 이르렀다.

어느날 부처님은 파타리푸트나성에서 아난에게 말하였다. 장차 이 섬이 무너진다면 반드시 세가지 일로 그렇게 되리라. 큰 비의 홍수가 범람하거나 큰 불의 화재이거나 나 그것이 아니면 이 성안의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과 내통하는 때이리라.



인담의 뼈를 묻은 우녀는 섬을 떠나고 싶었다 꿈에 나타난 얼굴들이 빗발이 되어 달려오고 있는데…

바다밑 지진과 세찬 빗발은 무욕도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었다

일찍이 인담이 무량사에서 해골을 걸망에 담고 떠도는 고골관(枯骨觀)의 객승으로부터 들은 토막얘기였지만 그 얘기가 무욕도의 일에 딱 들어맞아야 할 까닭도 없었다.

하지만 그 인담도 없는 상태의 고독 밖에 지닌 것이 없는 우녀한테 이번 큰 비는 하나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비가 퍼붓는 중에도 땅은 이따금 흔들리고 있었다. 바다 쪽도 한 줄기의 파도가 다른 파도보다 높게 치솟아가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다밑의 지진 때문이었다.

과연 이섬은 지진의 앞단계에 떠 있었다.

그림 · 조항숙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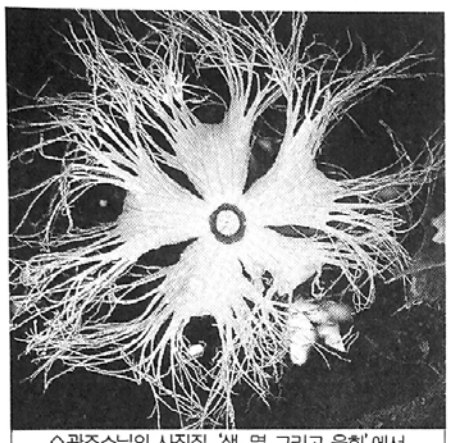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전당 불 교 조 각 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02)738-8447~8

대표 이진형 합장



◇관조스님의 사진집 '생, 멸 그리고 윤회'에서.

사찰주변 풍경 사진집 발간

관조스님 9일부터 전시회도

승가 고유의 모습을 수행자 특유의 시각으로 사진에 담는 작업을 벌여온 관조스님(범어사)이 여덟번째 사진집을 내고 이를 기념하는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사진집의 제목은 '생(生) 멸(滅) 그리고 윤회(輪廻)'. 사찰 주변의 이름모를 풀들과 꽃들, 나무, 바위 등 풍광이 스님만의 독특한 시각에 잡혔다. 늘 보던 풀과 나무와 꽃들이 새로우면서도 생동감있는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며 많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풀 한포기 나뭇잎 하나에서도 제행무상 제법무아 의 가르침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삼라만상은 모두 자기나름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고 있지요." 이번 사진집에는 관조스님이 지난 2년간 여러 산사를 다니며 렌즈에 담은 풍경중 가려뽑은 62컷의 작품이 실렸다. 이중에서 30여점을 선별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종로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3번의 해외전시 등 수차례의 전시와 〈승가〉 〈열반〉 〈대웅전〉 〈梁門〉 등 특유의 개성있는 사진집을 낸 바 있는 관조스님은 앞으로도 '바위' '생로병사' 등을 주제로 한 사진집 출간을 구상하고 있다. 〈숙〉

"부처님 가르침 렌즈 포교"

불교사진연 4·5월 전시준비 '한창' 매월 산사 찾아 법회·촬영

'한컷의 사진이 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줄 때가 있다'는 신념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렌즈로 담아 표현하는 불자사진가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불교사진연합회(회장 이병윤, 이하 한불사회)'.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부천 홍보전시실, 오는 5월 5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조계사에서 사진전을 갖는 이들은 작품전준비로 여념이 없다. 부천 홍보전시실에서의 사진전에는 회원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불교소재 작품 30여점이, 조계사 전시는 연등행사의 각종 모습을 담은 봉축사진전으로 엮어진다.

최근 사진인구가 크게 늘면서 사진의 소재로 불교가 각광을 받고 있다. 불교전통의식인 영산재나 연등제, 다비의식 등에는 사진작가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행사에 차질을 빚을 정도이고 각종 사진 공모전에서도 입상작품의 상당 부분을 불교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불교사진이 선호되는 이유는 한국문화의 전통적 아름다움은 불교에서밖에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탑 사찰 스님 등 외형적인 모습의 불교뿐 아니라 내면사상의 표출까지 추구하는 한불사회는 불교를 구심점으로 하는 사진모임단체라는 데 자부심을 갖고 불교사진의 다양한 표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 전파를 모색하고 있다. 한불사회에는 전문 사진작가는 물론 사진에 취미를 갖고 있는 다양한 직종의

전통 불교의식마다 사진작가 '북적'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있다. 현재 회원은 승가 재가 합쳐 30여명.

사진으로 유명한 관조스님과 안장헌씨가 고문을 맡고 있으며 정우 선암 동욱 용수 기봉 범일 허주 석공 지환 지암 월중 한북 부영 스님 등 사진에 일가견이 있는 스님들이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또한 부천 석왕사의 사진동호모임인 '심상'과 부산불교방송 사진회인 '찰나회'가 산하단체로 가입되어 있다.

한불사회는 매월 한차례씩 산사에서 정기법회및 촬영시간을 갖는다. 지난 3월 22~23일에는 고창 선운사에서 정기촬영을 실시했다.

"겉만 보는 피상적인 사진을 거부합니다.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이 있기 위해서는 불교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회는 독특한 내면의 눈에서 나온 제대로 된 불교사진을 추구합니다"고 강조하는 회장 이병윤씨는 "현대예술에서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가고 있는 사진을 통한 포교는 그 효과가 앞으로 더욱 극대화될 것"이라며 한불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불교사진연합회는 앞으로 사단법인으로의 전환과 전국 지부결성을 통해 조직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사진을 통한 불교의 사회화의 일환으로 불우노인들 영정사진 찍어주기 운동을 조용히 벌이고 있다.

이경숙 기자

"화보로 보는 흑석사 복장직물"

김영숙씨 '조선전기 불복장직물의 이해' 펴내



"5백여년전 옷감 문양이 현대에 못지않게 세련됐다."

최근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에서 11점의 고려시대 옷이 출현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조선전기 불복장(佛腹藏)직물을 조사 연구해 화보로 엮은 〈조선전기 불복장직물의 이해〉(미술문화 刊) 책자를 본 사람들의 이구동성이다.

동양복식연구원장 김영숙씨(문화재 전문위원)가 펴 낸 이 책은 지난 1992년 경북 영풍 흑석사 아미타불 복장에서 출현한 48점의 직물류를 종류, 조직상태, 문양의 특징과 그 역사적 배경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불상복장물이란 불상을 조성할 때 불상의 몸안에 넣는 물건을 말하는데 주로 사리, 경전이나 발원문 등을 넣고 옷, 직물, 오색실, 오곡 등이 들어간다. 흑석사 아미타불상에서는 효령대군이 권선하여 세조를 비롯한 왕실에서 시주하였다는 권선문을 적은 석견을 포함, 정의공주와 그의 부군 연창위 안맹담 두사람의 넙명이 적힌 색견이 포함되어 있어 자료의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러한 복장물들은 당시의 시대상과 문화를 고스란히 말해주는 소중한 자료이다.

이번 〈…불복장직물의 이해〉에는 올칼라 사진으로 조선초기 48가지 각종 직물의 전통문양과 색감을 상세히 보여준다. 특히 증조직 문직 주자직 등 직물들의 다양한 옷감조직을 알아볼 수 있도록 확대해 실어 주홍색 청색 두록색 타색 아청색 등 직물염색의 빼어난 기법도 확인할 수 있다. 문양은 운보문(雲寶紋) 만자문(卍字紋) 연화문 당초문 국화문 등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들 문양이 2종 또는 3종을 복합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어 현대적인 기법 이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흑석사 아미타불 복장에서 나온 천순2년(1458)의 명기가 있는 직물을 비롯한 직물류는 국보 282호로 지정되어 있다.

불심시심 〈82〉

달 아래 학의 울음 듣다

蒼鶴將雛自作群 (창학장추자작군)	새끼 딸린 푸른 학 스스로 무리지어
石門斜日弄晴雲 (석문사일롱청운)	돌 문 지는 해에 비 갠 구름 희롱하다
琴聲鶴唳相淸切 (금성학려상청절)	거문고 소리 학의 울음 서로 맑게 어울려
翁在丹崖月下聞 (옹재단애월하문)	신선 언덕 늙은이 달 아래서 듣다

지난 호에 이어 송계대사의 시이다. 석문에 깃들인 학을 읊은 시이다. 그저 단순하게 학을 소재로 삼은 것이 아니라, 새끼와 어울리게 하고는 이들이 어울려 울리고 있는 자연의 가락을 담고 있다. 왜 하필 푸른 학인가. 소나무와 어우러진 학이기에 한 말이다. 푸른 솔과 흰 학의 어울림을 한 단어로 묶은 것이다, 창송백학(蒼松白鶴) 그대로이다. 여기에 새끼를 거느렸다 하였으니, 많은 수의 한 무리를 실감있게 보이려는 배려라 하겠다.

이러한 공간에다 석양이라는 시간을 배합하여 뭇 학의 울음이 더욱 울리도록 하였다. 구름도 비 갠 뒤의 구름이라 하였으니, 비 갠 뒤의 석양의 해맑음을 연상할 수가 있다. 이 공간과 이 시간을 학이 회통하고 있다. 이 희통하다는 말이 학의 자유로움을 더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여기에 거문고가 함께하고 있다. 이 때의 거문고는 어떤 거문고일까. 아마도 솔바람의 줄없는 거문고일 것이다. 그야말로 무현금이 어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청절이라는 맑음의 극치적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이 거문고 소리와 학의 울음이 산사의 저녁 풍경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 산사의 전부이다. 극히 단조로운 듯하지만, 이 자체로서 온 자연을 모두 흡수하고 있다 하겠다. 산사의 저녁 풍경에 이 이상 다른 무엇이 필요하랴.

이러한 환경의 주인공으로 '늙은이'의 한 단어가 적절하게 자리잡았다. 그 자리도 붉은 언덕으로 대표되는 신선의 거처로 표현하였다. 달 아래에서 듣는다 하여 학의 울음과 스님의 거리를 느끼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거리로서의 느낌보다도 서로의 은근한 정감의 거리인 양 더 다정하다. 오히려 정감으로 더 좁혀져 있다 하겠다.

이렇듯 대사는 항시 대상의 물체와 거리를 두고 있는 듯하면서도 거리가 없음이 특색이다.

대사의 시에서, 스님의 신분을 느낄 수 있는 시는 그리 많지 않다. 거의가 자연을 소재로 하여 자연을 여실하게 읊으면서 그 속에 자신을 투영시키고 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자연을 철저하게 사람쪽으로 유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으로서의 나, 또는 작가가 없는 자연의 영탄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절대적 자아의식이 아닐까.

이종찬 〈동국대 교수〉

단청장 등 인간문화재 4명 지정


◇홍점석씨


◇고흥곤씨


◇고택영씨


◇한상춘씨

문화재관리국은 지난 24일 평생을 성보문화재보수와 사찰단청에 힘써온 홍점석씨(58)를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기능보유자로 지정하는 등 4개 분야에 걸쳐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4명을 새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보유자는 제42호 악기장 현학기 부문에 고흥곤씨(46), 제74호 대목장에 고택영씨(83), 제77호 유기장에 한상춘씨(49) 등이다. 이로써 중요무형문화재는 103종목에 184명의 보유자와 51개 단체로 늘어났다.

문화 소식

불국사 무설전 김교각스님展

지장왕보살로 추앙받고 있는 김교각스님 전시회가 서울 대구에 이어 경주 불국사 무설전에서 개최된다. 오는 5일부터 7월1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김교각스님 관련 유물 1백여점과 구화산 역사·문물 관련사진 및 유적 탁본, 사진자료와 김교각스님의 일대기가 소개된다. (0561)745-3088

김백봉씨 무용 60년 무대

'보살춤'으로 유명한 원로 무용가 김백봉씨(71)가 오는 8일 오후7시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60년 무용인생을 총 결산하는 '아 김백봉!' 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에는 김씨가 안무한 대표작 '화관무'와 '부채춤' '보살춤' 등 7편의 작품이 선보이며 2백여 제자들과 두딸 안병주·병헌씨도 함께 무대에 선다. 특히 이번에 공연되는 '보살춤'은 김백봉씨의 스승인 최승희의 작품.

선주선씨 10년만에 서예전



행·초서에서 능통한 선주선교수(44·원광대 미대 서예과)가 10년만에 서울 개인전을 열고있다. 2일부터 8일까지 운현궁미술회관에 마련된 전시회에는 최근 서예작품 59점이 발표됐다. 법구(法句)와 고담한 명문들을 담은 작품들은 다채로운 서체의 변화를 보였다는 평이다. 특히 세필 '금강경 전서'는 불심과 정성이 가득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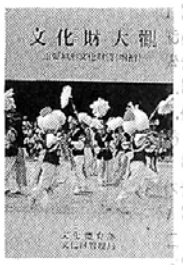
9일 보명사 봉축음악회

보명사(주지 상원)는 오는 9일 여의도 KBS 홀에서 '내 마음 하늘아래'를 주제로 봉축음악회를 갖는다. 보명사 신도회 학생회 어린이 합창단이 출연하여 안병길씨 지휘로 찬불가를 공연한다.

특히 이번 음악회에는 주한 미얀마·인도·스리랑카 대사 부부를 비롯 주한 불교국 대사관 가족들이 자국의 민요와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를 부르는 특별출연시간도 있다. (02)851-3881

문화재 관련 책 잇달아 출간





무형문화재 관련 서적들이 잇달아 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문화재관리국은 문화체육부와 함께 〈문화재대관(중요무형문화재, 증보판)〉을 펴낸 데 이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제 방법론〉을 발간했다.

〈문화재대관〉은 83년 발간된 이후의 변동사항을 수정 보완한 증보판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종목별 해설 및 주요 실연장면을 사진으로 담았다. 영문으로 종목별 명칭과 내용을 약술해 외국인의 이해를 도운 것이 특징.

〈무형문화재 보존…〉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무형문화재 보호방법론 개발 국제회의'에 제출된 보고서를 엮은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중국, 독일, 모로코 등 13개국의 무형문화재 보존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함께 일할 식구를 모십니다◈

1. 조 건 : 무자본, 무담보, 노력투자
2. 자 격 :
   - ●돈과 일이 필요하고 직장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 ●경영경험과 능력 소지하신 분 (남녀 차별없음)
   - ●불사봉헌에 재원 마련이 어려우신 보살님, 거사님 환영
3. 모집요령 : 사업 설명을 들으시고 면접 후 결정
4. 모집일시 : 1997년 4월 3일 10시까지 내사(전화 상담 가능)
5. 사업설명장소 : 본사 사업부

연락처: 02)774-6705
02)757-6705

※명분있게 돈 벌어서 불사봉헌 하시고 큰 덕 베푸셔서 보살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청호물산 주식회사 사업부
본부장 홍정일(법명 : 智光) 합장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佛塔다라니로서 스님과 불자들이 실제 겪었던 영험 사례집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를 사용하면 실제로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는 것일까?"

돌아가신 분들에게 깔아주고 덮어주어 극락왕생을 기원했던 금강경 탑다라니. 이 불탑다라니를 현세에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극락을 찾고 소원을 성취하고 일체재해를 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스님들이 방편으로 시도해보았던 불탑다라니에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
이세상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들은 규명하고자 하기보다는 한가닥 의심없이 믿고 행함으로서 실제로 체험 해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진실로 믿거나 불보살님의 위신력을 믿는 불자라면, 부처님의 위대한 경전을 100% 경면주사를 사용하여 조성한 금강경 신탑다라니와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지장보살본원경 사경본의 위신력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2000여 사암에서 주로 스님들을 통하여 불자들에게 보급되어온 본회의 불탑다라니는 사용한 불자들의 대부분이 한결같이 그 불가사의하고도 신비스러운 영험력을 직접체험 하였다고 스님들이 전해옴으로서, 본회에서는 그 사례들 중에서 대략적인 것만 모아 책자를 만들어 인연닿는 스님과 불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최근에 발견된 불탑다라니의 불가사의한 또하나의 영험력 : 집안에 흐르는 수맥의 영향을 100% 차단시킵니다.
<수맥찾는 전문가들의 실제 테스트결과 입증되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신비의 불탑다라니와 지장보살 본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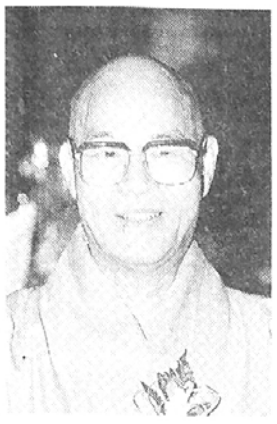
■고급 탁백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63㎝×(세로) 160㎝

스님들께는 스님용책자내용 : 스님용책자와 신도용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1. 본회의 금강경 신탑다라니에서 계속적으로 방출된 신비스러운 기를 이용하여 인간의 운세와 길흉화복을 80%이상 적중시킬수 있는 기(氣)테스트 방법 수록.
2.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 소원이 성취되는 불탑다라니 사용방법과 상세한 처방전.
3. 지장경 사경본을 이용한 조상대대 친족연족 일체지영가 천도방법.
4. 수자영가를 각각 불명을 지어 확실하게 천도시켜 주는 방법.
5. 불탑다리니로서 조상님의 산소를 후손이 발복하는 명당자리로 만들어 주는 방법.
6. 이름없는 영가의 불명짓는 방법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불탑다라니는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하는데 일조하고, 소원을 성취시키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주는 방편으로, 또한 조상령과 수자영가인 낙태아, 자연유산아 사산아등의 원혼들을 불명을 지어 위패를 안치시켜주므로서 확실하게 천도시켜주는 방법등을 제시해드림으로서 다소나마 불사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
2. 대학입시생을 둔 학부모.
3. 각종질병이나 원인모를 병으로 고통받는 분.
4. 정신질환이 있는 분.
5. 사업이 부진하거나 실패한 분.
6.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분.
7. 살재나 관재가 있는 분.
8. 집안이 이상하게 시끄럽거나 잘안풀리는 분
9. 고시나 승진시험을 앞 둔 분들은 꼭 받아보십시오. 큰힘이 되실 것입니다.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 (0342)706-3060





녹원스님 고희기념 학술논총

'한국불교의 좌표' 발간

국내외석학 논문 47편…10일 직지사서 봉정식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직지사 주지)의 고희기념학술논총 〈한국불교의 좌표(불교시대사 刊)〉가 출간됐다.

국내 외 불교석학들의 논문 47편을 담고 있는 이 논총은 평소 불교학진흥을 위해 보이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 온 스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 불교학의 지평을 넓히는 큰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논총은 제목에서 암시하듯 '한국불교의 좌표'라는 큰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의 불교사상 △성보문화의 향기 △통일을 향한 불교사상적 기흥 △불교문학의 세계 △미래사회와 불교 △수행의 길 △불교와 과학 △인도불교와 선불교 등 총 8편으로 구성해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불교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불교사상'에서는 〈원효의 自他論으로 본 한국불교의 일원론(목정배)〉 〈고려말 임제선의 전개(권기종)〉등 11편의 논문을 통해 한국불교사상전반을 조명하고, 우리문화와 역사를 '성보문화의 향기'와 '불교문학의 세계'를 통해 되돌아보고 있다.

'불교와 과학'에서는 〈불교의 우주관(조경철)〉 〈불교와 카오스 이론(김용운)〉 〈불교와 현대물리학(박광서)〉 등의 논문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첨단과학과 인류보편의 진리인 불교와의 접맥을 설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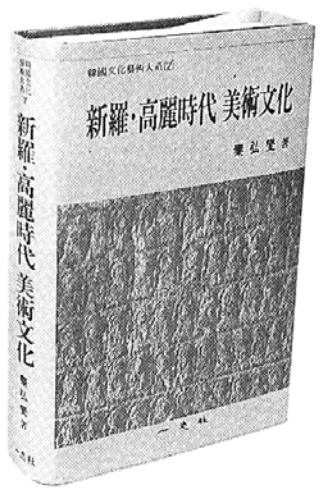
또 〈한반도 통일운동에서 불교의 역할(정용길)〉 〈북한불교의 재인식(홍사성)〉 등을 통해 통일시대를 향한 불교의 사상적 기여(寄與)를 역설하고, 〈아비달마 철학에서의 三世논쟁(R·E 버스웰)〉 〈수당이전의 禪學 경전 번역(양승문)〉 등으로 인도불교와 선불교를 고찰했다. '미래사회와 불교'에서는 〈재가불교운동의 역할과 기대(윤이흠)〉 〈인류의 위기와 불교의 대안(이중표)〉 〈미래사회를 위한 불교의 가르침(D·J 칼루파하나)〉 등을 통해 변화하는 세계에 대비한 불교의 역할과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밖에도 녹원문학상 시부문 수상작품을 부편(附篇)으로 담아 불교문학 진흥에 헌신해 온 스님의 관심과 정성을 엿볼수 있다.

동국대 이사장으로서 불교종립대학 동국대 발전기금 3백22억원을 조성, 21세기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일산 제3캠퍼스와 불교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등 한국불교 중흥에 각고의 노력을 펼쳐온 녹원스님. 녹원스님의 고희기념학술논총〈한국불교의 좌표〉 봉정식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직지사 만덕전에서 개최된다.

전통미술 뿌리 '불교사상'

진흥섭씨 眉壽 기념집 '신라·고려미술문화'



50년 연구자료·논문 집대성

'특수양식석탑' 등 원류 탐구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한국미술사학계의 거목 진홍섭박사의 미수(眉壽, 80)를 기념하는 〈신라고려시대 미술문화(일지사 刊)〉가 발간돼 눈길을 끌고있다.

〈신라고려시대 미술문화〉는 박사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자 제자들이 뜻을 모아 발간된 책이다.

이 책은 진홍섭박사가 수십년 발굴과 답사현장에서 기록해 두었던 한국미술사의 소중한 흔적들과 당시 현장을 찍은 생생한 사진들로 구성된 6백70쪽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 우리국토에 흩어져 있는 각종 문화재의 원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술사학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제1부 총론에서 필자자신이 반세기동안 걸어온 미술사의 길과 한국미술 전반을 개관하고 있다. 제2부 신라시대의 미술문화에서는 신라북부지방(지금의 경북)이 가지는 문화사적 의의를 탑과 불상 등의 성보를 통해 논파하고 있다.

특히 '통일신라시대 특수양식의 석탑'에서는 돌을 벽돌모양으로 깍아 쌓은 모전석탑과 석탑의 기단부가 대좌형식을 취하고 있는 불대좌석탑, 기단부가 특이하게 한 층으로만 된 단층기단석탑 등을 실제 답사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구성, 특수 양식의 석탑체계를 정리해 놓았다. 제3부 고려시대의 미술문화에서는 고려 불상에 보이는 라마계 양식에 대한 초기논문과 정교하게 조각된 부도와 탑비 등을 통해 석조미술의 새로운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석탑 부도 석등 불상등의 기석과 공예부문의 문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용되어온 장식문양의 일종인 안상(眼象)의 명칭과 기원, 양식도 시대별로 정리했다. 진박사는 '한국의 안상문양'에서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원부분이 뾰족하게 처리된 첨정형(尖頂形) 안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서 "시대를 따라 내부공간에 물상을 첨가하고 화형(花形)을 장식하기도 하였으나 첨정이라는 기본형을 기조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홍섭박사는 또 "신라시대의 불교미술은 아미타신앙을 바탕으로 불상과 탑 조성에 주력한 반면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시대초기의 불교미술은 선종의 영향을 받아 선사들의 부도과 탑비등 선종미술이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선종본산과 지방호족세력과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강원도 강릉, 충북 충주 등에서는 그 지방만의 독특한 불상양식이 성립되기도 했다"며 우리의 미술문화속에 깊숙히 깔린 불교적 사상의 영향을 간파해 내고 있다.

이은자 기자

출판소식

번역본 '삼국유사 1·2'

솔출판사는 나랏말씀 한국학총서 기획시리즈로 〈삼국유사 1,2〉를 펴냈다. 고전번역의 권위자인 이재호 부산대명예교수가 그동안 오역, 졸속편집, 베끼기 등으로 완전한 정본이 없었던 삼국유사를 30년간의 각고 끝에 완벽하게 번역해 냈다. 정덕본(正德本, 1512), 조선사학회본(朝鮮史學會本, 1928), 삼중당본(三中堂本, 1944)등 현재 유통되고 있는 삼국유사판본을 참고해 정밀한 고증을 거쳐 오자, 오식을 모두 바로잡았다.

고려원 법정관리 신청

국내 최대 단행본 출판사로서 1백30여권의 불교관련 서적을 간행한 고려원이 지난달 22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연간 단행본 출판규모가 2백70여종에 매출액 2백억원대가 넘는 고려원은 지난 몇 년간 외국어 어학교재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취청거리기 시작, 이에따른 과중한 광고비 부담등이 경영난을 가중시켰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고려원의 부도로 인해 전국각지의 대형서점을 비롯한 서점업계와 군소 출판사들이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고려원측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한편 제3자 인수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민족사 '불교사랑' 봄호

민족사 사의보 '불교사랑' 봄호(통권2호)가 나왔다.

이번호에는 테마기획 '발우공양'을 비롯, 나의 책 인연이야기 '석성우스님의 한 점 구름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인(人)서점 주인심범섭'씨 등을 담았다.

이밖에 민족사 도서안내와 '새로운 책 새로운 만남'에서 〈한국근대불교사 연수(김광식 저)〉와 〈한국가람의 연구(홍윤식 저)〉를 소개하고 있다.

"직지심경 소장본 찾습니다"

직지찾기운동본부 발족

佛보관본 국내유치 계획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현존하는 세계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경을 찾자는 대대적인 운동이 청주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청주 시민회가 주축이 된 '직지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현문)'는 지난달 25일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직지 찾기에 착수했다.

직지심경이 금속활자본인 만큼 국내 어딘가에 소장본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아래 구성된 직지찾기운동본부은 앞으로 프랑스 국립박물관과 자매결연을 맺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는 우리의 직지를 한국에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소수만이 가지고 있는 직지 영인본을 청주시와 협의를 통해 제작배포해 직지에 대한 전국민의 인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직지관련 강좌개설로 고인쇄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직지가 그려진 전화카드도 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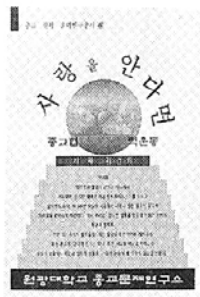
직지찾기운동본부 박근태 간사는 "우리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청주를 세계적인 인쇄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직지찾기운동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직지찾기운동본부는 직지심경을 발견한 사람에게 1천만원의 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0431)273-7887

종교간 적대감·배타성 극복방안 제시

사랑을 안다면 김경태 지음

화제의 책



물질문화의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정신세계는 온갖 범죄와 불행에 빠져있고, 인류의 정신을 인도해야할 종교계조차 서로 적대감으로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이름은 다르지만 제각기 우주의 절대적 진리를 신앙의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사랑을 안다면〉은 현대인들의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쓰여졌다. 특히 '진리는 하나'와 '종교적 교리의 상통성'에서는 종교간의 비협력, 적대감, 배타성등이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와 개인이 극복해야할 30여 가지의 실천방안들은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내용들이다. 이책은 국제적 종교협력운동, 국내의 종교협력 활동, 각 종교 협력운동등 '종교협력운동의 역사'를 부록으로 실었다. (원광대종교문제연구소 6천5백원)

새로나온 책



▲부처님께 다가서는 법사의 고백(목정배 지음)=대한불교법사회 이사장이자 성철선사상연구원 원장인 동국대 목정배 교수의 불교 칼럼집. 불교의 생명사상, 부처님께 다가서는 법사의 고백, 불교의 미래에 대한 연서, 삼성반월과 그 파문, 귀의삼보하는 능동자등 5장에 걸쳐 불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법사로서의 사명감 등을 펼쳐보이고 있다. 〈불광출판부 9천원〉



▲벙어리 절간이야기(중광스님 지음)=독특한 기행으로 유명한 중광스님이 펴낸 수필집. 벙어리 절간은 현재 중광스님이 거처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군에 자리잡은 산골짝 토담집을 가리키는 말. 선문답 같은 문장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보이고 있다. 〈기린원 6천원〉



▲메주와 첼리스트(도완녀 지음)=서울대 출신의 첼리스트 도완녀씨의 솔직담백한 생활이야기. 이 책은 20대 중반의 젊은 시절 독일문화원에서 함께 공부하며 알고 지냈던 조계종 초대 교육국장 돈연스님과 독일 튀빅대학에서 공부한 도완녀씨가 15년 뒤 우연히 다시 만나 강원도 정선의 두타산기슭으로 들어가 보금자리를 틀게된 인연과 사랑이야기를 잔잔하게 서술하고 있다.〈도서출판 다음 7천원〉



▲요가수트라(정창영 송방호 편역)=어떻게 요가를 수행할 것인가를 풀이하고 있는 요가 필독서. 모든 요가 체계의 뿌리가 되고 있는 파탄잘리의 〈요가수트라〉를 읽기 쉽게 번역했다. 자연과 인간을 유기적인 통일체로 보고, 육체와 정신도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인식함으로써 육체와 정신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참자유를 획득하는 것. 그것이 요가의 가르침이자 요가의 정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시공사 8천원〉



▲우리옛글백가지(조면희 옮김)=임춘, 김시습, 이순신, 박지원, 영조대왕 등 널리 알려진 고려 조선시대 명사들의 명문(名文)을 엄선한 책. 〈죽부인전〉 등의 가전체 소설부터 애첩의 죽음을 슬퍼하는 제문, 문학동호회 서문, 일본 국왕에게 답하는 국서, 상소문, 기행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장르를 망라한 1백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선조들의 숨결과 향기를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다. 〈현암사 9천8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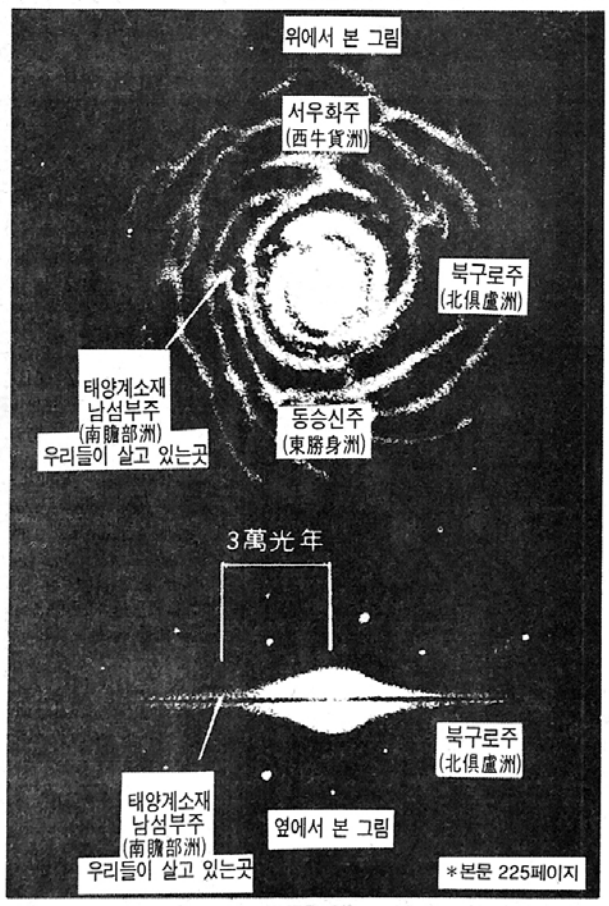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불교입문	포 교 원	조계종총무원
3	힘든세상 도나 닦지	효 림	가 서 원
4	유식입문	다카사키지키도	시 공 사
5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6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7	역사로 읽는 원효	김 상 현	고 려 원
8	살아있는 선	라즈니쉬	성 하
9	삼소굴 소식	명 정	극락선원
10	화엄경 강의	무 비	불 광

구입문의:(02)737-0695

우주공간에 떠있는 네개의 지구:남섬부주,북구로주,동승신주,서우화주



大密旨·大總持가 담긴

道도門문功공課과經경

육신보살 宏敎眞人 柳守元 지음 (晋나라 道士)

도저히 엿볼 수 없는 삼계제천(三界諸天)의 희유한 고급 정보와 차원(次元) 높은 설법자료(說法資料)가 담긴

옛 진인이 만드신 수도(修道)비밀의 묘체(妙諦)

불경(佛經)에 의하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주 잘 발달된 지구(地球)가 우주(宇宙)안에 세개가 더 있다(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합하여 이들 4개 지구에 관한 생활형태등 상세한 비교도표)-우주(宇宙)안에는 서른 여섯개의 하늘나라가 있다(그곳 서른여섯 하늘엔 어떤 분들이 계시며, 각각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에 관한 충실한 정보) - 구품련대(九品蓮臺)에는 금선(金仙)·천선(天仙)·신선(神仙)을 합하여 모두 21만명의 산불(仙佛)이 계신다 - 중국에서 더욱더 유명하게 잘 알려져있는 우리나라 신라사람인 지장보살(地藏菩薩)과 김가기진인(金可記眞人), 그리고 해인사에서 우화등선(羽化登仙)하신 최치원선생(崔致遠先生)에 관한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세분의 역사기록과 스님으로서 유학자(儒學者)로서 도학자(道學者)로서 닦아 진인을 이룬 64분의 열선전기(列仙傳記)와 10位 불보살전기(佛菩薩傳記)가 빠짐없이 담겨져 있는 백과사전 (百科事典)이다. - 대라천(大羅天)을 위시하여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이 계신 극락천(極樂天)·공자(孔子)님이 계신 유교극락 수정천(水精天)·예수님, 마호메트가 계신 천당 미라천(彌羅天)에 관한 자세한 자료가 이책에 있다.

말겁(末劫)이 도래(到來)하여 사라질 위기에 처한 화성(火星)사람들 얘기와 앞으로 지구가 처할 말겁(末劫)을 적나라(赤裸裸)하게 설파한 혼원포대경(混元布袋經) 원문 대역판도 실려있으며, 어떻게 수행(修行)을 하여 사리(舍利·丹)가 이루어지는가, 삼혼칠백(三魂七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인체(人體)내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 각종 암(癌)등 모든 질병(疾病)을 일으키며 사람을 사망(死亡)케 하는 초정밀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삼시구충(三尸九蟲)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생겼는가, 인체(人體)의 경락·호흡·오장육부·기공의 수행법등에 관한 자세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 이 한권 속에 어느 누구라도 간단히 산소(山所) 명당(明堂)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비결(秘訣)과 잉어·개고기를 왜 먹어서는 안되는가라는 등의 청구재계(淸口齋戒) 우월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도문공과경(道門功課經)은 유교(儒敎) ·불교(佛敎)·도교(道敎)에 관해 알고 싶은 사람이거나, 이미 유·불·선·(儒·佛·仙)을 믿고 있는 사람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교파(敎派)를 초월하여 꼭 읽어봐야 할 비교종교학(比較宗敎學)의 모서(母書)이며 설법교재(說法敎材)이다. 불경(佛經)등 36종류 총207권을 동원하여 참고로 충실히 번역하고 주해(註解)하여 편집한 누구나 보아야 할 삶의 지침서(指針書)이며 감히 하늘을 엿볼 수 있는 정확한 정보교과서(情報敎科書)이다. 이 소중한 도문공과경(道門功課經) 한권이 당신의 운명(運命)을 찬란하게 바꾸어 줄 것이다.

가보(家寶)로 전(傳)할 만한 비결정전(秘訣經典)
이 도문공과경(道門功課經)이
바로 지금까지 수천년간 황금덩어리로
파묻혀 방치돼 있었던 신비의 책
도가(道家)의 천수경(千手經)이다



고급양장제본/케이스入/定價 上中下98,000원

주문 및 문의

도서출판 淸 靜

(우)150-1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140
전화 (02)635-2889, 671-2389
팩스 (02)671-2306
온라인:국민은행 049-01-0518-775 청정출판사

팔리·범어 연구 '거북걸음'

원전교육 재정·전문인력 태부족
유학승 파견·'외국어학림'에 기대

최근 부처님의 원음(原音)이 담긴 경전을 직접 읽으려는 모임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해줄 내실있는 전문 연구기관이 조속히 설립되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부처님 원음이 담긴 경전이란 부처님 재세(在世) 당시와 근접한 시기에 통용됐던 언어로 쓰여진 산스크리크어·팔리어 경전을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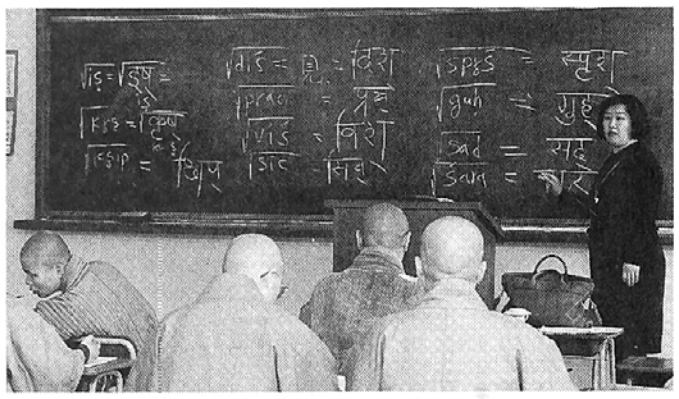
국내에서 원전에 대한 연구·교육은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 불교원전번역연구소(소장 최봉수), 중앙승가대, 동국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연구기관의 축적된 연구가 취약한 국내 여건으로 이들 연구·교육기관은 〈범어 30일 학습〉〈범어개론〉 등 기초적인 언어교육에 머물러 있다는 평이다. 그중에서 〈구사론〉〈회정론〉 등 범어논서를 강의하고 있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과 원전번역연구소가 그나마 논서강독과 경전번역 등 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재원부족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깊이있는 연구·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영국에서는 이미 백년전인 1881년 T.윌리엄이 팔리어 경전과 주석서를 번역 출판하기 위해 '팔리성전협회'(Pali Text Society, PTS)를 설립하고, 1882년 첫 학회 논집을 발간한 이래 지금껏 활동하고 있다. PTS는 원전을 수집해 편집하고 번역하는 한편 논장·불교문화·역사·예술 등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해 나아가고 있어 불교학 연구에 지대한 도움을 주어왔다.

영국에선 이미 1백년전
팔리성전협회 설립
원전번역연구 활발

현재 불교학계는 영국의 PTS와 같은 전문연구기관이 국내에도 설립돼야만 미개척분야인 원전연구·교육분야를 보다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뒤늦게야 종단이 원전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뛰어든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스님)은 '해외유학생파견제도'와 영어·일어·중국어 등의 교육을 담당할 '외국어 전문학림'을 통해 원전연구와 외국의 선적연구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지만 이 제도가 결실을 맺기 위해선 몇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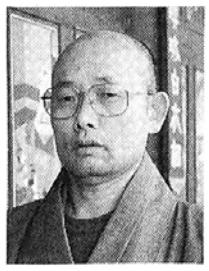
◇국내 원전연구·교육은 기초적인 언어교육과 강독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취약하다. 사진은 중앙승가대 '범어강독' 교육 현장.

한편 원전과 관련해 번역·주석서 등이 전무했던 불교출판계에서도 팔리경전 중 〈마하박가〉가 기획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NDPS(나란다 데바나가리 팔리 시리즈, 인도)를 본(本)으로 번역과 주석으로 엮어질 〈마하박가〉는 〈유마경〉을 출판한 '시공사'가 올해안으로 출간할 계획이다.

오종욱 기자

나와 경전 1

유행경



혜 남
〈불전국역연구원장〉

나는 본래 여행을 좋아하여 수좌생활을 할 때에는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다. 그때마다 부처님은 수행시절에 어떠한 곳에서 수도하셨으며 성도하신 뒤에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어떤 곳을 다니시며 어떠한 방법으로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법문을 하셨을까 하고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다.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 우연히 〈붓다 최후의 여행〉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팔리어성전 〈Mahaparinibbna-suttana〉를 번역한 것이었다. 한역경전으로 말하면 〈장아함경〉 가운데 나오는 〈유행경〉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행경〉에는 내가 궁금해 하던 부처님의 교화와 방편법문이 옛날이야기처럼 구수하고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어 마치 소설을 읽듯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대강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부처님이 기사굴 산중에 계실 때 마갈타국의 임금이 발지국을 정벌하기 위해 부처님의 의견을 물었다. 부처님은 발지국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정사를 협의하고, 임금과 신하가 서로 존경하며, 법을 받들고 예절을 지키고,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스승을 받들며 선조를 잘 모시고, 가정부인이 정숙하며, 사문을 섬기고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을 공경하는 등 일곱가지를 잘 실천하고 있다면 그 나라는 번창할 것이니 함부로 정벌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셨다. 이 부분은 요즘처럼 한 보사건, 각종 부정범죄사건 등으로 얼룩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새겨 읽어야 할 부분이다. 우리들이 발지국 사람들 처럼 서로 존경하고 항상 의논하고, 법을 받들어 생활한다면 오늘과 같은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부처님은 마갈타국의 임금이 돌아간 뒤에 수행자에게도 일곱가지 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예를 들어 설법하며 여러곳을 계속 유행하신다. 그러던 중 중병을 얻게 된 부처님은 열반에 들고 싶은 심정이 되지만 아직 열반의 때가 아님을 아시고 생각을 가다듬어 선정에 들자 병은 곧 물러간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실지로 보이신 부분이다. 우리몸의 병과 괴로움도 결국은 마음, 즉 우리 자신에게서 연유하고 또 해결된다는 것을 부처님은 법문 아닌 법문으로 설하고 있다.

선정에서 깨어난 부처님은 아난을 불러 수행을 잘 이겨낸 사람은 일겁이나 그 이상이라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아난은 예사로 흘려들어 부처님이 세상에 머물기를 청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3개월후에 열반할 것을 말씀하신후 아난과 대중에게 37조도품과 계정혜, 해탈과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법어를 주신다.

옛날의 조사스님들은 밝은 대낮에도 '아이고 어두워라' 하시며 등불을 들고다녔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우리 인간세계가 밝은 진리의 법을 따르지 않고 삿된 어두움쪽으로만 치우쳐가는데 대한 우려이다.

부처님 또한 열반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한말씀으로 수행자의 나아갈 바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대장장이 춘다의 독버섯 공양을 받고 열반 순간에 임박해서도 부처님은 춘다를 위로하며 부처님이 처음 성도하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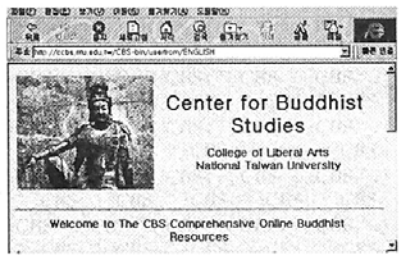
부처님 최후 여행모습 소설처럼 서술
"모든것 변한다…수행 게으르지 말라"

때 올린 최초공양과 열반 직전에 올리는 최후 공양의 공덕이 가장 수승함을 설하신다. 참다운 공양은 사람이 능히 불법을 수지하여 실행하고 항상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부처님은 아난에게 마지막 제자인 스탓다를 받아들이라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남긴채 열반에 드시는데 이 경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다비로 생긴 사리를 분배해 탑을 세우는 일까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같은 이야기를 통해 〈유행경〉은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므로 항상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수행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유행경〉은 대승 〈열반경〉이 부처님을 지나치게 신격화 한 것에 반하여 '피로하다' '눕고싶다' '물이 마시고 싶다'는 등 老수행자의 마지막 모습을 마치 앞에서 보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어 인간미가 곳곳에서 느껴지는 초기경전이다.

중앙승가대학에서도 지난해부터 한역본 〈유행경〉을 경전강독시간에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불자여러분들에게는 한글대장경 〈장아함경〉에 수록돼 있는 〈유행경〉을 권하고 싶다. 한줄 한줄 읽어내려가며 그 옛날 부처님의 생생한 가르침을 마음으로 새겨본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대만 불교연구 자료 열람…고대어 학습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대만국립대 불학硏

대만국립대가 운영한 인터넷 사이트 '불학연구소'는 대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교관련 연구와 연구소에서 자체 제작한 멀티미디어 불교자료를 공개해 놓고 유럽, 일본 등지에 개설된 불학연구소와 통신망을 통해 긴밀한 교류를 꾀하고 있는 사이트.

특히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비롯해 해외 불학연구소와 교류된 자료를 일반 불자네티즌에게 공개해 주고 있어, 심도있는 불교학의 자료 및 연구서를 구할 수 있는 곳. 이곳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정보는 △학술자료 △경전 △일반자료 등으로 '학술자료'에서는 참고문헌정보를 비롯해 학술잡지와 불교도서목록 등의 자료을 열람할 수 있다. 경전에는 불광대장경 외에도 산스크리트·팔리·티벳경전에 관한 정보도 구할 수 있다. 특히 '일반자료'에서 제공한 '고대어학습'이 다른 사이트에서 찾아보기 힘든 서비스. 이것은 산스크리트어·팔리어·티벳어 등을 공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과제학습을 제공해준다.

'불학연구소' 주소 : http:\\ccbs.ntu.edu.tw\CBS-bin\

"南無佛칭명 정토왕생 발원"

태원스님 박사논문 '염불의 원류와…'



수행법 가운데 가장 널리 보편화된 염불의 기원을 탐구하고 사상적 변천을 고찰한 논문이 처음 나왔다.

태원스님은 경도불교대학(日) 박사학위논문 '염불의 원류와 전개사'에서 초기 정토경전인 〈대아미타경〉과 〈평등각경〉 등에서 믿음에 의한 보살도 실천으로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표현이 후기 정토경전 〈여래회〉에서는 믿음(信)과 발심이 근본이 되어 부처님의 이름을 읊조릴 때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변천된 염불의 기원을 밝히고 있다.

부처님을 부르는 칭명(稱名)은 입단귀의의식인 '나무불'(南無佛)에서 비롯됐다. 석존을 향해 '나무'(南無, Namas)라고 부르는 감흥어가 서방을 향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칭명사상으로 발전했고 〈법화경〉에서는 '나무석가모니불'로 발전됐다.

인도의 용수(龍樹)는 이러한 정토사상을 더욱 대중화 해 부처님의 명호만 부르면 깨달을 수 있다는 칭명(稱名)염불을 주창해 누구나 실천하기 쉬운 염불의 대중화를 꾀했다. 중국으로 전해진 염불사상은 AD 520년경 달마조사에 의해 중국에 들어온 선사상과 융합해 염불과 선을 함께 수행하는 '선정겸수'로 발전했고 한국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다.

태원스님은 "중국 초기에는 염불이 현세 부처님 친견을 목적으로 하다가 담란과 도작선사에 의해 내세 극락왕생을 목적으로 한 칭명사상의 순수한 정토염불로 변화됐다"면서 "법조, 승원, 자민선사에 이르러 통불교적인 사상으로 발전한 염불은 모든 수행법을 융합해 깨달음에까지 목적을 두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학술단신

한국종교논집 등 발간

원광대 산하 한국종교연구소(소장 류병덕)와 백련불교문화재단 부설 성철선사상연구원이 각각 〈한국종교논집21호〉과 〈백련불교논집〉을 발간했다.

〈한국종교논집21호〉에는 류병덕, 김흥철, 양은용교수 등이 공동으로 연구한 '호남지역의 진묵(震默)신앙 유포현황과 그 민중적 성격'을 비롯해 '대승기신론'(김광룡) '한을 통해 본 지눌의 사상'(김창구) '현대 중국의 종교법제' 등 논문 12편이 수록됐다.

제5, 6권 합본된 〈백련불교논집〉에는 '조당집 來·法의 연구'(박영록) '당대후기 유학과 종말의 원인론 비교'(리기웅) '불교소설의 구성원리와 타계의 상관성 연구'(김진영) '성리학 형성에 있어 불교의 역할에 관한 연구'(정성희) '경허의 선사상'(한동광) '임제의 참사람 연구'(김태완) 등 15편의 논문이 실렸다.

대승기신론 강좌 개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은 원효스님의 〈대승기신론〉과 〈한국불교금석문(고려편)〉 강좌를 개설한다. 지관스님이 강의할 이번 강좌는 〈대승기신론〉이 격주 목요일에 개설되고, 〈금석문〉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된다. (02)765-9602



현대불교 생활정보

본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정보란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정보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상품

보리수

- 취급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 : 778-5345,
팩스 : 777-1917

神祕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 학생적성

☎전화 :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硏究所

좌골신경통

본원 비방으로 3회끝

전화 : (주)543-7306
(야)711-4370

전문시술원 院長 張三洙

간경화 정신질환

神病, 病名없는 病, 완치보장

불교 0552-82-8128,8118
사찰 H.P 011-559-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보은암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 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불 미 불 사

사암의 외부에 모시는 석불, 석탑, 석등(돌)대신, 청동부처님, 청동탑 청동등(청동)으로 조성해 드립니다. 청동불사를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 사암의 스님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일자를 정해 본인이 직접 찾아 뵙고 원하시는 상호, 도안과 주위 조경 견적까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0331/282/2931
H.P
011-211-2931
삐삐
015-8415-2931

탁자, 달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함천(해인사) :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 대웅전 수미단 달집 문짝
- 서울(백화사) : 법당 수미단 응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 대웅전 문짝 달집
- 포천(약천사) : 대웅전 문짝 달집
- 단양(천진사) : 대웅전 수미단 달집 경탁 경상
- 서울(학림사) : 회관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 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佛子任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般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事業은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敎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선착순 한정본(품)
●주문 신청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雲藏 法師 禪筆 硏究會
☎ (02)242-0331 · 242-0225

氣치료(조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사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행동하는불교 실천하는불교
해동불교산악회
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4월6일 산행
가는곳: 용마산(경기도 광주)
모이는곳: 강변역 09:00

해동불교산악회 합장
연락처 (02)903-8976
375-2254

不老化精 안내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증 사람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엄재(검은엑)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밥에 맴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십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맑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如來健康院 合掌
☎ 053)655-2227

사찰안내

사찰구함

▶ 지역 : 안양, 경기부근
▶ 금액 : 1억원
▶ 산을 끼고 있으며 전세도 원함

연락처 0331/32-6262

사찰안내

10여년 정성으로 살아온 도량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부득이 양도하고자 합니다.
표교와 노후를 위해서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연락처 011-279-4600

포교당안내

포교당 안내

■위 치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평 수
30평 (법당, 방2)
■보증금 : 1,000만원
(월세 45만원)
■시설비 : 1,000만원

연락처 (0346)68-6553
015-165-4488

포교당 안내

▶ 50평 시설 일체 완비
▶ 보증금 3000만원
※ 기타절충

연락처 (02)248-0479

포교당 안내

■위 치 : 천안 신터미널
■평 수 : 40평
■보증금 : 3천5백
최고의 시설·가격절충

연락처 (0418)42-3232

기타정보

학 생 모 집

▶ 포교교육과 : 동양종교, 종교음악, 역학지도
▶ 유아교육과 : 유아교육, 유아놀이, 아동미술, 생활미술
▶ 종무행정 : 상담실무, 상담행정, 생활상담

1. 수료후 수료증 수여 및 자격증 (포교사, 법사, 유아지도자, 상담사, 역학사) 취득가능
2. 소형버스 통학가능
3. 충북괴산에서 월 2회~4회 강의(교육청 인가 57호)

연락처 (02)931-6075~6 (0582)535-1987

만대교학대학원

귀의 삼보 하옵고
마이산 도화지처럼
맑고 깨끗한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참다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제작한 불고그림등 화(원색)책답을 외
시계 바라밀원 단행본 「부처님이대기」
가 재판발행하였읍니다. 앞으로 더욱 더 정진,
노력하겠읍니다.

불교에 관한 출판(소설, 시, 수필)및 사찰에 필요한 일반 홍보물등을 의뢰하시면 성심 성의껏 기획·제작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원 tel(02)932-6327, 937-5759

염불전용녹음실

- 세계 최신녹음 장비
- 경력 30년의 녹음기술
- 염불 녹음 하실 스님
- 비용 때문에 망설이신 스님

그러나 주저마시고 연락주세요
저도 출가 사문입니다.

연락처 0417/551-1562
신선암 주지 김광덕 합장

제3회 능인법회

봉선사 서울포교당 광명선원에서는 매년 능엄경 강좌를 개설·스님 및 불자를 대상으로 능엄세계를 펼치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강 사 : 송찬우교수(중앙승가대학)
·일 정 : 불기 2541년 4월14일(월)개강~9월29일까지
오전11시 - 12시 30분
매주 월요일 (6개월과정)
·교 재 : 능엄경 주해
·강의료 : 십만원
문 의 : (02)584-1108 · 587-3753

봉 선 사
서울포교당 광명선원

생활정보문의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02)737-0697 팩스

- 생활용품
- 불교관련용품
- 자체홍보
- 각종행사
- 개인업체
- 정보교환 소식
- 안 내
- 신상품소개등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책방 여시아문 특별 판매전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 드리는 마음으로 불서를 포함한 문학, 인문, 교양 서적 등 총 150여 종의 책에 대해 특별 판매를 실시합니다. 특별 판매 기간의 구매 고객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없는 양서들,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십시오.

교양(인문, 사회, 자연, 건강, 환경)

21세기 인간과 공학/김태유 외 16인/7,000원/고려원
잘못 알려진 건강 상식/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5,000원/한울
사람됨의 뜻/이규호/3,500원/제일출판사
말의 힘/이규호/4,000원/제일출판사
도대체 사람이란 무엇인가/손보기 외 17인/6,000원/뿌리깊은나무
김치 한국인의 먹거리/지영하/5,500원/공간
인간은 만물의 척도인가/루번 아벨/3,000원/고려원
세계 환경 정치/개러드 포터/9,500원/돌베개
몬드라곤에서 배우자/윌리암/6,800원/나라사랑
사후생/엘리자베스 퀴블/4,500원/대화출판사
인류의 기원/리처드 리키/6,800원/동아출판사
우주의 기원/존 배로우/6,800원/동아출판사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베르나르베르베/6,500원/열린책들
조선 호랑이 이야기/이가원/5,500원/학민사
한자 똥침 놓기 1·2/갑정보/각5,500원/서울문화사
전파로 본 우주/모리토모 마사키/5,000원/전파과학사
거꾸로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유시주/5,000원/푸른나무
천연의 고독 티베트/곽귀훈/6,500원/글나무
과학과 사상(계간)/각권 4,500, 5,500, 6,500원
역사비평(계간)/각권 4,000, 5,400, 6,500원
대우 학술 총서/민음사
세계 사상 시리즈/삼성출판사
인간과 철학 시리즈/예하
위대한 철학자들의 사상/윌리엄 마블사하/6,000원/문예출판사
세속적 인간과 비세속적 인간/라인홀드 니버/4,500원/문예출판사
모국어와 정신 형성/ L.바이스 게르버/11,000원/문예출판사
지구는 우리의 조국/에드가 모랭/6,000원/문예출판사
우리의 학맥과 학풍/이한우/8,000원/문예출판사
탁월한 지혜/카프라/4,500원/범양사출판부
가이아/러브록/3,500원/범양사출판부
가이아의 시대/러브록/5,600원/범양사출판부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카프라/6,000원/범양사출판부
카오스에서 인공 생명으로/마셜 윌드콥/12,000원/범양사출판부
재미 세계 여행/베르트 휜도블러/18,000원/범양사출판부
사랑의 학교(상·하)/이원복/각5,000원/사랑의학교
빛깔과 향기가 있는 인간형을 찾아서/이원복/5,000원/사랑의학교
세계 문학 속의 동양사상/김현창/13,000원/서울대출판부
역사의 재조명/한림과학원/3,500원/소화
인도 독립 투쟁/나이르/3,500원/일월서각
한국인의 윤리 의식 연구/정신문화연구원/4,100원
평생 교육 체계와 사회교육/정신문화연구원/4,200원
개인과 국가/정신문화연구원/3,500원
전통적 생활 양식의 연구/정신문화연구원/3,400원

문화·종교

한국인과 일본인1~4/김용운/각6,500원/한길사
작은 인간/김찬호/9,500원/민음사
문학과 종교의 만남/김영호 외/7,500원/동인
일본인과 한국인의 의식 구조/김용운/5,000원/한길사
한국인의 가정 교육/박필수/9,300원/문음사
한국인의 한/최길성/7,000원/예전사
한국인의 사상/고익진/7,000원/열음사
중국 문화의 이해/이수웅 외/10,000원/대한교과서
한국의 조상 숭배/최길성/7,000원/예전사
문화란 무엇인가/크리스 잰크스/7,500원/현대미학사
한국의 나무 문화/송홍선/10,000원/문예산책
한국의 풀 문화/송홍선/10,000원/문예산책
당신을 도구로 써 주소서/문일석/5,500원/신라원
전세계 가정에서/요한 바오로 2세/5,500원/장락
철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김수환/5,000원/사람과사람
중국 종교와 그리스도교/줄리아칭/7,000원/분도
종교와 상징/이은봉/5,000원/세계일보
인간과 신앙/유원엽/6,000원/교육과학사
종교와 이데올로기/김성건/5,000원/민영사
열린 종교를 위한 단상/오강남/6,500원/열린책들
기적의 역사/신호범/6,500원/삼과꿈
실학과 그리스도교의 만남/김환철/10,000원/나단
한국의 시원사상/박동숙/8,000원/문예출판사
동양의 명상과 서양의 심리학/존 웰우드/4,500/범양사출판부
주역과 한국 역학/한국주역학회/13,000원/범양사출판부
일본의 불교/김진만/4,200원/소화
일본 문화의 숨은 형/김진만/3,800원/소화
다도와 일본의 미/구마무라 이사오/3,800원/소화
불교와 중국 지성사/아서F. 라이트/4,200원/예문지
플라톤과 우파니샤드/바실리스/3,000원/문예출판사
과학과 불교의 실제 인식/열런 윌리스/4,000원/범양사출판부
종교 문화의 인식과 해석/정진홍/13,000원/서울대출판부
강좌 인도 철학/마이소르/4,800원/예문서원
철학적 신앙/칼 야스퍼스/3,400원/이대출판부
종교 사회학/토마스/5,000원/이대출판부
종교 철학/브루스 라이헨박/12,000원/이대출판부
종교와 인간/서광선/6,000원/이대출판부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임마뉴엘 칸트/10,000원/이대출판부
신비주의와 종교/로버트 엘우드/8,500원/이대출판부
기독교와 마르크시즘/제임스 벤틀리/5,000원/일월서각
사회주의적 종교 비전/김재상/5,000원/일월서각
영겁의 인연/이선재/3,000원/일월서각
선과 아미타경/현재훈/2,200원/일월서각
실천 불교 3, 4/윤호진 외/3,800, 4,000원/일월서각
불교에의 길/현재훈/3,000원/일월서각
유교 정치와 불교/한우근/15,000원/일조각
신라사상사 연구/이기백/12,000원/일조각
고려 후기 불교사 연구/채상식/8,000원/일조각
융 심리학과 동양 종교/융/8,000원/일조각
한국 선사상 연구/한기두/18,000원/일지사
카필라의 아침/파디넌드 헤롤드/2,000원/일지사
조선조 종교 사회사 연구/황선명/9,000원/일지사
한사상과 민족 종교/한기두 외/5,800원/일지사
한국 문화론(현대편, 상고편)/전경수/10,000원 8,000원/일지사
지눌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정신문화연구원/5,000원
율곡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정신문화연구원/9,500원
종교의 철학적 이해/김형석/5,000원/철학과현실사
새로운 불교의 해석/김진/5,000원/철학과현실사

재미있게 읽는 역사

한국사 시민 강좌/각4,000원/일조각
아, 고구려 1/조선일보출판국/6,000원/조선일보
한국사의 주체적 인물들/이이화/8,500/여강
한국사 기행/심경호/6,000원/법우사
삼국유사의 현장 기행/이하석/6,000원/문예산책
이야기 중국사/김학영/6,000원/청아
일연의 꿈, 삼국유사/조성기/5,500원/민음사
환단고기/계연수/6,000원/한뿌리
신단민사/고동영/6,000원/한뿌리
한국 상고 군사사/고동영/6,000원/한뿌리
단군을 찾아서/이형구/5,000원/살림터
단기고사/고동영/6,000원/한뿌리
단군 조선 47대사/고동영/6,000원/한뿌리
규원사화/고동영/6,000원/한뿌리
나라 역사 육천년/안호상/6,000원/한뿌리
신단실기/김교헌/6,000원/한뿌리
이야기 미국사/청솔역사교육원/6,000원/청솔
이야기 인물 한국사/이현희/7,000원/청아
이야기 세계사2/구학서/6,000원/청아
단군/윤이흠 외/15,000원/서울대출판부
한국의 신화/김남규/6,000원/일조각
삼국사기 연구/12,000원/일조각
한국 설화의 유형/조희웅/1,5000원/일조각
우리 역사의 여러 모습/이기백/9,000원/일조각

문화 유산의 해 특선

한국의 암각화/한국민속역사학회/15,000원/한길사
한국의 불상/황수영/15,000원/문예출판사
한국의 도자기/정양모/25,000원/문예출판사
한국의 전통 건축/장경호/35,000원/문예출판사
한국 도자기사 연구/윤용이/25,000원/문예출판사
한국 회화의 전통/안휘숙/20,000원/문예출판사
한국의 석조 미술/25,000원/문예출판사
북한 사찰 연구/한국불교종단협의회/10,000원/사찰문화연구원
한국 고미술의 이해/김원용/3,500원/서울대출판부
한국의 종/염병하/25,000원/서울대출판부
한국 가면극/이두현/20,000원/서울대출판부
한국 미술사/김원용 외/28,000원/서울대출판부
한국 불교 음악 연구/한민영/10,000원/서울대출판부
한국의 건축/윤장섭/36,000원/서울대출판부
석불사(토함산의 중각 석굴)/남천우/6,000원/일조각
한국 고대 불교 조각사 연구/2,000원/일조각
한국 미술사 연구/김원봉/2,000원/일지사
한국 미술사 자료집성 1,2,3/각 25,000원/일지사
한국 고고학 개설/김원용/7,000원/일지사
한국 미술사 연표/진홍섭/12,000원/일지사
한국 회화사/안휘준/12,000원/일지사
한국 전통 목조건축 도집/2,000원/일지사
한국의 불상/진홍섭/10,000원/일지사
서역 불교 조각사/임영애/14,000원/일지사
금강산도 연구/박은순/20,000원/일지사
한국 불탑 100선/6,300원/일지사
한국 백자 도요지/7,000원/일지사
불교사(한국의 사찰1)/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석굴암(한국의 사찰2)/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신라의 폐사 I (한국의 사찰3)/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통도사(한국의 사찰4)/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범주사(한국의 사찰5)/한국불교연구원/2000원/일지사
송광사(한국의 사찰6)/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해인사(한국의 사찰7)/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화엄사(한국의 사찰8)/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부석사(한국의 사찰9)/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금산사(한국의 사찰11)/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신라의 폐사 II (한국의 사찰12)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월정사(한국의 사찰13)/한국불교연구원/2,000원/일지사
낙산사(한국의 사찰14)/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전등사(한국의 사찰15)/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신륵사(한국의 사찰16)/한국불교연구원/2,000원/일지사
북한의 사찰(한국의 사찰17)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법어사(한국의 사찰18)/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별기/은정희/12,000원/일지사
강릉 단오굿(한국의 굿19)김선풍/4,000원/열화당
강사리 범굿(한국의 굿11)/하효길 외/3,500원/열화당
거제도 별신굿(한국의 굿16)황루시/5,000원/열화당
경기도 도당굿(한국의 굿2)/황루시 외/4,000원/열화당
경복궁/이기웅/4,000원/열화당
경주 남산/장순구/120,000원/열화당
경주 남산의 탑골/윤경렬/3,000원/열화당
고려 불화/문명대/3,500원/열화당
광언(화락의 연구)/김학현/5,500원/열화당
꼭두각시놀이/서연천/4,500원/열화당
덕수궁/이기웅/3,000원/열화당
동양 미술의 감상/문명대 외/5,500원/열화당
동양 미학/토머스 먼로/4,000원/열화당
동양화 일천년/허영환/5,500원/열화당
만다라/김용환/6,000원/열화당
불교 미술/디트리히젝첼/8,000원/열화당
석굴암/황수영/4,500원/열화당
장승/이종철/20,000원/열화당
종묘/이기웅/3,000원/열화당
창경궁/이기웅/3,000원/열화당
창덕궁/이기웅/5,000원/열화당
탑/김희경/5,500/열화당
한국 문양사/황호근/4,500/열화당
한국의 목공예(상)/이종석/9,000원/열화당
한국의 나무탈/심이석/7,000원/열화당
한국의 목공예(하)/이종석/9,000원/열화당
한국의 불화/문명대/5,000원/열화당
한국의 장승/이상일/1,500원/열화당
한국 조각사/문명대/9,000원/열화당

문학(시, 대하·역사 소설)

백두산/고은/3,500원/창비
풀꽃은 꺾이지 않는다/조태일/창비
바다의 눈/김명수/3,500원/창비
다시 그리움으로/박재삼/4,000원/실천문학
늪은 산/장용철/4,500원/실천문학
소설 남/김지하/각4,500원/솔
토지/박경리/각7,000원/솔
대한제국침략사/고원정/각2,500원/현암사
임꺽정/홍명희/각4,500원/사계절
우암 송시열/홍경호/각5,000원/신구미디어
한국지/김정산/각 6,000원/민예당
백두산/최병탁/각4,800원/두로
정관정요/나채훈/각5,000원/한림원
황제내경/강영수/각5,000원/명성원
흔불/최명희/각6,000원/한길사
삼국지/나관중/각 5,500원/민음사
아리랑/조정래/각6,300원/한길사
소설 천자문/박소천/각5,000원/현일사
대원군/유주현/각4,500원/신원문화사
퇴마록/이우혁/각5,500원/들녘
소설 고구려/교양역사소설편집위/4,500원/참빛
조선왕조(상)/교양역사소설편집위/4,500원/참빛
수호지/이문열/각5,500원/민음사

어린이

사랑과 지혜가 담긴 동화 시리즈/정상구/3,800원/서광사
우리들의 환경 파수꾼/김동근/4,800원/푸른나무
푸른별의 환경 파수꾼/문병식 외/4,200원/푸른나무
명태 선생님의 환경 교실/김동근/4,200원/푸른나무

책방 여시아문의 통신 판매 서비스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통신 판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팩스로 주문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라도 즉시 보내 드립니다.
(무료로 책을 부댐)

전화 (02) 737-0695, 732-1521 팩스 (02) 737-0696
온라인 계좌번호 : 국민은행 006-21-0559-439 예금주 조동규
서울은행 15504-3385504 예금주 조동규
농 협 053-01-226498 예금주 조동규

사찰주말농장

"무상 분양 합니다"

"30년 남짓 직장에 매여있다보니 아내에게 소홀했어요. 퇴직하면서 아내와 있는 시간을 늘리고 정서적으로 절과도 가까워지고 싶어서 주말농장을 분양받았습니다. 같이 땅을 일구면서 건강도 다지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노년에 얻은 부부의 기쁨이랄까요."

조형진(57·자영업·서울 서초구 서초동)씨는 지난해 충북 음성 미타사(주지 명안)에서 분양받은 '희원농장'을 일구면서 오랜만에 부인에게 점수를 얻었다. 처음엔 "늙어 사서 고생이냐"며 내키지 않아하던 부인이 함께 흙을 고르고 채소를 키우면서 농사재미에 푹 빠져 더 적극적이 되었다. 이 부부는 올해도 누구보다 먼저 주말농장을 예약했다.

박선희(31·주부·부산 기장군 기장읍)씨도 작년에 이어 올해 자비마을(주지 본원)의 '자비농장'을 신청했다. 벌레만 보면 기겁을 하던 아이들이 '주말농군'이 된 뒤 배추 벌레를 잡을만큼 대범해지고 감수성이 풍부해진 것이 또하나의 수확이다. 지난해에는 직접 기른 율무로 염주를 만들어 관매해 스님들의 장학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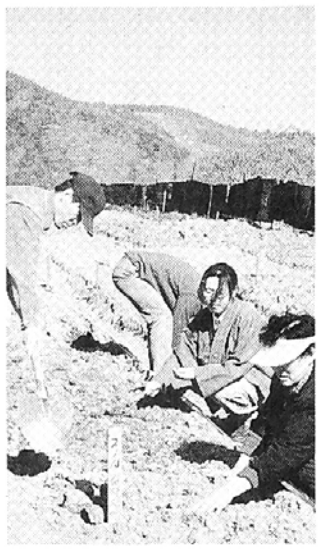
선암사·미타사 등 교계 6곳 운영
파종·농산물 품평회 등 행사 다채

봄을 맞아 활기를 띄고 있는 사찰 주말농장이 불심을 일구는 열린 포교공간이자, 직접 농사를 짓고 소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제 2의 생활터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또한 자녀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삭막한 도시 콘크리트 숲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불자가족의 화합과 레저를 위한 공간으로 큰 인기이다. 사찰 주말농장은 93년 농협이 전국민을 상대로 희망농장을 대중화한 것에 비해 2~3년 늦게 출발했다. 그러나 신행과 레저생활을 함께할 수 있다는 점과 맞물려 참여하려는 사찰과 불자들의 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주말농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불교계에는 부산 선암사 '주말농장',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은빛농장', 충북 음성 미타사 '희원농장', 경기도 안성 도안사 '선농원', 부산 자비마을 '자비농장', 한국불교교육원 '사슴뜰' 등 6곳의 주말농장이 있다.

무상분양되는 곳이 대부분인 사찰 주말농장은 배추 쑥갓 상추 무 등 채소 씨앗과 농기구를 사찰측이 제공한다. 또 스님이나 농촌지도자들이 직접 기술지도를 해주는 것은 물론 평상시에는 사찰측이 재배관리도 해주어 농사기술 없이도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또 올해에는 '주말농군'들을 대상으로 봄철 씨앗파종행사, 여름철 자녀들 그림그리기행사, 우수농산물 품평회 등 다양한 기획행사도 계획하고 있어 더욱 활기를 띌 전망이다.

도필선 기자



◇사찰농장에서 파종하며 봄을 맞는 불자농군이 늘고 있다.

◇교계 주말농장 연락처

사 찰	농장명칭	분 양 안 내	연락처
선암사	주말농장	세대당 3평 무상분양	(051)803-7573
자비마을	자비농장	휴농 중 무상분양	(051)505-8396
도안사	선농원	5평에 3만원	(02)598-5291
미타사	희원농장	배나무 한그루 10만원	(0446)72-2928
속초사회복지관	은빛농장	노인대상 무상분양	(0392)31-8761
한국불교교육원	사슴뜰	휴농 중 무상분양	(02)264-4567

13일 송광사일대 유적답사

선덕사(주지 행법) 어린이유적답사단이 13일 '십리 벚꽃길과 함께 열린 절 문'이라는 주제로 전주 송광사 일대 유적답사에 나선다. 94년 호남지역 유적순례를 시작으로 스무번째 떠나는 어린이유적답사단은 송광사와 벚꽃길, 위봉산성 위봉사를 돌아본다.

이번 유적답사에서는 만개한 벚꽃의 봄향기와 함께 소리없이 전해질 송광사, 위봉사의 경건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체험한다. 출발은 13일 오전 9시 광주 동구 산수동 두암타운 맞은편에서. 참가비는 2만원이다. (062)263-4660

청소년 봉사학교 12일 개강

청담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혜성스님) 청소년지원봉사학교가 12일 오후 2시 개강한다. 청소년봉사학교에서는 공부방·환경·후원봉사 중 신청자별로 소그룹을 이뤄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환경봉사팀은 쓰레기줍기 및 분리수거, 벽의 낙서 불법부착물 제거, 무공해비누와 환경포스터 제작배포, 환경시설 견학 등의 봉사활동을 펼친다. 또 후원봉사팀은 지역내 독거노인방문, 헌혈봉사, 장애체험, 수화배우기의 활동을 한다. 지역봉사팀은 봉사활동지도 제작, 지역내 공공시설 점검, 청소년유해환경조사, 불법주차자동차 및 길에 버려진 위험물 등의 카메라고발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4월5일 식목일

"사찰환경 가꾸자"

보광사·천불사등 지역토양 조사 수종선택

4월5일 식목일을 맞아 보광사 맑고 향기롭게모임 등 불교계에서도 자연환경 가꾸기에 한몫할 전망이다. 올해 교계 식목행사는 예년과 달리 각 사찰·단체별로 나무심을 지역의 토양을 미리 조사해 수종을 선택, 환경나무를 심을 예정이어서 불자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교계 식목행사

▲보광사(주지 효림)-절주변 은행나무심기 (0543)942-7700 ▲천불사(주지 도봉)-절주변 은행나무 유자나무 감나무심기 (0523)82-1463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흥교스님)-범어사일대 꽃씨뿌리기와 동백나무심기 (051)898-2672 ▲불교환경교육원 초록바람(회장 신진석)-의왕천 또는 분당 복개천 등(장소 미정) (02)765-6324

◇묘목 고르는 법=잔뿌리가 많고 사방으로 고루 뻗어 있으며 눈이 큰 것을 골라야 한다. 꽃나무는 꽃봉오리가 굵고 봉오리수가 적게 달린 것이 병충해에 강하고 꽃도 왕성하게 핀다.

◇나무 심는 방법=뿌리가 마르기 전에 심는 것이 좋지만, 바로 심지 못할 경우 건조되지 않게 거적 등을 뿌리에 덮고 물을 뿌려둔다. 구덩이 크기는 나무 뿌리가 퍼져있는 직경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우선 구덩이에 밑거름과 부드러운 겉흙과 속흙을 섞어 3분의 2정도 채운 뒤 나무를 잡아당긴 듯 잘 밟아준다. 이어 물을 충분히 준 후 나머지 흙을 채우고 짚이나 나뭇잎으로 덮어준다.

◇심은 뒤 관리=나무크기에 따라 지주목을 설치한다. 비료는 심은 해에는 주지 말고 다음해에 준다.

식품은 건강과 직결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요소이다. 환경을 통한 식품의 오염문제는 식품가공과 조리과정에서 부생(副生)되는 극미량의 유독성 오염물질과 함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본란은 서울대 이태녕박사(73)의 연재를 통해 건강에 보탬이 되는 바람직한 식품조리에서부터 올바른 식습관까지의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 주〉

식품조리

건강과 식품 〈1〉

유독물질 생성 가열온도·시간 밀접한 관계



이태녕

54년 국방부 과학연구소 식품영양연구실장, 88년 대한화학회 생화학분회 회장, 91년 한국문화재보존과학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또 금성화랑훈장(53) 국민훈장석류장(82) 국민훈장동백장 대한화학회교육상(89) 대한민국학술원 학술상(90)을 수상했다.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화학)로 재직중이다.

식품은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발육을 촉진하며 활동과 즐거운 생활을 위하여 섭취하는 음식을 말한다. 또 요리나 가공식품에 향신미(香辛味)와 맛·빛깔을 주는 것도 식품의 범주에 넣는다. 이 식품은 문화의 기반되는 의식주 중에서 생명유지의 첫째조건으로 꼽히기도 한다.

건강이 정신적 안녕상태를 제외한 육체적 건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을 위해 안전한 식품과 건전한 식습관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인류문명이 발달하고 생활이 다변화되면서 식문화도 다양해졌다. 현대인들은 식품가공과 조리를 통해 미각적(味覺的)인 것을 추구하고, 식품영양을 고려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 가공·조리과정상의 오류를 통해 발암물질을 초래하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독성물질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열온도와 시간이다. 온도가 높을수록 시간이 길수록 독성이 많이 생긴다는 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시대에 맞는 건전한 식문화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향원



!! 허리, 다리, 질환및 지방축적 방지와 자세교정에 착용하는 신비의 건강 미용 의류 !!

!! 여성용(모나리자), 남성용(다윗)으로 되어 있고 남자의 경우 소변을 보기에 편리하며, 개인별 정밀측정이므로 허리: 5~6mmHg, 배:6~7mmHg, 허벅지:8~10mmHg, 종아리:13~15mmHg로 부이별 압력분포가 다르며 허리에는 특수코일빔과 특수자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착용시 상상을 초월한 편안함과 상쾌함으로 달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함!!

◉ 방송 및 신문보도

1. 1996년 7월 14일 "MBC" / 대구문화방송 9시뉴스 "신비의 옷" 방영
2. 1996년 8월 9일 "한국경제신문" / 허리·다리 질환및 부전증, 피로회복, 근육통에 큰 도움을 주는 의류개발
3. 1996년 8월 16일 "대구매일신문" / 디스크 예방, 방지, 다리질환, 피로회복에 큰 도움을 준다.
4. 1996년 9월 1일 "가톨릭신문" / 허리, 다리질환, 피로회복, 지방축적방지 탁월
5. 1996년 9월 14일 "매일경제신문" / 압박옷으로 혈액순환 촉진되다.
6. 1996년 10월 6일 "SBS 모닝와이드" / 지방축적방지, 허리, 다리질환
7. 1996년 10월 11일 "매일경제 TV"/ 지방축적방지, 허리, 다리질환, 혈액순환
8. 1996년 10월 14일 "보건신문" / 혈액순환, 피로회복, 허리, 다리질환 개발
9. 1996년 12월 16일 "TBC 좋은 아침입니다" / 허리, 다리질환, 지방축적방지

◉ 의학적 증명 ◉

※ 대구 동산병원, 계명의대 정형외과 강창수 교수(박사·과장·학장·의무원장) MBC, TBC, 인터뷰에서 본 제품은 디스크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을 주며 다리관절 보호, 통증, 피로회복, 부전증과 혈액순환에 착용하면 효과가 매우 크다 함!!

※ 대구 동산병원, 계명의대 성형외과 강진성 교수(박사·과장·학장·의무원장)는 혈액순환, 피로회복, 부기가 오는 부전증, 혈관종, 임파종을 예방 치료하며 특히 장시간 걸으면서, 서서, 앉아서, 운동, 직업, 생활, 여행, 임산부에 착용시 효과가 매우 크며 굵어지는 허리, 다리를 예방할 수 있다 함.

※ 착용 대상자

골프·테니스·등산·조깅 등 보행을 많이하는 운동, 서서, 걸으면서, 앉아서 업무, 생활, 여행, 디스크 예방·방지, 허약한 허리, 골반, 다리, 통증피로, 바람, 저림, 근육통, 관절통, 굵은허리 다리, 힘없는 허리 다리, 임파종, 혈관종, 부전증, 조금만 걸어도 허리·다리에 피로를 빨리 느끼며 마비, 부기, 통증, 저림이 오는 분, 다이어트를 하거나 하고난 후 지방축적 방지와 허리·배·다리에 균형을 상실한 분, 모든 운동후나 일과후 피로회복에, 미연에 예방차원에서도 착용하는 신비의 건강 미용의류!!

● 특허:63833호, 89633호, 특허출원:10978호, 5799호, 8510호

엄마의 손
제 일
HAND OF MOTHER (JAEIL)

◘ 대구본사 : 대구시 서구 평리5동 1536-1
TEL. (053)566-9226~7, 566-0750~1
FAX. (053)559-9226

◘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삼창프라자 12층 2호
TEL. (02)717-4654~5, 717-4548~9
FAX. (02)717-4655

★저희 엄마의 손에서는 저희 제품을 사업상 취급코자 하시는 유능한 인재를 찾습니다. (점포, 무점포, 가정에서도 가능)

뉴욕에 "法音 메아리"

라디오 KOREA, '맑고 향기' … 1시간 방송
뉴욕 불교방송추진위 후원으로 시작

미국 뉴욕에서는 처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라디오전파를 통해 전하는 불교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뉴욕 930 AM Korea 라디오방송을 통해 현지시간 오후 9시부터 1시간동안 진행되는 '맑고 향기롭게'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 이 프로그램은 뉴욕의 불광선원 연국사 상운사 조계사 백림사 도선사 원각사로 구성된 '뉴욕 불교방송추진위원회(위원장 휘광)'의 후원으로 시작됐다.

뉴욕에서 첫 방송되는 불교프로그램방송이라 교포불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맑고 향기롭게'는 휘광(뉴욕 불광사 주지)스님과 현지 유학승인 일진(뉴저지 몬트클레어 주립대학 재학) 일아(저지시티 주립대학원 재학)스님등이 진행을 맡았다.

휘광스님은 "기독교인이 90% 이상인 교민사회에서 부처님 법음을 교포불자들에게 널리 전하고자 방송불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충실한 방송을 통해 한국불교 포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운영을 위한 기초자료인 불교음악CD, 불교관련자료등이 부족하다는 뉴욕불교방송추진위원회는 조계종 포교원(02-720-7060)을 연락창구로 개설, 한국불자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강지연 기자



◇태고종은 춘천 의암호에서 수륙영산대법회를 개최했다.

평화통일 기원 수륙영산법회

태고종 의암호서 … 불자 1만여명 참석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지난 3월 25, 26일 춘천 의암호 중도광장에서 '남북통일 국운융창기원 수륙영산 대법회'를 개최했다.

부처님 자비사상의 실천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구현하고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이번 수륙영산 대법회는 괘불이운, 종사이운, 수륙영산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어에서 운제스님(태고종 승정)은 "미물이라도 소중이 여기는 마음이 불법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인곡스님은 "생명존중의 실천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길"임을 강조했다.

이어 3부에서는 무형문화재인 영산재보존회 스님들이 영산재를 봉행했으며 명수스님(봉원사)의 회심곡으로 방생법회를 마무리했다.

〈춘천=김주일 기자〉

바닷길 수륙대재
진도사암련, 7~9일

바다가 갈라지면서 길이 생기는 신비한 진도 바닷길 축제에 수륙대재와 함께 치어 방생법회가 봉행된다.

진도사암련(회장 도훈·쌍계사 주지)은 7일부터 9일까지 영산재 보유스님등을 초청 30여만의 인파가 참석한 가운데 법단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법회를 연다.

귀순자 신명철씨 초청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지난 3월 22일 오후 3시 광주불교사암련회장 상명스님과 5백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귀순자 신명철씨 초청법회를 개최했다. 주지 혜월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탈북자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귀순자 포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초청법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연에 나선 신명철씨(94년귀순·한국통신공사근무)는 "북한의 불교는 신행생활보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존립할 뿐이다"며 "김일성부자 유일사상만이 북한의 종교"라고 밝혔다.

불교방송 공금횡령 의혹증폭

구속 김현안씨 "결재받고 정상지출" 주장

불교방송 공금횡령 및 유용사고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불교방송 공금횡령 및 유용혐의로 검찰에 구속중인 김현안씨(前 경리직원)는 지난 3월 27일 서울 서부지원 첫 공판에서 "모든 것이 결재를 거쳐 정상적으로 지출됐다. 나는 공금을 횡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 실시된 4차례 조사결과도 공금횡령액이 제각기 다르게 나타나 의혹을 더하고 있다.

더구나 불교방송이 지난 1월 20일 작성된 삼일회계법인의 최초감사보고서가 최근 나온 최종감사보고서와 비교한 결과 일부 변조된 것으로 확인돼 사건의 축소의도에 대한 의구심도 일고 있다.

또 불교부산방송 개국성금과 관련 노조의 '부산방송 실사보고서'에는 24억원이 모금됐다고 발표됐으나 불교부산방송과 당시 개국성금을 관리했던 재단은 19억원이 모금했다는 어긋난 주장을 하고 있어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 지선)은 불교방송 공금유용 및 횡령사고에 대해 지난 3월 26일 성명서를 내고 조계종중앙종회의 진상규명과 검찰의 공명수사를 촉구했다.

전불련은 125회 임시 중앙종회에서 불교방송조사특위를 구성하는 데 이어 불교방송 사건과 직간접 개입의혹이 있는 종회의원이 포함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불교방송사건이 종회차원의 대응에도 해결되지 못할경우에는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불교방송노조는 경영진 퇴진운동 전개를 위한 노조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선상신)'를 지난 3월 30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자비의 천수천안' 100회 특집

감동사연 취재기·제작과정·방송 후일담 공개

관세음보살의 원력으로 지난 3년동안 이웃의 어려움과 불행을 함께 해온 불교TV의 '자비의 천수천안'(PD 김오중)이 지난 1일 1백회를 맞았다. '자비의 천수천안'은 매회 한사람씩 총 99명의 고통받는 이웃에게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1백회 특집에서는 18회 출연자인 자제정사 묘희스님 등을 만나 방송이후 후일담을 듣고, 장애인 임에도 굴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명희씨도 초대됐다. 또 제작과정의 눈물어린 사연을 담은 취재기도 공개됐다. 한편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이계진씨(전MC) 손종태목사(기독교TV '예수사랑 여기에' MC) 세실리아수녀 등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등불같은 '자비의 천수천안'이 1백회를 맞아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더욱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란다"는 특집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백상예술대상 불자연예인 다수 영예



◇김영애 ◇유동근 ◇배용준 ◇박신양

지난 3월 24일 열린 제33회 백상예술대상시상식에서 임권택 김영애 유동근씨등 불자연예인들이 대거 수상의 영광을 안아 눈길을 끌었다. 임권택감독은 영화 '축제'로 감독상을 수상했고, 박신양 이은정씨는 영화 '유리'로 남녀신인연기자상을, 김영애씨는 KBS드라마 '형제의 강', 유동근씨는 MBC드라마 '애인'으로 남녀연기자상을, 배용준씨는 KBS드라마 '첫사랑'으로 남자인기상을 각각 수상했다. 특히 지난해 방영된 KBS 특별기획 '10대문화유산 시리즈' 중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특수영상효과가 돋보였던 '황룡사'(PD 황용호)가 기술상을 받았다.

해외불교

미불교협 국제학술 세미나
서래사서 10개국 50명 토론

미국불교협회(회장 에드워드 쿠지카)는 지난 3월 15일 LA근교 서래사에서 '다양한 문화속의 불교'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남방불교, 대승불교, 밀교의 이론과 수행에 대해 스리랑카 및 중국, 티벳스님의 주제발표가 각각 있었다. 이어 중국, 일본, 버마, 태국 등 10개국 스님과 대중 50여명이 '불교의 근본사상과 다양한 문화속에서의 불교의 조화'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 특별초청연사로 초빙된 법륜스님(JTS·국제 기아 질병 문맹퇴치 민간기구 대표)은 '불교의 깨달음'이란 주제로 강연해 눈길을 끌었다.

달라이 라마 대만 방문
中 심기불편 남동부 해안군사 훈련시사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중국의 계속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대만을 방문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6일간 대만에 체류하면서 이등휘총통을 비롯해 대만불교협회의 종교인사를 만나고 불교집회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인 달라이 라마는 "이번 방문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대만의 불교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조성하고 문화교류와 포교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달라이 라마의 대만 방문 허용은 국민당 분리주의자와 티베트 독립운동 세력간의 연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항의한 바 있는 중국은 최근 남동부해안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해 달라이 라마의 행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한데는 지난 2월초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중심도시인 이닝(伊寧)에서 일어난 유혈폭동과 최근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발생한 버스 폭발 사고 등 최근 소수민족의 反중국 경향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종단소식

태고종

선암사 수호 결의
지암스님 주지직 대행

순천 선암사는 지난 3월 21일 40여명의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경내 심검당에서 전산대회를 개최하고 태고총림을 수호키로 결의했다.

이날 전산대회에서는 태고종 총무원측 2인 선암사 원로재적승 3인 중진스님 6인등 11명으로 선암사수호대책위(위원장 지암·광주 세심정사 주지)를 구성했다. 한편 수습대책위원장 지암스님은 이달안으로 열린 전산대회까지 주지직을 직무대행 한다.

종단 조직정비 회의
경기북부 1백여 사찰

태고종 경기 북부 종무원(종무원장 우담·선봉암 주지)은 지난 3월 28일 고양시 내자사에서 경기 북부 산하 1백여개 사찰 주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단 조직 정비'에 관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사찰 주지들은 새 총무원장이 선출에 따라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종단방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천태종

진신사리 10과 봉안
18·19일 삼광사 대보탑 낙성

부산 삼광사(주지 춘광)는 오는 18, 19일 이틀간 '호국호법 남북평화통일기원 53존불 8면 9층 대보탑 낙성 법요식'을 개최한다.

이번 법회는 18일 봉안식 및 국제 고승대덕스님 환담회, 점등법요식에 이어 19일 낙성 법요식 및 문화예술제, 영산불공 등의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대보탑은 천태종의 8교와 신라 황룡사 9층탑 등이 호국을 상징해 왔다는 측면에서 8면9층탑으로 조성됐다. 또 이 대보탑에는 미얀마에서 온 7과의 불사리와 티벳 달라이라마가 보내온 진신사리 3과 등 모두 10과의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됐다.

청년회 활성화안 마련
포교·행정등 분과 운영

천태종 중앙청년회(회장 이문수)가 '청년회 조직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발한 포교 및 사회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중앙청년회는 지난 3월 29일 대전 광수사에서 열린 중앙청년회 창립 26주년 기념법회에서 행정, 조직, 사업, 등 5개 분과위를 운영, 분과별 활동을 통해 청년회 활성화에 따른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임원단합대회 형식으로 열린 이번 법회에서는 조직강화를 위한 자체 간담회와 토론이 열렸다.

원융종

일공종정 추대식
창종 16돌 기념법회

대한불교 원융종은 지난 3월 27일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창종 16주년 및 국가와 겨레를 위한 기원 대법회'와 일공스님 제3세 종정추대 및 보인스님 제4대 총무원장 총무원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보인스님은 총무원장 취임사에서 "종단발전과 종무행정 수행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월서(종단협상임부의장) 덕암(태고종 승정)스님을 비롯해 법홍(원효종) 홍파(관음종) 대호(대한법화종) 영명(법상종) 인왕(여래종) 지명(조동종)스님 등을 비롯 함종한(신한국당 불교신도회장)의원 성순경씨(한국여법사회장) 등 사부대중 6백여명이 참석했다.

알림 본지 20면 증면과 함께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마음 물러서지 않는 믿음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질때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을 지닐때 떳떳해질 수 있고 여여해 질수 있다. 한마음 주인공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잘해 나가고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50%를 넘지 못한다.

찬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황토와 약쑥의 신비하고도 뛰어난 약성성분이 내열탕기와 황토좌대에서 발생되는 원적외선 열과 함께 뜨거운 수증기로 합쳐져 1시간이상 계속적으로 방출되게 함으로써 인체 조직파괴 없이 피공(皮孔)에 가장 효율적으로 침투하여 약리작용을 일으키도록 구조가 설계된 …

가정용 전통 황토 쑥 좌욕기

⊙ 전통 황토·쑥좌욕기는 좌욕기능외에 다용도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좌욕효능



● 여성의 온갖 자궁병질환 및 변비, 치질 배군살등
● 남성의 전립선 질환 및 정력감퇴 빈뇨, 잔뇨, 소변곤란, 배뇨통등

〈1日 20분 30분, 좌욕을 하십시요〉

〈2〉 미용효능



●얼굴피부속 노폐물제거피부가 뽀얗게 됨
●피부노화방지, 회복, 재생
●피부탄력유지, 윤택뛰어난 피부 맛시지 효과
●기미, 어드름 검버섯등의 예방 및 제거
●비염, 축농증, 기관지염, 편도선, 천식, 폐질환, 후두염등

〈1日10분~15분 얼굴피부찜질을 하십시오〉



〈황토로 만든 도자기 좌대〉

· 실용신안등록원 : 제96-23062호
· 의장등록출원 : 제96-16268호

●규격 : 높이 27cm × 직경 33cm
●전기를 사용치 않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해도 전자파를 받을 염려가 없습니다.
●강화약쑥 100일분 + 황토가루 100일분 포함
●좌욕기 사용시 사진과 같은 참대를 이용하시면 대단히 편리합니다.

※전통 황토·쑥 좌욕기는 현재 사용하고 계신분들이 그 효능을 인정하여 주위에 적극 권하는 현대인의 가정필수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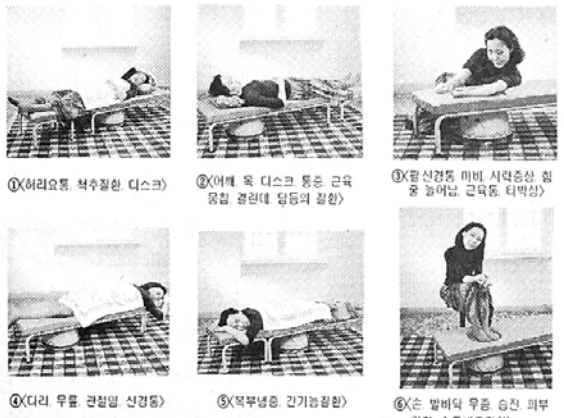
보급가 전통 황토·쑥 좌욕기 : ₩ 270,000
침 대 (벌도선택사양) : ₩ 90,000

⊙ 전통 황토·쑥좌욕기를 사용시 질병치료에 탁월한 치유효능이 있다는 근거는?

●「동의보감 탕액편권3」「본초강목」「향약집성방」「신해경」 등의 앳의서에 황토와 약쑥의 탁월한 질병치료 작용과 효능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씌여있는 기록과 단군이래 수천년동안 선조들이 황토와 약쑥을 이용하여 온갖 질병을 치료해온 경험으로 축적해 놓은 민간요법을 근거한 것으로, 황토와 약쑥이 인체에 좋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황토가루와 약쑥을 염분(소금)과 함께 펄펄 끓여서 황토좌대 안에 넣고 그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로 아픈부위를 집중적으로 쐬면 아래와 같은 질병치료에 큰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뜨거운 증기 찜질효능 〈각 질환 부위별 치료방법, 아픈곳을 최대위 구멍에 대고 찜질〉



①〈허리요통, 척추질환, 디스크〉 ②〈어깨, 목 디스크 통증, 근육뭉침, 결림대, 당등의 질환〉 ③〈팔신경통, 마비, 시력증상, 힘줄 늘어남, 근육통, 타박상〉
④〈다리, 무릎, 관절염, 신경통〉 ⑤〈복부냉증, 간기능질환〉 ⑥〈손, 발바닥 무좀, 습진, 피부각질, 수족냉증질환〉

※ 체험치료사례모음 : 본제품을 사용하시어 효과를 보신분들께서는 본회로 치료사례를 보내주시면 1년분 약쑥과 황토가루를 보내드립니다.(주소, 성명, 전화번호, 질병종류, 치료기간 기록)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자매품

"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낫고자 별 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 쑥 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보급가격: ₩150,000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회장 혜천)
부설 : 바라밀건강연구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 (0342)706-3060

서울(02) 강남 : 553-0261~2 송 파 : 417-8922 경기지역 : 평택 : (0333)856-6856 분당 : (0347)66-0049
강북 : 902-2430 종 로 : 747-7033 용인 : (0335)36-4294 과천 : (02)503-9352
성북 : 942-6430 영등포 : 782-6080 부산(051) : 부산진구 : 803-0108 연제구 : 864-2900
반포 : 597-7581 구로·금천 864-0199 해운대구 : 702-2621
대구(053) 남구 : 474-2828 달서구 : 635-9734
대전(042) 중구 : 222-4936 서 구 : 534-4211
동구 : 253-6446 둔 산 : 487-7245
경남지역 마산 : (0551)23-9016
김해 : (0525)24-4871
진주 : (0591)43-4655
울산 : (0522)74-7536
울산중구 : (0522)93-1973
울주구 : (0522)85-1284
경북지역 포항 : (0562)82-3155~6
안동 : (0571)53-0229
광주(062) 동구 : 228-8544
서구 : 523-1540
강원도 강릉 : (0391)645-2117
충남지역 공주 : (0416)856-6856
예산 : (0458)33-3208
서산 : (0455)63-0457
아산 : (0418)43-3510
충북지역 청 주 : (0431)273-2684
제 천 : (0443)46-3023
제주도(064) 제주시 : 22-3324

현불뉴스

승가대 김포학사 후원법회

중앙승가대학교 발전위원회(위원장 월주스님)는 오는 14일 오후 6시 힐튼호텔 컨벤션 센타에서 '중앙승가대학교 김포학사 신축불사 후원대법회'를 봉행한다.

한편 발전위는 지난 3월24일 현 학사가 △수행과 학습공간 협소 △불교전문대학원의 설립 등 5개항의 김포학사 신축 당위성을 제시한 홍보문을 배포했다.

기초행자교육 엄격 시행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은 지난 3월20일 기초행자교육 시행지침에 대한 공고문을 발표했다.

교육원은 이번 공고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나, 행자교육의 질적 발전과 교육제도 정착을 위해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13기부터 시행지침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불련 '불교자주화 실천기간'

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 지선)은 3·29 종단개혁 3주년을 맞이하여 3월 29일~4월 15일을 '불교자주화 실현을 위한 실천기간'으로 설정하고 종단개혁 비디오상영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3·29 정신계승과 불교발전의 방향모색을 위해 마련한 이번 실천기간 중에는 조계사 경내에서 △보도내용 전시전 △훼불사건, 종교편향정책 사례전시전 △만평전 등이 열린다.

교육관계법 개정등 촉구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의장 원돈)은 지난 3월 25일 '개혁불사 3주년을 맞이하며'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승련은 이 성명서에서 △현 교육현실에 맞는 교육 관계법 개정 △선본사 직영사찰해제 반대 △북한동포를 돕기위한 실천적 방법모색 △총무원장 및 대통령선거시 건강한 종단정치 풍토조성 등을 촉구했다.

옥수수 1만톤 보내기 운동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집행의원장 법륜스님)는 제1차 '옥수수 1만톤 보내기 캠페인'을 지난 3월 28일터 4월 2일까지 서울역과 제일은행 본점 앞에서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의 가두 모금액으로 중국산 옥수수 1만톤을 구입, 적십자사를 비롯 국제구호단체 등을 통해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다. 5월31일까지 2, 3차에 걸쳐 진행될 캠페인은 명동 상업은행앞과 서울역, 제일은행 본점 앞 등 서울 14개 지역에서 전개된다.

대불련 北돕기 모금 전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고영상)는 지난 3월22일, 23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과 봉은사에서 각각 북한동포돕기 모금운동을 벌였다.

양일간 60여만원의 성금을 모금한 대불련은 매월 두 차례 모금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성금은 한달에 한번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에 전달한다.

"가진 것 다주고 싶었어요"

북한동포돕기 1천만원기탁 박상은씨



"한 민족인 우리 동포가 먹을것이 없어 살기 힘들다는데 가슴이 아프더군요. 동포를 위한다는 마음뿐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집행위원장 법륜스님)가 북녘 동포돕기 모금운동을 4개월여 전개하는 동안 최고액인 1천만원을 성금한 박상은씨(52, 건축업). 그의 보살행은 고난한 인생역정이 드러나면서 더욱 감동을 주지만 그는 오히려 부끄러워하며 한사코 고개를 돌렸다.

"가진 것 다 주고 싶었습니다. 매일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결코 뭘 얻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드리지요. 철갑옷보다도 강한 부처님 말씀은 제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20대 초, 박씨는 군복무 중 구속됐다. 그리고 청춘을 피워 보지도 못한 채 다시 사회로 돌아온 것은 45세 중년이 돼서다. "선임하사의 심한 구타로 탈영을 했던 것이 월북의도라는 죄명이 돼버렸습니다." 박씨는 힘들었지만 부처님 말씀 때문에 외로운 시절을 견딜 수 있었다고 한다.

형무소서 20년 젊음 보내고
출소후 수지침봉사등 자비행

20년을 마치고 지난 89년 출소한 박씨는 인생을 새롭게 다시 시작한지 비록 8년째지만 한번도 자신의 행복이나 즐거움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 먹어 본적이 없다.

교도소에서 익힌 기술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된 박씨는 짧은 사회생활 동안 남몰래 많은 자비행을 펴왔다.

그의 본업은 건축업이지만 매일 아침 8시 홍제동 정토포교원으로 출근(?)한지 6년째다. 그곳에서 오전내내 불자들에게 수지침을 놓아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한편 대불련 간사 출신인 부인 배정순(32)씨는 '인술을 베풀며 살고싶다'는 박씨의 뜻을 알고 현재 한의대진학을 위해 대입공부를 하고 있다.

박씨는 이밖에도 틈틈이 성남시 노인복지시설 자광원을 찾아가 노인들에게 침을 놓아주거나 필요한 약품, 생활용품을 보시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7371-114 불교안내전화 개통

전국 사찰·단체 1만5천곳 무료서비스

전화 한통화로 전국 1만 5천여곳의 불교단체 사찰전화·주소를 알수 있다.

24시간 전문전화상담기관 자비의 전화(회장 정덕스님)는 2년여의 준비과정과 시험가동끝에 지난 3월 29일 무료안내전화 '불교 114'를 정식개통했다.

7300-108과 7371-114 두대의 전화를 개설한 무료안내전화 '불교 114'는 전화국의 114안내와 마찬가지로 전화 한통화로 연락처, 주소가 필요한 일반인이나 불자들에게 전국 1만 5천여곳의 불교단체와 사찰을 안내해 알권리를 실현해주는 전화정보제공서비스이다.

불교 114 무료안내전화는 전화를 걸어 단체 사찰전화 주소를 단체 사찰전화 주소를 문의하면 안내자원봉사자가 컴퓨터 검색을 통해 관련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비스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다.

자비의 전화 신희권국장은 "앞으로 법회안내, 행사, 사찰유래, 부대시설, 부속기관등 신행정보와 참회도량, 기도도량등 특성화된 사찰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며 "다양한 불교자료를 구축하여 컴퓨터통신을 통한 안내서비스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기초선원 첫 입방식이 지난 3월24일 팔공산 동화사에서 개최됐다. 〈대구=이윤호 기자〉

사찰에도 컴퓨터 '바람'

은해사 승가대학원생 통신동아리 결성
운문사 전산실 개설…해인사 역경작업

산문안에도 컴퓨터바람이 불고 있다.

대구 은해사(주지 법타) 승가대학원의 경우 11명 학생 전원이 컴퓨터통신으로 동아리를 결성해 인터넷파일을 자유자재로 이용하며 경전 현대화 작업을 펼치는가 하면, 노트북컴퓨터로 세미나를 준비하기도 한다. 또 승가대학원생들은 펜티엄노트북컴퓨터(1백20MHz)를 갖고 각종 과제와 논문준비 경전공동번역 및 입력작업 등을 하고 있다.

대학원생 스님들은 이달 중순쯤 4개월가량 컴퓨터로 공동작업한 〈금강경전서〉(4백쪽분량)를 발간한다. 〈금강경전서〉는 중국 구마라집대사의 한역본을 육조 혜능대사 등이 해석한 전통사찰의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에다가,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산스크리트어 원본과 구마라집 보리유지 진제삼장 달마검다 현장법사 의정등 육가의 금강경한역문을 덧붙여 집대성한 것.

승가대학원 용학스님은 "승가대학원뿐만 아니라 일반 사찰이나 타 승가대학 스님들도 인터넷에서 대만이나 일본의 경전파일을 다운받아 한글파일로 바꾼 뒤, 국내컴퓨터통신에 전자우편으로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주로 승가대학을 중심으로 한 이들 '컴박스님'들은 나우누리통신망에 SANGA라는 폐쇄이용자그룹(CUG)방을 만들어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이밖에 비구니사찰인 청도 운문사(주지 명성)가 20여대의 펜티엄 컴퓨터로 전산실을 구성해 놓았고, 해인사 고려대장경연구소 스님들은 컴퓨터로 경전번역 입력작업을 수년째 해오고 있다.

용궁사버스 낙동강 추락

지난 3월27일 부산 해동용궁사 버스가 구포신대교에서 중앙분리턱을 넘은뒤 다리난간을 들이받고 20m 아래 낙동강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 박봉수씨를 비롯 승객 6명중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허성호씨(53·부산 구로3동)만 구조됐다.

조계종 기초선원 첫입방

동화사서 37명 결제

조계종 승가교육의 새 장을 여는 기초선원이 첫 신입생을 받아들이고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기초선원은 최초의 봄교과안거 결제식을 지난 3월24일 팔공산 동화사에서 봉행하고 4월21일까지 한달간의 교육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교과안거에는 37명의 입학생과 6명의 청강생이 등록했다. 입학생들은 하안거와 동안거로 구성된 정규안거 8안거와 교과안거 6안거를 성만해야 졸업하게 되며 정규안거는 제방의 전문선원에서, 교과안거는 기초선원으로 지정된 도량에서 집체교육형식으로 이수하게 된다. 이날 결제식에는 진제스님(기초선원 조실)을 비롯 진허스님(기초선원장) 무공스님(동화사 주지)기초선원 입학생 등 사부대중 80여명이 참석했다.

목탁소리

오 종 욱 〈취재2부 기자〉

수상자 없는 '뇌허학술상'

올해로 13회를 맞는 뇌허불교학술상이 지난해에 이어 연속적으로 수상자를 내지 못했다. 뇌허학술상은 불교의 대석학 故김동화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83년 제정돼 매년 4월 5일 정각사에서 시상식을 갖고있다.

뇌허학술원에 따르면 "올해는 저술 12편과 논문 85편이 본심에 올라 양적인 증가를 보였지만 주제와 내용에서 우수한 작품을 찾을 수 없어 선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불론 기존의 수상자들을 제외시키는 뇌허학술원측의 수상작 선정방법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2년 연속해 수상자를 내지 못했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상을 탈만한 논문이 그렇게도 없나'하는 탄식을 불러일으킨다.

사실 교계의 연구풍토가 침체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온 것은 꽤 오래 전부터이다.

그동안 불교학계에는 연구다운 연구, 논문다운 논문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론이 있어왔다.

세미나장에 가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인 경우가 많고 성의없는 요식행위식의 토론·평가가 적지않다는 것이 학계에서 나오는 자탄의 일성이다.

불교학 관련 논문을 접하는 사람들도 때때로 가슴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한다. 일부 논문 중에는 각종 문헌을 비교 분석해야할 당위성을 배제해 논지(論旨)를 이해하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논문을 대하면 학문적 가치의 재생산이 왜 안되는지 답이 저절로 나온다.

현재 교계의 순수 불교학술상은 뇌허상 외에 불이상 가산상 등에 불과하다. 얼마 되지 않는 상조차 줄만한 논문이 없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조계종종회 유회거듭
성원미달 안건처리 못해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정)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3월25일 재적의원 80명중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백25회 임시중앙종회는 안건 상정·각 분과위원회 활동보고로 시작됐다. 그러나 26일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영담)의 결산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27일에는 성원미달로 2차례 유회를 거듭하는 등 진행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종회의 파행운영은 갈수록 난항을 겪고 있어 회기동안 상정된 안건조차 다루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오전 10시 현재〉

이에앞서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역대 총무원장스님들은 종정스님께 신년하례만 했으나 저는 7~8차례 종무보고 등 15차례 방문했다"며 "이는 과거 종단의 요직을 두루 역임해 종무행정에 밝아 지혜를 얻기위함"이라고 말했다.

또한 "종정스님 사표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마츄어무선국 '룸비니' 운영

석왕사 전국전파망 불우이웃돕기등 활동

동국대아마츄어무선국(HL0J)에 이어 교계에서 두번째로 개설된 아마츄어무선단체국 복지법인 룸비니(대표 영담, 회장 송기준)가 지난 3월 30,31일 부천 석왕사에서 첫 공개운용회를 가졌다.

운전불자들의 모임인 부천법륜회(회장 송기준)와 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이 공동주관한 장애인 가족행사에서 12명의 무선사들은 공개운용을 통해 60여명의 회원들에게 장비사용 방법과 통신요령을 지도하며 시범운용해 불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11월 3명의 전문 불자 무선사들이 뜻을 모아 올해 2월20일 창립시킨 룸비니회는 4개월만에 12명의 아마츄어햄 자격증 취득자를 비롯, 70여명의 동호회원들을 확보하고 이번 공개운용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파포교에 나서기로 했다.

매주 셋째주 금요일 오후 2시 석왕사에서 정기법회를 가질 예정인 룸비니회는 전국 전파망을 통한 불우이웃돕기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룸비니회의 호출부호는 6K0(제로)HX, 운용주파수는 7~144MHz.

계간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계간 '多寶'가 '불교와 문화'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선도하고 여러분에게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하여 현대적인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난 '불교와 문화'는 현실의 제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문화의 참 가치를 일깨우고 널리 알리는 작업을 통해 불교문화 창달에 기여할 것입니다.

불교와 문화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대보빌딩 (재)대한불교진흥원
전화 : 02-719-1855 / FAX: 02-719-5052



'97년 봄호 주요목차

해외통신
중국 지도자들의 火葬이 주는 교훈
특별기고 / 서양의 손가락과 동양의 달

지상논쟁
대승 佛說·非佛說論
出定後語를 통해 제기한 대승 비불설의 근거
大乘佛教史論을 중심으로 본 대승경전의 불설론
대승 불설·비불설론의 절충적 관점

특집
전생과 나
문헌사적으로 살펴본 전생과 윤회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본 최면과 전생요법
내가 본 최면
불교 윤회설의 의의
내가 느끼는 전생
전생과 윤회 관계논저목록

인물포커스 / 역사인물 재발견 시리즈 - 법공(法空) 스님
화보 / 사진으로 보는 聖寶기행 - '96년 새로이 지정된 성보를 찾아서
최초번역 / 태고 보우국사의 삶과 사상이 깃든 禪詩
- 太古庵歌를 듣는다
생태탐사기 / 가야산 일대와 선운사 야생화를 찾아서
불교계 주요행사일지 · 불교관계논저 총합색인 · 인터넷 불교 · 좋은 책 읽기

부처님오신날 현수막 제작 보급 안내

※ 서울·수도권지역 현수막 설치하여 드립니다. (설치비 별도)
— 초파일 15일전부터 10일전까지 설치(미리 주문하신 사찰에 한해)
■ 90cm×5m 현수막도 있습니다. (35,000원)

귀의 삼보하옵고 국민적 축제인 부처님오신날에 전국 각 사·암 단위로 설치하는 현수막을 본 감로기획에서는 현대감각에 맞게 제작하였습니다. 현수막은 옥외설치용 장엄물로 불자는 물론 전국민의 시야가 집중된 불교위상의 중요한 부분이라 사료되어 단청디자인으로 제작 보급합니다.

봉 불기 2541년 5월 14일 (음)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 축
대한불교 조계종 ○○사
■크기/90cm×6m ■가격/40,000원

봉 불기 2541년 5월 14일 (음)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 축
○○사
■크기/90cm×8m ■가격/50,000원

봉 불기 2541년 5월 14일 (음)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 축
○○사
■크기/90cm×10m ■가격/60,000원

❖ 부처님오신날 봉축 리본 수동식 100개 25,000원 기계식 100개 40,000원
❖ 부처님오신날 봉축 어깨띠(1장 : 2,500원) 100장 이상 제작시 사찰명 넣어 드립니다.

부처님과 함께 하는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 723-4307
FAX.(02)738-8682
■ 온라인 번호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



◇방금 피어나 은은한 향을 내뿜는듯 하는 내소사 대웅보전의 꽃창살문. 우리나라 대웅전문 가운데 으뜸으로 꼽힌다(왼쪽부터 빗국화꽃문, 빗연모란꽃문, 빗모란꽃문, 소슬연꽃문).

"목조각꽃 부처님 찬탄하네"

"내소사의 백미는 대웅보전의 꽃창살문입니다. 연꽃과 국화 모란, 채색이 지워져 오히려 고색창연한 아름다움을 전해줍니다.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는 지극한 신심이 그대로 배어납니다."

안내를 맡은 김정희교수(원광대 고고미술사)의 설명이다. 일주문에서 사천왕문에 이르는 5백여m의 전나무 숲길을 걸으며 이미 속진을 씻어낸 여행객들의 느낌도 다를 바 없다.

두번째 불교문화 테마여행 참가자 130여명이 내소사에 도착한 시간은 정오를 조금 넘은 때였다. 곧바로 대웅보전에 정좌했다. 총무 진현스님이 사찰의 연혁과 대웅보전 설선당 무설전 보화루 등 현재의 당우 배치를 소개했다.

내소사는 백제 무왕 34년(633년)에 혜구스님에 의해 소래사(蘇來寺)라는 이름으로 창건됐다. 이후 사세가 기울어 폐허이다시피 했던 사찰을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생(蘇生)을 얻도록 하겠다'고 발원하며 현재의 모습으로 가꾼 이는 청민(靑旻)스님이었다. 발원의 지극함만큼이나 이곳엔 법당내 공포의 목침이 하나 빠진 사연과 마무리하지 못한 단청에 깃든 아름다운 전설이 있다.

때는 1633년, 청민선사가 폐허가 된 내소사를



◇법당내부 공포(栱包)를 5출목(出木)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가운데 왼 왼쪽의 흰 부분에 목침 하나가 빠진 채 미완으로 남아있다.

본사가 주최하고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가 후원하는 '불교문화 테마여행' 두번째 목적지는 내소사(來蘇寺). 3월말이지만 봄을 시샘하는 바람의 한기가 만만치 않다. 그러나 대웅보전 꽃창살문의 흐트러짐없는 배열과 정교한 조각솜씨를 대하는 것만으로도 이번 테마여행은 풍성했다.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3월 내소사

"한국의 色·線·面"—목조각의 조형미와 단청



◀대웅전 후불벽에 그려진 국내 최대의 백의관음좌상. 선재동자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는 모습.

▼김정희교수의 현장강의를 듣고 노트필기를 하는 참가자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5출목 공포 단청과 어울려 '美의 극치'

'미완의 법당' 전설에 순례자 걸음 멈추고…

중창하여 있었던 일이다.

목수는 대웅전 지을 나무를 찾아 기둥감과 중방감을 켜고 작은 기둥과 서까래를 끊었다. 다음에는 목침만한 크기로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다. 이어 목수는 돌을 놓고 대패를 들어 다듬기 시작했다. 일은 여기서 벌어졌다. 동자승이 목수를 골려주려고 목침 하나를 감춰버렸다. 목침깎기 3년이 되던 날, 목수는 대패를 내려놓고 일어나더니 노적만큼 쌓인 목침을 세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주르르 눈물을 흘렸다. 연장을 챙긴 목수는 청민선사를 찾아갔다.

"스님, 소인은 아직 법당을 지을 인연이 먼 듯하옵니다. 목침 하나가 부족합니다. 아직 저의 경계가 미흡한가 봅니다."

"가지 말고 법당을 짓게. 목침이 그대의 경계를 말하는 것은 아닐세."

스님은 화공을 불러 단청을 부탁하고 대중들에게도 일체 법당 접근을 금했다. 그런데 또 동자승이 문틈으로 법당안을 들여다본 게 화근이었다. 오색영롱한 작은 새가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관음조였던 것이다. 동자승이 슬그머니 법당안으로 들어갔다. 순간 어디선가 산울림같은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새는 날아가 버렸다.

"이 법당은 미완의 법당입니다."

실제로 대웅전 지붕 밑 왼쪽을 가로지른 기둥엔 큰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 그 옆엔 용틀임하는 용이 물고기를 물고 있어 묘한 대조를 보인다. 여느 법당에서는 볼 수 없는 5출목으로 장엄해 극락정토의 아름다움을 드러낸 법당이 미완성이라니.

그 미완의 법당에는 나무로 깎은 연꽃 봉우리들이 환희의 합창을 하고 있었다. 아미타여래불을 찬탄하며 곧 피어날 준비를 하는듯 했다.

쇠못을 하나도 쓰지 않고 나무를 깎아 끼워맞추는 결구기법으로 조성된 대웅보전(보물 제291호)에는 부처님 좌대 뒷편에 좌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백의관음보살 벽화가 있다.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선재동자가 스물여덟번째 선지식을 찾아 보타락가산의 관음보살을 친견하는 장면이다. 웃고름이 매우 사실적이며, 관세음보살의 환웃이 눈부시다.

음통과 여의주를 희롱하는 용모양의 종고리 등이 고려시대 범종의 특징을 고스란히 지닌 동종(보물 제277호), 종신에 돋을새김한 삼존상의 모습이 오래도록 눈가에 머문다.

전나무 숲길을 내려오며 멀리서 울리는 종소리를 듣는다. 삼존상이 소리로 화현한 것이리라.

'이곳에 오는 사람 모두에게 소생을 얻도록 하겠다'는 청민선사의 발원을 여러분이 이어갈 때 비로소 이 법당은 완성되는 것이겠지요."

부안=정성운 기자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

전문가 안내

김정희 〈원광대 교수·고고미술사〉

내소사의 원래 이름은 소래사(蘇來寺)로서, 대소 2개의 절로 나뉘어져 큰 절을 대소래사(大蘇來寺), 작은 절은 소소래사(小蘇來寺)라 하였으나 후에 대소래사는 불타 없어지고 소소래사만 남아 현재에 전하고 있다. 소래사가 언제 내소사로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려때의 문인 최자(崔滋)의 〈보한집(補閑集)〉에 정지상이 "遠山 蘇來寺云云"이라고 한 것이든지, 이규보의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조선후기 실학자 신경호의 〈사찰고(寺刹考)〉 등에 소래사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 19세기 이후에 내소사로 바뀐 듯하다.

일주문, 천왕문을 지나 2층누각인 봉래루를 통해 경내에 이르면 능가산의 봉우리가 위용을 자랑하고 그 아래 팔작지붕의 웅장한 대웅보전(보물 291호)이 당당하게 자리잡고 있다. 인조대 청민선사가 중건하였다고 전하는 이 불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多包系) 건물로서, 넓이에 비하여 기둥높이가 낮아서 광정(平定)하며 단좌(端坐)한 느낌을 준다. 외3출목(出木) 내5출목으로 이루어진 공포(拱包)는 다른 건물에 비하여 복잡한 느낌을 주며 외서는 장식적이지만 매우 섬약한 느낌을 주어 16, 17세기 사찰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웅보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꽃살문이 조각된 문이다. 정교한 솜씨로 초화문(草花文)을 연속적으로 새겨나간 솜씨는 조각가의 불심을 그대로 전해주는 듯하다. 더구나 화려한 오색단청이 아니라 나무결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더욱 소탈해보인다. 대웅전 후불벽 뒷벽에는 국내에서 제일 규모가 크다는 백의관음좌상(白衣觀音坐像)이 그려져 있다.

대웅전 앞에는 고려시대의 3층석탑이 있어 말없이 고려조 사찰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으며, 범종각 안에는 고려시대의 범종(1222년, 보물 277호)이 봉안되어 있다. 높이 1.1m, 직경 67㎝의 이 종은 유곽(乳廓)과 유곽 사이에 정교하고 사실적인 솜씨로 삼존상이 조각되어 있고, 화려한 모란당초문(牡丹唐草文)의 상·하대, 상대 위의 입장화문대(立狀花文帶) 등 아름다운 장식이 돋보인다. 이외에도 경내에는 1640년에 창건된 회(回)자형의 주심포(柱心包)건물인 설선당(說禪堂)을 비롯하여 삼성각(三聖閣), 부도전(浮屠殿) 등이 있는데, 청림사 종과 삼층석탑을 제외하고는 조선시대 유물이 대부분이어서 대부분 청림선사 중건 이후의 것인 듯하다. 이밖에 내소사에는 보물 278호로 지정된 법화경사경(法華經寫經)이 전하고 있다(국립전주박물관 보관).

원래이름 소래사 19세기 바뀐듯

대웅전 연속 꽃창살문 '희귀'

고려동종 삼존불 조각 빼어나

btn 불교텔레비전 32 (주) 위동 마린투어



크루즈급 초호화 여객선으로 찾아가는 중국 불교성지순례

신심으로 가는 깨침의 길

중국불교성지순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중국불교성지순례

불교TV와 함께 다녀오십시오

불교텔레비전과 중국 최대 현지법인 여행사인 위동마린투어가 국내 최초의 크루즈급 호화여객선으로 모시는 선상여행에는 편안한 여유로움과, 최상의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3월27일(월) 첫 출항
일정:3월27일~3월25일

중국불교 핵심 성지순례 9일 ▶KDS-913 ₩1,180,000



구화산 보타산 성지순례 9일 ▶KDS-903 ₩1,100,000



중국남부 특선성지순례 9일 ▶KDS-921 ₩1,500,000

불교TV만이 드리는 모방할 수 없는 다양한 장점

- 획기적인 가격
- 여유있는 순례코스
- 국내최초 크루즈급 여객선의 최고 서비스
- 중국 현지 최대 여행사의 넉넉하고 편리한 일정
- 선상법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 성지순례 비디오테잎 및 성지안내서 무료제공

예약문의
불교텔레비전 사업부 ☎ (02)3270-3471~3
위 동 마 린 투 어 ☎ (02)7 1 1 -9111